

시로 읽는 성보순례
표충사 청동함 은향완
국보 제75호 표충사청동함은향완
고려시대 ▶2면

현대불교

도박으로 재물을 구하지 말고,
부적절하게 재물을 구하지 말며,
게으르면서 재물을 구하지 말라.
「중아함경 제33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8월 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06호 2012년 9월 19일 수요일

생협 필요성 커지는데 불교계는 '제자리걸음'

2012 UN 협동조합의 해 불교생협의 현 주소는

올해는 UN이 지정한 협동조합의 해다. 세계에는 많은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고, 한국에도 소비자부터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특히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결성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주요 생협 조합원 수 및 공급액 현황 (단위: 개소, 세대, 백만원, %)

구 분	지역조합수	조합원수			공급액		
		2010	2011	증가율	2010	2011	증가율
한살림	30	247,072	293,442	18.8	186,686	222,581	19.2
아이쿱생협	75	118,824	155,705	31.0	219,674	290,132	32.1
두레생협	23	85,022	103,874	22.2	66,674	75,072	12.6
민우회생협	5	22,792	26,736	16.4	16,962	17,015	0.3
합 계	123	473,890	579,757	22.3	489,996	604,800	23.4

왜 생활협동조합인가

민중적 대안 경제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은 심화되는 양극화 경향과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협도 마찬가지다.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상생적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다. 이런 가치들은 불교의 생명평화 정신을 구현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운동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는 6월 12일 인드라망 마을학교 강의에서 "생협은 무분별한 소비 중심의 도시생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식문화 위기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소비구조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활성화되는 생협, 불교계는?

이 같은 사회적 가치들은 최근 들어 활발히 구현되고 있다. 한살림, 아이쿱(ICOOP), 여성민우회 등 주요 생협의 조합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생협 연합으로 이뤄진 아이쿱 생협의 경우 조합원이 2010년 11만 세대에서 2011년 15만 세대로 31%가 늘었다. 공급액도 2011년 2900억 원으로 32%가 증가했다. 〈위 표. 참조〉

이런 주요 생협의 친환경농식품 공급액은 국내 식품 시장규모의 0.5%, 친환경농식품 시장의 13%에 달하며, 참여 생산자 농가 수도 6천 농가에 이른다.

일반 사회의 생협들은 일취월장하고 있지만 2천만 불자를 소비자로 한 불교계 생협의 상황은 '지지부지' 하기만 하다. 2006년 11월 불교생협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서울 불광사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여법한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불교생협연합회는 창립하지 못하고 와해됐다. 사찰 생협 매장 증가도 답보 상태이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곳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대표 도법)의 생협 뿐이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도 2009년 연꽃 생협을 출범했지만, 활발히 운영되는 편은 아니다.

농민운동을 간과한 결과물들

유독 불교계의 생협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불교적 가치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생산자군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이웃종교의 경우 카톨릭농민회나 정농회(개신교) 같은 농민운동 단체들이 1960~70년대 창립돼 현재까지도 조직을 유지 중이다. 실제 카톨릭농민회는 한살림 생협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정농회도 별도의 생협을 운영하고 있다. 농민, 도시민 대상 포교와 불교적 운동의 부재가 현재 불교 생협의 고전을 불러온 것이다.

이정호 인드라망생협 이사는 "생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명운동의 가치를 이해하며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이를 소비할 소비자, 그리고 이들을 이어줄 상근 활동가가 필요하다"며 "불교는 이 같은 총체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농공동체 대안으로 부상
한살림 등 두 자리수 성장
불교, '인드라망' 만 분투
불자농민 없고, 소비층 옅어
공생의 착한 소비 풍토 필요

생산 · 소비 · 유통 선구조 만들어야

인드라망 생협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1998년 귀농학교를 시작해 적지 않은 농부들을 길러냈고, 이들이 생산자로 참여하고 있어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생산자가 생기니 조합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만 500명 가량이 조합원으로 새로 가입했고, 현재 1100여 명이 활동 중 이다. 매년 적자였던 수익구조도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 꾸준한 귀농운동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정호 이사는 "귀농 인구가 점차 늘고 있고, 불교 귀농학교 졸업생들도 적지 않다. 생산자군에 대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했다"며 "이제는 소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일선 사찰과 현장 실무자, 단체가 결합해 함께 활동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환경의제 21' 의 공동실천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공양미 올리기' 는 일선사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협 운동이다. 하지만 봉은사, 도선사 등 20여 곳을 제외하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찰 생협 매장 증대를 통한 유통구조 활성화도 다시 추진돼야 할 과제다. 상품 가치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필요가 있어서다.

정우식 연꽃생협 이사장(대한불교청년회장)은 "생산자 확보와 유통구조 확립,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이 선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군 형성이 중요하다"며 "'공존공생' 이라는 큰 기조 아래 착한 소비를 해야 한다는 불교계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6면



어르신, 따뜻한 추석 보내세요 추석을 맞아 해외 교환 학생 등 동국대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동국참사람봉사단 소속 학생 60여 명은 9월 13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추석맞이 어르신들과 정 나누기' 배식봉사를 하며 3000여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팔상록' 뒷면서 군사기밀 문서 발견

불교학술원, 불교아카이브 조사중 발견 사료 발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9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 일환으로 평창 지암정사에서 소장도서를 조사하던 중 〈팔상록〉 이면에서 병인양요 직전 강화도 내 군사 물자 현황을 담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팔상록〉은 1854년 필사된 언해본으로 이면에는 1854년 당시 군사 요지였던 강화도의 군수 내역이 소상히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발견된 군사기밀문서는 다음 강화유수에게 업무 인계를 하며 작성한 문서"라며 "추정단계지만 〈팔상록〉을 제작한 우봉 최 씨가 용도가 다한 기밀문서를 경전용지로 재활용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불교경전을 활용한 군사기밀문서 보관 및 전달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팔상록〉 이면의 군사문서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군사무기 외에도 전등사(傳燈寺) 등 강화 소재 사찰과 암자의 솥(鼎) 개수도 파악돼 있다는 점이다. 기록에는 전등사 솥 7좌, 천제암 1좌, 진해사 1좌가 기록돼 있다.

이종수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는 "당시 강화도 15개 사찰 중 정족산성 인근의 사찰들로 당시 사찰이 군사보급 요충지로 활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야단법석2' 열린다

9월 19일부터 10차례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오는 9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조계사에서 10차례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야단법석 시즌2' 를 진행한다.

19일 '깨달음은 무엇인가' 를 주제로 열리는 첫 '야단법석 시즌2' 는 고우 스님과 도법 스님의 문답으로 진행된다.

'종단의 공직자', '사부대중의 미래', '우리 시대의 청규' 등의 의제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청규제정위원회 위원장 설우 스님 등이 강론자로 나선다.

'폭력과 갈등', '노동자', '문명전환의 시대' 등의 의제에는 김선우 시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청성산 지킴이 지율스님, 이문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중일 기자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취재부 경력기자 수습기자	약간명	① 경력기자 3년 이상 경력자 ② 수습기자: 2012년 졸업자 및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 ③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 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접수기간** : 2012년 9월 19일 수요일까지

2.**접수방법**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3.**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4.**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 02-2004-8204, 8205, 8212)

906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노동위 10만배 정진
우수 유치원 불교 고작 2곳
제16회 종교문화축제

시방세계 5
제4회 나란다 축제 현장



새연재 16 · 17
여기는 화엄만다라
이웃나라 돕는 월서 스님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전법 일기 – 주경 스님

제 4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자연의 맛 나눔의 마음

프로그램
동문스님들 바자회
바라밀장터
산사음악회 (사회:이수근 1박2일출현)
보시행 속의 경연마당
지계행 속의 시연마당
인욕행 속의 탁발공양마당
정진행 속의 정보마당
선정행 속의 공연마당
지혜행 속의 체험마당

문의 및 안내 봉녕사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m.bongnyeongsa.org

※사찰음식 경연대회 참가신청은 10월 2일 화요일까지 입니다. (홈페이지 참조)

몸을 지탱하는 양약으로 알아
맛에 탐닉않는 수행자로
2012.10.5금 - 10.6토
경기도 수원시 봉녕사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봉녕사
주관 봉녕사승가대학, 금강율학승가대학원, 묘엄불교문화재단, 심우불교대학, 선우회, 진여회, 거사림회, 관음회, 승만회
후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방경찰청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75호 표충사청동함은향완



표충사 청동함 은향완

이 우 걸

공양구여 공양구여

향기로운 공양구여

어지러운 고려의 뜰 한편에 숨어서

간절히 바치고 싶던 마음의 그릇이여

청동

은입사

균형 잡힌 품격 안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의

기원이 담기고 스며

오늘도 시정을 향해

잠 못 들고 계시온지……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이우걸 시인은… 1946년 경남 창녕 출생. 1972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지금은 누군가 와서〉, 〈저녁 이미지〉등.

불교계 노동문제 해결 행보 이어간다

조계종 노동위, 17일 10만배 정진… 종교인 원탁회의 구성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계의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8월 29일 노동자를 위한 무차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10만배 100일 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 이하 노동위)는 9월 17일 대한문 쌍용차 노동자 분향소에서 '쌍용자동차 문제 조속한 해결을 위한 10만배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차주 상보〉

100일 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10만배 정진에는 조계종 노동위원과 집행위원, 불교시민사회단체, 각 노조 노동자,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며, 정진의 시작은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이 알렸다.

노동위는 정진이 어느 정도 정책되면 시민들이나 이웃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108배 행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은 "불교계 내부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불교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위해 10만배 정진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기도를 시작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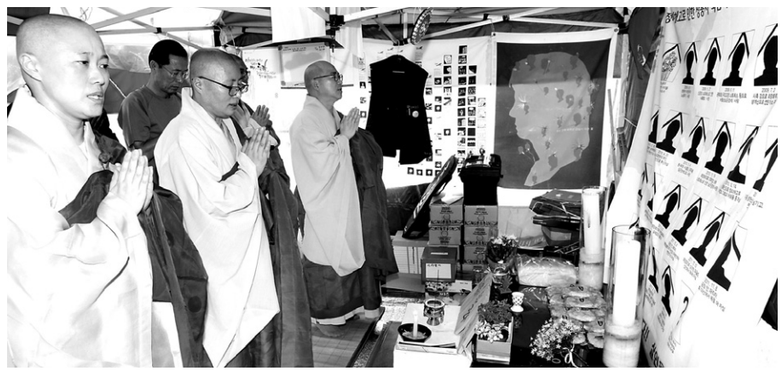
이와 함께 노동위는 ▷노사분규 현장방문 ▷긴급구호지원 ▷노동문제의 불교적 해법 창출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장기 해고노동자 및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공청회는 오는 10월 30일 열리며,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주요 발제자로 참여한다. 해고노동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해남 미황사에서 11월 중 개최된다. 이 같은 하반가 사업을 통해 노동위는 노동자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불교계 전반에 노동인식 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분규현장 방문, 구호활동 예정
불교적 해법 도출위한 공청회도
종호 스님 "이벤트 행사 안해"

종호 스님은 "매달 1~2회에 걸쳐 분규현장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이벤트성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교계 안의 노동인식도 매우 미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를 주축으로 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인 33인 원탁회의' 도 9월 17일 수운회관에서 출범 선언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3인 원탁회의에는 불교를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가 참가한다.



8월 27일 출범한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첫 행보로 쌍용차 분향소를 찾았다.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위와 불교계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원탁회의는 10월 13일부터 매주 대한문에서 국회의사당까지 10km 평화 순례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사회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는 게 원탁회의의 계획이다. 또한 사회 지도자들과의 면담과 각 종교별로 유가족을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도 추진한다.

원탁회의 구성을 이끈 도법 스님은 "보수와 진보 등 진영 논리로는 첨예해져가는 갈등 상황을 풀 수 없다"며 "'죽음의 행렬' 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한국 종교를 대표하는 5대 종교가 문제 해결에 나선 것도 통합의 관점에서 사태를 풀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 노동위가 진행하는 10만배 정진에도 결합해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양한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노동위 10만배 정진은 3, 5만배가 이뤄질 때마다 법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법회에 원탁회의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진각문화전승원 10일 입주 시작

개관 헌공불사 10월 30일 봉행

진각종 진각문화전승원이 본격 입주를 시작했다.

진각종은 9월 10일 '통리원 건물철거 및 진각문화전승원 입주원만불사' 를 진각문화전승원 1층에서 봉행하고, 중앙종무기관 등의 입주를 했다.

성초 총인을 비롯해 통리원장 혜정 정사,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효운 정사와 서울교구 스승 및 종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불사는 오불예참과 정공 및 강도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진각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뜻깊은 날이다. 전승원 천정은 마치 하늘을 향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진각성존의 원력이 다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의미의 표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각종은 10월 30일 진각문화전승원 개관 헌공불사를 봉행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진각종은 9월 10일 진각문화전승원 입주원만불사를 전승원 1층에서 봉행했다.

"합의 통한 쇄신안 높이 평가돼야"

도법 스님, 쇄신위 간담회서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 부위원장 도법 스님은 9월 12일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쇄신안 추진 경과에 대해 밝혔다.

스님은 쇄신위가 △승가청규 △종단종무쇄신안 △선거제도 △승가복지제도 등을 종단 쇄신 4대 의제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쇄신위는 먼저 본사 주지선출 관련 금품선거 등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중총회법을 논의해 9월 종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종단 쇄신에 대해 도법 스님은 "종단이 비상시국에도 종헌 기구를 유지하고 대중공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불교가 진일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쇄신위는 오는 11월 종회 이전에 각종 선거제도 관련 종법을, 종회 이후에는 종단종무쇄신안과 승가복지제도 쇄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E-러닝' 강좌 열풍, 하반기에도

조계종교육원, 승가교육 동영상 강좌 진행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012학년도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지방 승가대학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개편교과목에 대해 동영상 강좌를 시행한다"고 9월 13일 밝혔다.

2학기에 진행되는 동영상 강좌는 ▷세계종교의 이해 ▷중관 사상 ▷불교와 동서철학 등이며, 성해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김성철 동국대 교수, 김종욱 동국대 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각 강좌는 12주 분량이며, 40분 24강으로 구성돼 있다. 교과목별로 강의자료도 함께 제공해 학인 스님들의 학습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중일 기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황금사자상 들어올린 김기덕의 불교영상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예수를 안은 성모상을 의미하는 피에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수상작 외에도 김기덕 감독은 불교를 소재로 한 '봄 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또한 '사마리아'에서도 〈화엄경〉입법계품의 유녀의 이야기를 차용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관련 칼럼 31면

우수 '누리과정교육기관' 불교 고작 2곳

(유아기 인성교육)

복지부 발표… 유치원은 전무, 어린이집만 선정

보건복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5세 누리과정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지난 8월 20일 선정·발표했다.

보건복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5세 누리과정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지난 8월 20일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유치원 140곳 중 118곳이 공립유치원이었으며, 나머지 22곳의 사립유치원 중 가톨릭·개신교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11곳이었다. 불교계 유치원은 한 곳도 선정돼지 못했다.

또 선정된 어린이집 140곳 중 102곳이 국공립 및 법인, 직장 운영기관이었으며, 나머지 38곳이 개인 및 사립시설이었다. 기독교 단체가 6곳이었으며, 불교계 어린이집은 서울 신도림 반야어린이집과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혜정어린이집 등 2곳에 불과했다.

전체 280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이번 사업에는 평소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운영해 온 880여개의 유치원(400개)과 어린이집(480여개)이 참여해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실분위기 및 교사의 역할(30점), 교직원 인성교육 역량강화(15점) 등 5개 영역을 심사한 우수기관의 선정 절차는 지역심사와 중앙심사로 나눠 추진됐다.

지역에서는 최종 선정기관의 2배수 기관을 중앙에 추천하고 중앙에서는 중앙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추천된 우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해 5월 만 5세 유아에

기독교 기관 총 17곳 올라
인성교육이 주된 선발 이유

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이 과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왕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아기 인성교육이다. 이번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선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모두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복지부와 교과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도입이 초창기여서 규모와 조직면에서 비교적 체계를 갖춘 국공립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진각복지재단서 운영 중인 혜정어린이집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유아생활영어, 부모생활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 신도림 반야어린이집도 아토피, 천식 등 환경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마감재로 개·보수 했으며, 시설안전교육, 배움과 협동, 다문화체험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진각복지재단 관계자는 "혜정어린이집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돼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교계서 운영하는 특성을 잘 살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기관들에게 3년간 평균 650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곳에는 지역 내 시범운영을 위한 추가 비용이 더 지원된다.

정병익 교과부 유아교육과장은 "앞으로 누리과정이 활성화 되면 인성교육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3월부터 만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면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공모·운영 사업'을 통한 우수사례가 확산돼 인성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이웃종교 체험하는 축제의 장

종지협, 16회 종교문화축제

제16회 대한민국 종교 문화축제 생평 평화 사랑 나눔이 9월 8일 서울 청계 광장에서 열렸다. (사)종교지도자협회(이하 종지협)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민족종교 천도교 유교 원불교 등 7대 종단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음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공동대표의장),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희중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등 종교지도자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했다.

공동대표의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교문화축제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 시대의 문제에 부흥해 왔다"며 "각 종교간 이해와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갈등과 소외를 치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식 문화체육부 장관은 "종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열려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7대 종교 지도자와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생명평화나눔 사랑 퍼포먼스를 갖고 이후 펼쳐지는 기념음악회를 관람했다.

정혜숙 기자



제16회 종교문화축제에 참석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취업률 허위 공시 경주캠 총장 사퇴

김영종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김 총장은 8월 31일 교과부에서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에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오르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은 9월 7일 사표를 수리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김오우 경영관광대학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신임 총장 인선에 들어갔다. 신임 총장 임명은 10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에 취업률을 62.411%로 공시했지만 교과부 감사 결과 실제 취업률은 59.4%로 나타났다.

노덕현 기자



불교도 공부하고, 영어도 배우고

교육원 불학硏 '불교영어 초급2' 발간

영어와 불교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교재 〈불교영어 초급2〉가 발간됐다.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허정)은 승가대학 필수교과 교재인 〈불교영어 초급2(사진)〉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올해 초 〈불교영어 초급1〉을 내논 바 있다.

〈불교영어 초급2〉는 영어 회화와 불교교리,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 등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회화 편은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가장 접하는 주제를 6개 장으로 나눠 실전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파트너와 회화를 연습할 수 할 수 있는 'Pair Work'와 문법과 어휘를 정리한 'Word and Phrases'도 불교영어 공부의 이해를 돕는다.



불교 교리와 한국불교문화에서는 한글 지문을 먼저 제시하고 해당 영어 지문을 실어 학인들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빈칸 넣기와 같은 문제풀이 등도 수록돼 있어 스스로의 공부 상황을 점검하게 했다. 또한, 중간마다 쉬어갈 수 있는 '지대방' 코너에서는 선시와 찬불가를 수록해 불교의 선과 시를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편, 불학연구소는 내년초까지 영어 교육교재 6권을 발간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환경위원회 하반기 활동 재개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한다. 환경위원회의 재개를 앞두고 9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환경위원회 위원과 환담을 가졌다. 자승 스님은 "지역 사회에서 사찰의 입장과 종단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환경 분야에 있어 종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환경위원회는 "이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한다. 종단 환경정책 발전에 전적으로 동참할 의지가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환경위원회는 지난 3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한 화엄사 토지사용신청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케이블카 사업 반대와 절차상의 문제로 전원 사퇴하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조계종 사회부가 지속적으로 복귀를 요청했으며, 환경위원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락하면서 활동이 재개됐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일 주 문



추석 맞이 소외 이웃 돕기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9월 21일 서울 현성정사에서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백미 20kg 100포를 전달한다.



캄보디아 개발 양해각서 체결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9월 13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와 캄보디아 시엠립 쁘놈크롬 마을 개발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라불교문화 영산재 봉행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10월 12일 불국사 범영루 앞에서 신라불교문화 영산재 및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054)746-9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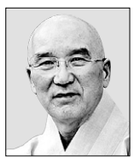
대검찰청 총장 등 관계자 예방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9월 12일 한상대 대검찰청 총장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서울대 국악 · 무용과 출강

신촌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조교)은 2012년도 2학기부터 서울대 국악과와 한국무용학과에 출강한다.



소년소녀가장돕기 산사음악회

화순 도원사 주지 진철 스님은 10월 1일 도원사 야외음악단에서 소년소녀 가장돕기를 위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전국 구치소 양심수 면회

종단협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9월 17~21일 추석을 맞아 서울구치소 등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8곳을 방문한다.



아름다운 동행에 의류 지원

최재락 세왕섬유 대표는 9월 13일 아름다운동행에 티셔츠와 청바지 등 약 24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후원했다.

"교육 과정 개편 통해 질 높이겠다"

신임 진각종립 위덕대 서남수 총장



"그간 정부서 일한 경험을 십분발휘해 위덕대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대학, 모든 학사체계가 학생 중심인 대학,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 기회를 재발견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정부의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지정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내년에는 불명예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교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진각종립 위덕대 서남수 총장<사진>은 취임식에 앞서 9월 10일 서울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교과부 제정지원제한대학 평가기준에 대해 서 총장은 "대학평가 선별기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제도는 제도인 만큼 주어진 범위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대학평가의 핵심은 교육과정 운영 등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우선 돼야 함에도 교과부의 평가는 단순 지표에 무게를 둬 대학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안타까워 했다.

실제로 교육 일선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교과부의 평가 기준은 학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학에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왜냐하면 위덕대는 장학금 지급률에서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중 15위, 대구경북지역 졸업생 1,000명 미만 4년제 대학 중 취업률 2위에 해당됐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제한대학 탈피를 위해 서 총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 총장은 "보직교수 대폭 개편과 우수교원 30명 이상을 채용해 교육의 질을 높일 것" 이라며 "2013학년도 신입생 중 학자금 대출이 70%로 제한되는 소득분위 상위 8~10분위 학생들에 대해서도 나머지 학자금을 대학서 직접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 총장은 교육과정과 학사체제 전반을 과감하게 쇄신할 계획이다. 교수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서 총장은 나름대로의 구상을 피력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직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학사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학생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학생 충원율과 대학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프로젝트 유치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부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 내부의 학사체제 개편이 병행돼야 합니다. 산학협력 강화도 재정기반 확충에 효과적일 수 있지요. 외부 장학금 유치나 발전기금 확충 등을 높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발로 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질문에 서 총장은 "구직과 구인 사이의 미스매치(mis-match), 즉 불일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도 이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요. 지역 기업들과의 산학협력 강화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서남수 총장은 경기도 부교육감(1999~2001),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2001~2002) 등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차관(2007~2008), 경인교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양학선 선수, 자승 스님 만나 다짐



"불심을 바탕으로 계속 정진해 앞으로 열릴 브라질 올림픽에서는 더욱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흐트러짐 없이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2012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역사를 새롭게 쓴 양학선 선수가 9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브라질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약속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양학선 선수에게 단주와 108염주를 직접 걸어주며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예방자리에는 정동화 대한체조협회장<사진 맨 왼쪽>, 조성동 체조대표팀 총감독을 비롯해 이호식 남자 체조 기술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노덕현 기자**

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스님 취임



대한불교 대승종(총무원장 운남)은 9월 12일 창원 대우백화점 그랜드뷔페 연회장에서 '대한불교대승종 제12대 총무원장 운남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총무부장 진공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5세 종정 천광 스님을 비롯해 종단임원 및 종도 300여 명이 동참했다.

신임 총무원장 운남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전 종도들의 화합과 결집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소수의 의견이라도 상생과 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천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합심과 격려로 내부화합과 인재양성, 일하는 종단으로의 거듭남"을 종도들에게 당부했으며 종단 발전에 노력한 전임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도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신옥철 래퍼, 군포교 홍보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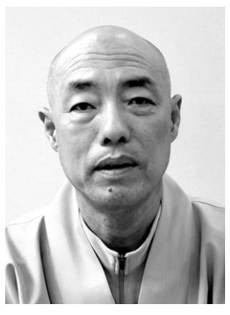


힙합래퍼 아웃사이더의 신옥철 씨가 9월 8일 원주 법웅사에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날 신옥철씨는 법명 '웅비'도 함께 받았다. 9월 24일 군을 전역하는 신옥철 씨는 전역 후 군포교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현대인에게 편안한 쉼터 제공"

9월 23일 낙성식 갖는 철원 선계사 주지 도현 스님



"5천여평 대지 위에 종단의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을 아우르는 종합 종교타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량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9월 23일 개원하는 관음종 직할사찰 철원 선계사 주지 도현 스님<사진>은 도제양성과 자비실천에 매진하겠다는 종단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게 사찰을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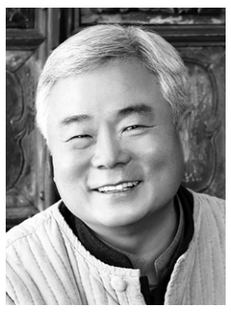
이번에 새 위용을 드러내는 선계사는 건평 6백평에 총 15개의 전각으로 이뤄진 비교적 큰 규모의 가람이다. 여기에는 대웅전을 비롯해 만세루, 선방, 삼성각 등 기본 전각외에 교육 수련시설, 회의실, 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한 노스님들이 입적하면 다비장도 할 수 있게 화장시설도 갖춰 놓았다.

"요사채를 비롯해 불자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 수행할 수 있게 방사도 40여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청정한 자연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고 마음수련을 하는데는 안성마춤일 것입니다."

도현 스님은 선계사가 종단의 직할사찰인 만큼 종단 스님들의 교육도량으로도 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계사가 위치한 철원군에는 개신교 등 다른 종교의 복지시설은 많지만 불교복지시설이 없는 만큼 군과 지역주민들과 연계해 노인요양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한중일 인쇄문화 교류에 앞장"

제3회 고판화축제 여는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한선학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은 9월 9일 고판화박물관에서 중국 북경 문진조판박물관(관장 강심)과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선학 관장<사진>은 "아시아 인쇄문화의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박물관은 아시아 인쇄문화의 수집, 보존과 연구 전시 및 교육에 협력하며 매년 정기 답사 및 교류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국 무강연화박물관과 북경 수도도서관, 북경인쇄박물관 등 인쇄관련 기관들과의 교류를 실시해왔습니다. 이번 결연을 바탕으로 아시아 인쇄문화 발달에 앞장서겠습니다."

한선학 관장은 일본과의 교류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10월 12일부터 3일간 제3회 고판화축제를 개최한다. 고판화 축제에는 △아시아 목판본 삽화 특별전 △한중일 목판본 삽화 국제 학술대회 △한중 전통각수 시연회 및 강습회 등 행사가 열린다. 또한 · 중 · 일 인쇄관련 학자들이 판화 각수 시연회를 펼칠 예정이다. 한 관장은 "한중 고판화 교류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동양문화를 이끌어가는 아시아 디자인 콘텐츠 창달의 계기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19대 국회 정각회 출범
9월 27일 조계사서 개원법회

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정각회가 9월 27일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제18대 정각회 부회장 안홍준 · 강창일 의원은 "제19대 국회 정각회가 27일 오전 8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며 "법회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어 회장 및 부회장 등 회장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는 1978년 발족 이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선양하는 오피니언 신행모임이다. **신중일 기자**

불기2556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헌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 종도수련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 2556(2012)년 10월 4일 ~ 10월 5일 (음 8월 19일 ~ 8월 20일)
◆ 입 재 : 불기 2556(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오후2시 (입소등록 당일 오후2시까지 접수요망)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 세면도구 등
◆ 장 소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843-8번지 천지암 (011-860-6470)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055) 25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1-9704-3247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대승종 중앙 종의회 · 대승종 교구종무원

※ 합당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교육원법 제6조에 의거 법계고시 및 종단임직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여여 무여 합장

(사)여래불교조계종
종 도 모 집

삼보 귀의 하옵고!
여래불교 조계종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선 수행을 통해 양질의 승려를 양성하는 교육종단, 청정종단, 열린종단을 지표로 한국불교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개혁종단으로 그 첫 걸음을 내 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세계화를 염원하는 (사)여래불교 조계종 종단과 함께 하실 제방의 청정승가의 동참을 바랍니다.

종 정 무 여

총무원장 현 산 (서울 마장동 여래사)
종회의장 혜 견 (성남시 보통정사)
사무총장 자 운 (서울 상도동 미타사)
감찰원장 법 성 (전남 나주시 유원사)
교육원장 중 무 (대구시 남구 기원정사)
문화원장 향 지 (성남시 향지선원)
포교원장 만 경 (춘천시 온의동 보통정사)

- 입 종 서 류 -

- 종단 가입 신청서 1부
- 사찰등록 신청서 1부
- 반명함 사진 3매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수계증 및 도첩 사본) 각 1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 종단 총무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재산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음 .

※ 불기2556(2012)년 가입 종도는 입종비를 면제 하여 드립니다.

(사)여래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 산

총무원 : 사무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8-14 여래사 전화 : 02) 2282 - 5830 / 010-6710-8300(사무총장)

쌓여가는 교리실력만큼 가족의 정도 훈훈

가족 친지 동료들이 모여 한바탕 축제를 펼쳤다. 불교교리와 전통문화 체험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제4회 '나란다 축제'가 9월 8일 서울 동국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그동안 펼쳐오던 교리경시대회를 나란다축제로 명칭을 변경 일반인까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제 4회 나란다 축제가 9월 8~9일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 종립학교에서 펼쳐졌다. 사진은 일반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에 참여한 가족 팀이 문제를 풀며 즐거워하고 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제4회 '나란다 축제'

오전 11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일반인 대상 '범종을 울려라' 퀴즈 대회가 진행됐다. 64개팀 192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는 조계사, 국제선센터, 금룡사, 봉은사 등 각 사찰 신도들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가족, 불교대 및 직장 동료 등이 팀을 이루어 참가해 훈훈한 가족의 정 혹은 동료의 정을 보여줬다.

딸과 함께 참가한 배문경 씨(국제선센터)는 "세번째 문제에서 안타깝게 떨어졌다. 하지만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다음번에 더 꼼꼼히 준비해 꼭 다시 참여해 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계사불교대 동료들과 함께 참여한 김종내 씨는 일곱 번째 문제에서 고배의 잔을 마셨지만 표정은 밝았다. "이렇게 불교대 동료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좀 아쉽긴 하지만 아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내년에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두 시간여 접전 끝에 일반부 대상이 정해졌다. 조계사불교대 전연수 거사 외 2명이 대상을 차지한 것. 전 씨는 조계사 청년부 출신(대불청 연수원장)인 김종연 씨와 막판 치열한 경합을 벌여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 씨는 "2주 정도 준비를 했다. 이렇게 영광을 얻어 너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종연 씨는 "작년에 조계사 퀴즈대회 우승을 한 적이 있어 최우수상도 괜찮다. 만족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초등학생 250여 명이 참여하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가 진행됐다. 초등생 4500여 명 가운데 18:1의 경쟁률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어린이들이 퀴즈 경연을 펼친 것.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 종회의원 대오스님, 동련 이사장 심산스님 등이 참석해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본 행사 시작전 몸풀기용으로 진행된 퀴즈에서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연예인 누구를 닮았을까요?'라는 질문에 장동건, 이승기, 김태희, 없다 등 다양한 답이 나오면서 현장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다. 하지만 초반부터 참가자들이 대거 탈락하자 댄스 경연으로 패자부활전을 치르고 다시 대회가 펼쳐졌다. 각 사찰별 열띤 응원전도 눈길을 끌었다. 진관사 은석초등학교 국제선센터 봉은사 보리수어린회 등 각자 참가학생들을 위한 열띤 응원이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 봉선사(남양주) 양윤성 ▷최우수상에는 순천 금당절 김동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구미도량 박채영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박채영 어린이는 청각장애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접전을 벌여 감동을 주었다. 어머니 이은미 씨는 "기계음을 듣지 못해 화면으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잘 해 주어 고맙고 자랑스럽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일반인 대회 확대 등 1만명 참가
초등부 18:1 뚫고 본선 진출

동국대 만해광장 일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전통체험마당에는 청소년들의 체험마당 및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됐다. 동대부고 천수바라춤, 진관사 오카리나 연주, 회룡사 합창, 동대부고 및 조계사 댄스, 대불련 율동, 신흥사 사물놀이 등이 무대에 올라 관중들을 즐겁게 했다.

한편, 이날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교리경시대회에 전국에서 2천 여명의 학생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동국대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속초, 전주 등 전국 11개 지역 종립학교에서 교리경시대회가 진행돼 불교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열기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음날인 9일 전국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펼쳐진 교리경시대회 역시 지난해에 비해 두 배에 해당하는 인원인 2천 여명이 응시해 청년 불자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구미 대관음사 박채영 어린이
청각장애 극복 최우수상 수상

이번 대회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 초중생 200만원, 고교생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조계종총무원장상인 일반부 대상에는 3백만원이, 군장병 대상에는 50만원이 주어진다.

결과는 10월 중 발표 되며 시상식은 10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올해 일반부 대상을 배출한 조계사불교대 응원전



초등부 대상 수상자 양윤성 어린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통문화체험마당. 진관사 어린이들의 오카리나 연주 모습.

"교도소 교리 경시대회도 계획"

나란다 축제 위원장 성효 스님



9월 8일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나란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교리경시대회를 넘어 그 범위를 일반으로 확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란다축제를 이끌어온 위원장 성효 스님(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 사진)은 이번 대회가 흥겨운 축제였다고 말한다.

"지난해 군부대로 경시대회를 확산시킨데 이어 올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회가 신설되어 매우 의미가 깊었습니다. 단순한 교리 경시대회를 넘어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죠"

기원전 5세기 경 세계 최대 불교대학이자 학문의 요람인 나란다 대학에서 명칭을 따온 나란다 축제. 이번 축제는 많은 이들에게 불교전통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3대가 참여한 가족도 있고 직장동료 불교대학 친구 등이 함께 참여하니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교리공부는 물론이고 가족 참가자는 가정의 화합과 화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동료들과 함께온 참가자는 우의를 돈독히 쌓는 계기가 될 수 있었죠"

이번 대회에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교리경시대회' '전통불교문화 체험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만명 대중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전통불교문화 체험마당은 학생들이 교리공부뿐만 아니라 전통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처음 시도된 행사였었어요. 시험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하라고 마련된 자리였는데 지방에서 온 학생들은 교리경시대회만 치르고 급히 가버려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학생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능 콘테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더나아가 나란다 축제는 내년에 교도소 교리경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까지 목표로 한다. 스님은 "초등학생을 위한 행사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군장병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행사도 반응이 큰만큼 곧 정착화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불교를 알려나가는 것이 대회의 목적인만큼 내년에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경시대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도 목표로 해 교리 경시대회가 전 불자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 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구단구궁법

올 추석 선물 사찰 생협서 구입해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이 다가오면 주부들은 분주해 진다. 특히 추석 상차림과 가까운 지인들을 위한 선물 마련에 부담이 커진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차례상 용품 품목에 대해 서울·부산 등 17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25만원 내외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 볼라벤 피해로 과일, 채소, 수산물 등의 가격이 작년에 비해 10~30%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을 맞아 불교계 생협과 사찰에서는 지역농민들이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특별판매하고 있어 주부들의 고민해결에 나섰다. 불교생협 제품은 도시민들은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직접 공급받고, 농민들에게는 자립기반을 만들어 줘, 안전한 먹거리 문화 창출에 기여해 상호간 부가가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불교 생활협동조합 대표주자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추석을 맞아 한과세트, 과일, 한우, 수산물, 공정무역, 기름·장, 차,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제수용품 및 추석 선물 제품들을 준비했다.

우리밀로 만든 한성한과는 2만5천원~6만4000원, 과일은 경북봉화 사과 5kg에 3만4천원, 의성 친환경 배는 7.5kg에 4만4천원, 곶감은 2kg 5만4천원 등 다양하다.

다양한 추석특별 세트 마련
과일·채소·사찰특산품 등 다양
대다수가 친환경 위주 상품
시중보다 10~20% 저렴하게 구입

이밖에도 완도생협 전복은 1.2kg에 11만원, 영광굴비는 20마리에 5만4천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소량의 제수용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송편, 사과3개, 배3개, 풋대추 300g, 곶감10개를 2만5800원의 특가로 9월 28일까지 판매하고 있다. (02)576-1882

연꽃생협은 1만원~10만원대까지 다양한 추석용품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완도 김미역세트, 완도해초국수, 이남설 한과, 청국장 세트, 오미자차, 백연근차, 발효대추선물세트, 정봉벌꿀 등 10가지 종류의 추석특별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02)735-2707

불교계 대표적 사회적기업인 연우와함께 역시 한과, 육류, 수산물·건어물, 인삼·홍삼, 과일·버섯 등 다양한 종류의 추석기획상품을 구성했다. 교동한과는 2만원~10만원, 남해친환경한우세트는 9만원~25만원, 명품상주곶감은 6만원~12만원, 친환경 햇사과는 5만8천원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됐다. 1661-1233

사찰제품전문쇼핑몰인 '산사애'도 사찰특산품 및 축산·수산물세트, 한과, 잡곡, 과일, 건강세트 등 풍성한 추석용품을 판매 중이다. 특히 사찰과 자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사찰특산품들은 스님들이 직접 만들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경북 봉화 고계암 묘관 스님이 만든 고추장, 청국장, 장아찌, 된장, 감식초 및 상주 도림사의 장아찌, 간장, 해인사의 청국장 가루, 공주 영평사의 죽염세트를 비롯해 연잎밥세트, 콩고기 등이 3만원~5만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www.sansae.co.kr (02)3270-3359

이밖에 각 지역 사찰 생협 매장에서도 제수용품 및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서울 봉은사(02)511-607, 능인선원(02)577-5800, 용주사 수원 포교당(031)255-2693, 부천 석왕사(032)668-0072, 대구 관오사(053)475-2588 등에 마련된 사찰매장을 통해 지역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정우식 연꽃생협 이사장은 "유기농 농산물은 일반제품보다 비싼 편이지만, 불교계 생협은 시중보다 10~20%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자연과 인간을 함께 살릴 수 있으며, 한가위를 맞아 가족·친지들과 안전한 먹거리를 즐겁게 먹을 수 있어 더욱 뜻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불교계 사찰과 생협, 사회적 기업에서는 추석 특별선물세트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사진은 생협, 산사애, 연우와 함께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반갑다연우야' 라오스 해외의료봉사

11월 24~29일 라오스 비엔티안주 무앙프앙군 폰싸방 마을 방문


반갑다연우야가 11월 라오스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의료봉사 모습.

날마다좋은날 반갑다연우야가 지난해에 이어 11월 24~29일까지 5박 6일간 라오스 비엔티안주 무앙프앙군 폰싸방 마을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한다. 이번 폰싸방 마을은 인근 댐 건설로 약 1113가구, 약 6000여 명의 주민이 이주해 만들어 낸 신생마을로, 정부에서 쌀을 배급받아 살아가는 몇 안 되는 낙후 지역 중 하나다.

폰싸방 마을의 유일한 의료 시설인 폰싸방 병원 관계자는 "기후로 인해 목감기 증세와 말라리아, 잦은 복통·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체온계와 혈압계 등 기초 의료기구들의 지원 요청과 함께 한국 의료진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뜻을 표했다.

황채운 반갑다연우야 봉사단장은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봉사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많은 불자 의료인들이 동참을 함께해 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라오스 해외의료봉사에 불자님들의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반갑다연우야는 2005년부터 불교계 대표 봉사단체로 활동해 오고 있다.

이은정 기자

국제포교사회 기초불교영어강좌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가 10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0주간 '제27기 기초불교영어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서울 종로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강의는 부처님의 생애, 불교교리, 불교문화 등 불교전반에 대해 진행되며, 불교를 영어로 공부하고자 원하는 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722-2206

중앙신도회 제25대 출범 활동 시작

'중앙신도회 혁신과 도약 기획단' 출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제25대 집행부 출범에 앞서 9월 12일 '중앙신도회 혁신과 도약 기획단'을 발족키로 하고, 10월 이전 집행부의 기본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흥 회장의 총괄책임 하에 신도회 제반 조직의 재정비, 비전 창출, 사업목표 설정 등을 계획할 전망이다.

또 기획단은 현 중앙신도회 사무처, 부설법인 및 기관의 대표자, 교구신도회 대표자, 종단등록 신도단체 대표자, 제25대 집행부 임원 등을 중심으로 공개워크숍 및 내부·공개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9월 12일 오후2시 중앙신도회 3층 회의실 '중앙신도회 운영현황 공유 및 점검' ▷9월 15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혁신과 도약을 위한 비전 창출 워크숍' ▷9월 19일 오후2시 중앙신도회 3층 '조직 재정비 방안 수립' ▷9월 21~22일 '제25대 4개년 계획 방향과 목표수립 워크숍' ▷9월 26일 오후2시 중앙신도회 3층 회의실 '기획단 논의 총괄 정리' 등을 실시한다.

정한신 중앙신도회 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 및 회의를 통해 종단 및 교계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활동은 앞으로 제25대 집행부가 힘차게 출발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공개워크숍에 관심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공개워크숍 참여자를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 (02)733-7277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건강한 음식 소비활동 장려

전북불교시민연대 사찰음식강좌 2기 개강

최근 사찰음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불교시민연대가 개설한 사찰음식강좌가 9월 13일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열렸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유통과 더불어 건강한 음식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찰음식 강좌는 오는 11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2달간 8번에 걸쳐 진행된다.

첫 강의는 전주에서 자연음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유지원 공동대표가 사찰음식에 담긴 철학적 의의 등에 이어 연잎밥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으로 진행됐다.

▷9월 20일에는 안동 산야초 대표 김인자 선생의 겨울철 야채와 과일을 이용한 효소만들기, 천연마요네즈와 백초 효소를 이용한 음식만들기 ▷9월 27일에는 자연음식연구가인 혜각 스님이 추석을 앞둔 건강식 및 송편과 각종 전 ▷10월 4일과 11일에는 경기 덕암사 도림 스님(도림사 찰음식 문화원장)의 별미 건강국수(배물국수), 뿌리채소요리 (더덕 찜) 가을철 별미 요리 깻잎만두, 사찰건강식 미나리 들깨즙탕 ▷10월 19일에는 대전 영선사 법성 스님(동국대 사찰음식 강사)이 제철 뿌리채소를 이용한 요리 더덕잣죽과 제철 야채 무를 이용한 요리 무왁자지, 무전 ▷10월 25일에는 무공 스님의 송이 누룽지탕, 두부 샐러드 ▷11월 1일에는 사찰음식 연구원 백희정(채식전문식당 아하라 대표)씨가 표고버섯탕수, 두부 소박이를 강의한다.

유지원 대표는 "일반인들이 생활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친생명 평화적 자연음식을 보급하기 위해 자연음식 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녕사, 미혼들 위한 템플스테이

수원 봉녕사(주지 지연)가 추석이면 집에 가기 곤란한 싱글 남녀들을 대상으로 'REAL 방콕탈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템플스테이는 9월 22~23일 1박2일간 진행되며, 싱글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프로그램은 팔관재계 수계, 예불, 108배 참회, 발우공양, 다도, 걷기 명상, 마가 스님의 자기행복창조 강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5만원. (031)356-4127

창립취지 되새겨 불국정토 실현

공불련 창립12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총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가 창립12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총회를 10월 13~14일 합천 해인사에서 연다. 이번 기념법회 및 대의원총회에서는 각 기관별 안건 논의와 템플스테이 및 철야정진, 금강경 독경, 108참회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인 회장은 "이번 기념법회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욱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불국정토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창립취지를 되새기는 자리"라며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랏일을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제3회 산사음악회
불자노래자랑

모후산 도원사 개원 6주년 기념
1080 연등불사

초청가수 : 진국, 정현, 그 외 트로트 가수 다수 , 품바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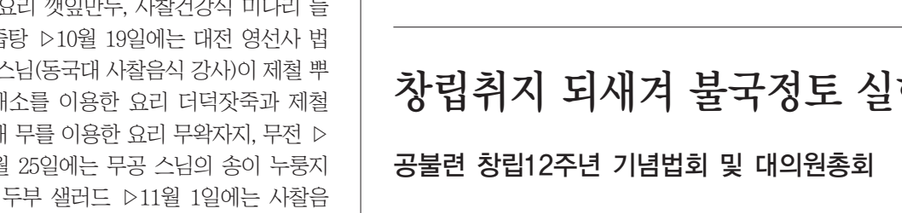
▣ 주 관 :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 주 최 : 도원사 신도 일동
▣ 일 시 : 2012년 양력 10월 1일(월) 오후 2시
▣ 장 소 : 모후산 도원사 야외음악당
▣ 연락처 : 061)372-1047, 010-6258-8325, 011-636-4110

협찬 : 화순군 사암연합회, 화순군 계사회, 불교TV, 광주불교방송, 광주일보,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 호남일보, 화순영진골재, 신세계약국, 하나약국, 삼화페인트, 금호타이어, 귀부인보석, 드림꽃집, (사평)맛고을식당, 불교서원, 삼천불교상사, 화순 오리와 꿀꿀, 금강민물식당, 한우곰탕, 금성식당, 보석사우나, 터죽골 맛깔샘, 청풍, 비원가든, 백산기공, 동복하나로마트, 금오타월, 옥과 대구볼태기찜, 에버그린 관광, 매실내 떡방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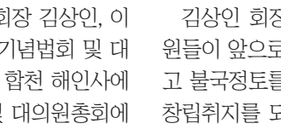
제5회 선운문화제

'KBS 찾아가는 음악회'가 선운문화제 기간에 열립니다. 공연에는 가수 박완규,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음악놀이 잔치인 선운청소년음악놀이경연대회가 개최돼 활기찬 청소년들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선사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산사음악회
● 일 시 : 2012년 9월 22일(토) 오후 6시 30분
● 장 소 : 고창 선운사 특설무대
● 출 연 : 박완규,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최소리, SR그룹 등



선운청소년음악놀이경연대회
● 일 시 : 2012년 9월 23일(일) 오후 2시
● 장 소 : 고창 선운사 특설무대

▸특별 출연


부대행사
● 서각전시회 (9월 15일 ~ 10월 15일 / 선운사 만세루)
● 꽃무릇 시화전 (9월 22일 ~ 29일 / 선운사 만세루)
● 보은염 이운식 (9월 22일 오후 4시 / 검단마을 ~ 선운사)
● 선운사 나눔장터 (9월 22일 ~ 23일 / 선운사 일원)
● 선운사 백파사상연구소 학술대회 (10월 8일 / 동국대학교 정각원)



‘설마 자살을?’ 이런 방심이 자살 불러

불교계 자살예방센터 현황

지역 자살예방센터 설립 증가
생명나눔, 금오복지관 등 활발
위기관리경험토대로 운영해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불교계 복지기관에서도 자살예방센터 설립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청소년 및 성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정택수 상담팀장(사진 오른쪽)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주부 A 씨는 평소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자살충동을 자주 느꼈다.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어 남편과 아들이 없는 낮 시간에는 13층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했다.

B 씨는 남자친구와 2년 정도 사귀다 최근 남자친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나고 관계가 좋지 않아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자살시도를 했다.

신용불량자인 C 씨는 부채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으로 자신의 주변들을 정리하고 자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모두 자살예방센터에 상담전화를 걸었고 상담자의 설득과 만류로 현재도 삶을 영위하고 있다.

9월 10일은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정했다.

자살하려다 삶의 의지를 되찾은 이들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하루 수십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2010년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은 1만 5566명으로 하루 평균 42.6명꼴이다.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3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센터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불교계 복지기관에서도 자살예방센터 설립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자살예방센터, 구미자살예방지원센터,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불교상담개발원 자비의 전화 등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11년 6월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고 △전화위기상담 △인터넷 사이버상담(비공개, 이메일) △면접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및 성인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교육’ 및 ‘생명문화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키고,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월 1일 개소한 구미자살예방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사업을 공동 주관하고 있다. 자살위험을 낮추는 위기상담, 생명존중 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기반으로 자살예방전문가교육, 독거노인 우울예방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명존중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생명존중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위기개입과 사례관리, 예방교육 및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김천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여성의 고민상담과 자살관련 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자살예방센터 정택수 상담팀장은 “누구나 우울증, 자살생각이 있을 수 있다. 자살 고위험군에 있던 내담자들은 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면접과 이메일 상담 등으로 새 삶을 살고 있다”며 “자살하는 사람들은 주변인들에게 자살의 징후를 반드시 보이고 목숨을 끊는다. 가족과 지인들은 ‘설마’하는 생각으로 지나치는데 이럴 때 자살예방센터나 전문상담가를 찾아 의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살예방센터를 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

김휘연 경북대 보건복지학부 겸임교수(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은 “현재 종교계에서는 법률시행에 따라 센터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불교계에서는 학대아동 · 노인 및 가정폭력과 관련한 상담센터와 24시간 핫라인 등 관련사업 운영경험 등 전문성을 부각시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자살예방지원센터

생명나눔자살예방센터	(02)735-1010
정혜사	(02)812-9065
맘 행복 치유 센터	(02)545-8177
성림사	(02)334-6465
참나선원	(02)883-5554
비커밍연구소	(02)541-5171
불법사	(031)663-0468
장경사	(031)332-8981
만불선원	(042)222-3315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구미자살예방센터	(054)472-5060
정광정혜원	(061)243-1791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우리복지관 주력사업 경기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가족 및 남성프로그램’

가족 · 남성 위한 문화프로그램 풍성



‘부부문화체험’ 참가 부부들은 케이크만들기, 가구DIY, 미니정원만들기 등을 주제로 부부간 소통을 통해 결속력 · 친밀감을 높이게 된다.

싱글남성위한 요리교실 인기
부부문화교실 부부사이 돈독
바리스타 · 와인교육 호응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기러기 아빠 · 미혼 · 이혼 남성 등 다양한 유형의 혼자서 생활하는 남성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남성의 가사부담은 크게 증가해 요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추교선)은 2009년부터 싱글남성 및 직장인 남성들을 위한 요리코치 프로그램인 ‘싱글남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4분기로 진행되는 싱글남성지원사업에 참가하는 남성들은 된장찌개, 제육볶음 등 실생활요리코치와 식단을 통한 건강관리, 체형관리 등도 전문강사로부터 배운다.

“레시피가 간단하고 명료해 따라하기 쉬우며 집에서 해도 그대로 맛이 나와 매우 만족합니다.”

“만족스러운 요리강습이었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주방에서 요리를 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쁩니다.”

싱글남성 뿐 아니라 일반 기혼 남성들도 참여가 가능한 요리교실은 36기의 수강생을 배출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김민아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은 남성분들의 요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가정 내에서 요리실습을 통해 대화의 시간이 많아져 분위기가 밝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은 요리교실을 가족에 까지 확대했다. 바로 ‘가족요리교실’이다. 주말을 이용해 부모와 자녀가 요리활동을 할 수 있게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가족들은 쿠키만들기, 생활요리 및 간식만들기 등을 통해 가족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협동심을 길러 가족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남성들의 문화적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남성문화증진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복지관은 직장인 남성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와인교육 △테이블매너 △비즈니스 대화법 △카메라교육 △바리스타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진행된 ‘남성문화증진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90%이상이 출석률을 보이고 높은 만족도를 보일 정도로 큰 호응을 일으켰다.

이 밖에 복지관은 2008년부터 연 3회 ‘부부문화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 부부들은 케이크만들기, 가구DIY, 미니정원만들기 등을 주제로 부부간 소통을 통해 결속력 · 친밀감을 높이게 된다.

김민아 사회복지사는 “2010년 조사한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참가 부부 98%가 부부간 의사소통에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며 “프로그램 진행기간 동안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어 잠시나마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부만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02)507-6319 이나은 기자

복지관 로비서 듣는 클래식음악 ‘좋아요’

종로노인복지관, 서울시향과 클래식 공연열어



종로노인복지관 로비에서 9월 11일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이 열렸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9월 11일 1층 로비에서 우리은행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을 쉽게 접해볼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됐으며,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병권 전문위원의 해설이 함께 곁들어졌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2중주’, ‘K. 423과 바흐 영국모음곡 5번’ ‘가제트와 뮤제트’ 등이 연주됐다.

정관 스님은 “해설과 함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실내악이 마치 사랑방에서 정담을 나누듯 이루어져 흐뭇한 정이 흐르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음악회’는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음악과 클래식 레퍼토리로 시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02)742-9500 이나은 기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9주년 기념행사 마련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개관 9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9988 해피투게더’를 10월 5일 오후 1시 광진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르신들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축제로 모범노인 표창과 외부 초청공연단의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요제와 체험부스가 운영돼 지역사회 문화축제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화평 스님은 “행사를 통해 경로효친사상을 일깨우고,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02)466-6242 이나은 기자

신사복지관, 나눔 바자회 개최

서울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련)은 오는 9월 21 · 22일 복지관에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알뜰 나눔 바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지역 단체에서 물품을 후원받아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생활 속 복지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자회와 함께 먹거리 나누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수익금은 지역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복지사업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재향군인회 은평지부 등 다양한 단체들과 여는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화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나은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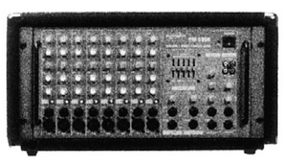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20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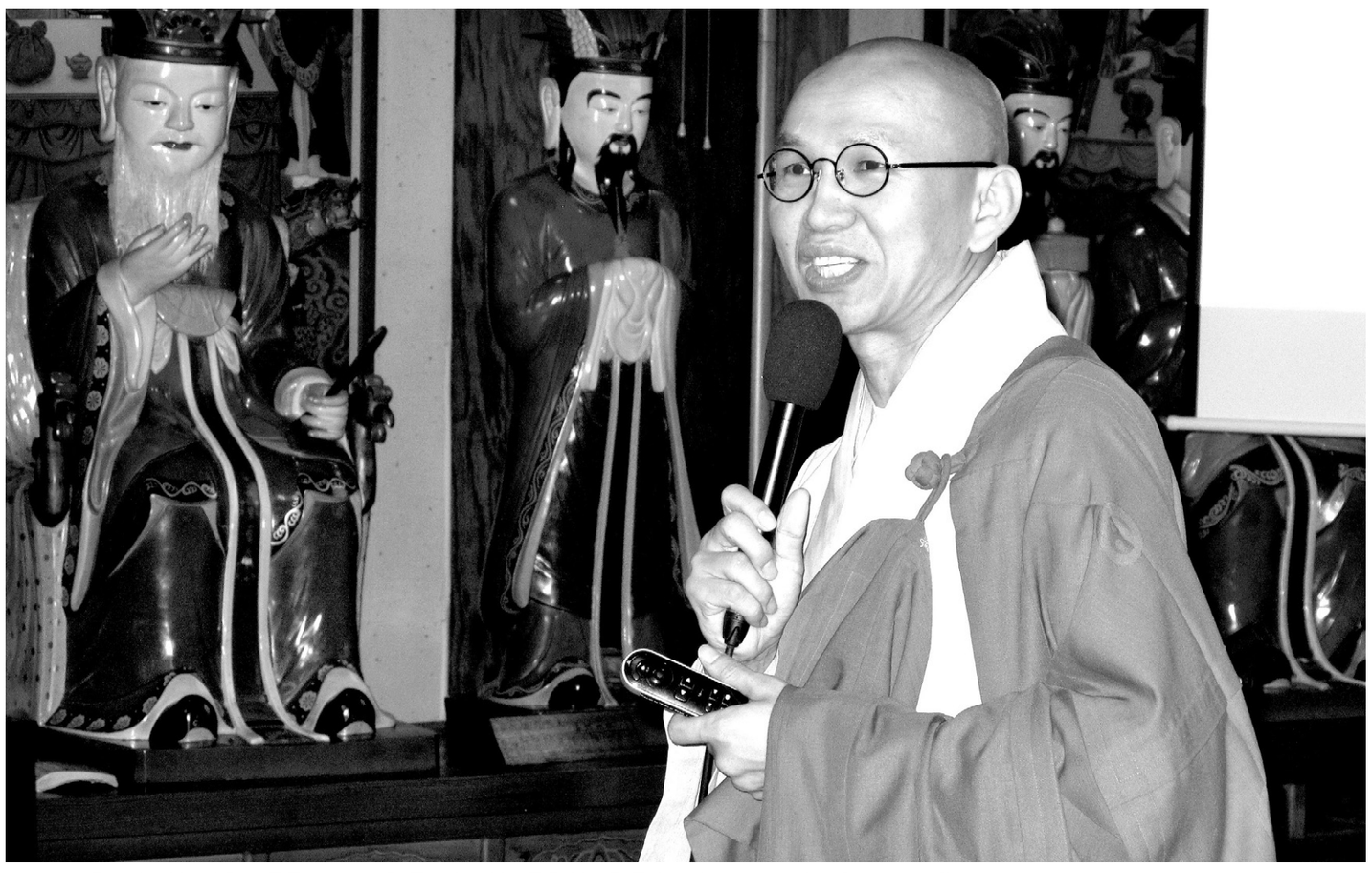
조계사불교대학 특별강의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

붓다의 리더십 핵심…화합·자리이타

조계사불교대학 총동문회가 9월 12일 오후 7시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강의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이 강연자로 나서 '불교(부처님)에서 배우는 리더십'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불교가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과 수행자들이 이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강조했다. 불교를 통해 이 시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남전 스님은 조계사불교대학 총동문회가 마련한 특강에서 불자들은 불법을 통해 시대의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생을 바꾸는 법…보시하라

세상에 나와 불법(佛法)을 만난 건 대단한 행운입니다. 행운은 달리 말하면 복입니다. 하지만 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만난 건 큰 복이지만, 이 복이 진정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이 진정 행복한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내일도, 모레도, 인생을 살면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적선(積善)'입니다. 적선이라는 말은 착한행위를 쌓는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보시는 종류에 따라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보시는 무외시입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만큼 최고의 보시는 없습니다. 인간이 대략 80년 정도 산다고 가정할 때, 23년은 수면, 7~8년은 화장실 사용, 15년은 식사하는 데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파안대소하는 시간은 77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웃는 얼굴로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나이가 불혹(不惑)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얼굴은 자신의 생김새와 정신이 담겨있는 그릇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머리스타일이 어떤지, 화장이 어떤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 생김새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적선을 많이 베푼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때를 만나게 됩니다. 현재 이득을 보지 못하더라도 인(因)을 잘 쌓으면 과(果)가 반드시 돌아갑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눈 밝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에 따라 일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의지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의지합니다. 학교를 다니다 조금 더 자라면 친구를 의지하고, 성인이 되면 이성친구를 의지합니다. 그 다음 결혼해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의지하고, 목숨을 다할 때가 되면 종교에 의지합니다.

인간은 시기에 따라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변칙입니다. 진정 행복을 추구한다면 변칙 속에서 원칙을 가져야합니다. 그 원칙이 바로 불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26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불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칙이지만 불법은 원칙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부처님 법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누가 가르쳐준다고 익힐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행(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직접 자신이 행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생깁니다. 될까 안 될까라고 고민만 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자들은 처음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발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관심갖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알아도 부처님 생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불자들의 가장 잘못된 점은 부처님 일생을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님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부처님은 6년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45년 동안 중생들에게 설법하셨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도둑과 같습니다. 불자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불자라면 인생의 무게중심을 갖고 나의 운명을 스스로 굴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직접 운전해 나가는 것이 불자의 참 된 모습입니다.



조계사불교대학 졸업생들이 남전 스님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변하는 세상서 불변 원칙은 '佛法'
자신의 운명 스스로 개척해야
인생 바꾸는 마지막 방법은 수행
불자들 부처님 정신 항상 새겨야

불교의 리더십 통해 인생 변화시켜야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리더십을 익혀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리더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만이 진정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절의 스님들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은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말합니다. 지도자가 듣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말이 '너나 잘해라'입니다. 지도자는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또 특징도 있어야 하며,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하트마 간디(1869~1948)는 비폭력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일깨워 준 인도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인도에서 신분,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간디를 존경하지 않는 이들은 없습니다.

간디의 인기가 높아졌을 때, 한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그 엄마는 간디에게 아들이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 더 이상 먹지 않도록 훈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디는 엄마에게 보름 후에 자신을 다시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보름 후,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또 다시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간디는 건강을 생각해서 다른 음식도 골고루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간디에게 '왜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보름 전에 말해주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간디는 '자신도 단 음식을 끊고 말해주기 위해 보름 후에 찾아오라고 말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간디는 평생 지도자로서 불살생(不殺生)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존 F. 케네디(1917~1963)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공황상태를 겪던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직도 케네디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기분을 바꿔 그들의 능력을 살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세계 최고의 정신적 리더

불자라면 불교를 믿기 전과 후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불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승가공동체입니다. 어느 역사에서도 불교만큼 오랫동안 공동체를 이어온 집단은 없었습니다.

불교가 이토록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정신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세계최고의 정신적 리더이십니다. 부처님은 화합의 승가공동체를 추구하셨습니다. 승가공동체 구성원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동반자들은 항상 하심(下心)을 해야 합니다. 하심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형성될 수 없습니다. 또 부처님은 사부대중의 지도자로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은 절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를 둘러보면 고마워해야할 것이 지천에 널려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뭇 생명과 환경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사셨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정신을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자는 불교적 신행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자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은 오로지 수행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신이 부처님이란 생각으로 수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쇼카 대왕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도를 통일하고 진리로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전쟁이 아닌, 진리를 통해 최고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불자들은 향기로운 세상을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맑은 세상, 자유로운 삶,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은 모두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불자들은 불법을 통해 세상의 리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눈물나고 가슴 뜨거운 불교 돼야"



조성택 교수, 신도교육 현대적 방향 '감성코드' 제시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감동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불교가 지나치게 교리화, 원리화 됐기 때문이다. 신도교육은 '교리'로 부터 탈피해 가르침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행이며 믿음을 건강하게 하는 수행으로까지 평가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교리공부에 치중한 신도교육은 불교 생활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한계를 지적하고 신도교육의 체제를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9월 8일 불광연구원(원장 지홍)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불교신도교육의 현대적 방향과 내용' 세미나에서 현행 신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승불교 정신에 입각한 실천성 강화'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조성택 교수는 이날 '신도교육의 현대적 방향과 내용' 발제를 통해 "현재 한국불교는 지나치게 교리화, 또는 원리화 돼 일상적 삶의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교를 교리로 부터 구출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불교의 교리화, 이론화의 원인으로 세가지를 꼽았다.

조 교수는 "수행의 목적을 '깨달음'에만 두는 잘못된 수행관, 깨달음을 신비적 체험으로 간주하는 출가전통, 불교를 생활과 분리해 '텍스트'로 환원하고 전통을 빙자한 박제화를 이끈 학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풍토로 인해 일반 신도들도 교리 이해를 수행척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또 "심지어 어려운 법문, 논문을 '스님의 높은 경지', '학자의 높은 인식'으로 이해하는 풍토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신도교육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불교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리공부 감동없다 지적
체험중시 교육 내용 개편
교육원, 교과목 재편 시사

"우리가 자연,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느낄때는 연기법이라는 교리를 머리로 이해했을 때가 아니라 자연과 나의 미래가 밀접하게 얽혔구나 하고 직접적으로 그 감성을 느꼈을 때입니다. 입으로만 보살, 머리로만 부처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성적 체험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신도교육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조 교수는 "신도교육의 대부분이 스님들로부터 이뤄지는 만큼 스님과 주고받는 대화뿐만 아니라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신도들의 교육내용이 된다. 어떤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신도교육의 핵심은 결국 스님들의 일상모습과 그로인한 감성적 체험"이라며 청정승단의 모습을 기대했다.

조성택 교수는 종단 교육체계에 대해 "대승불교나 선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불교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며 "이는 일종의 '초기불교 토대주의'란 강박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신도교육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라며 "불교의 교리화는 오늘날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라고 조 교수의 지적에 동의했다.

법인 스님은 여기에 덧붙여 "현행 불교대학과정은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의 교과목을 차용해 축소한 수준"이라며 "교과목을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제는 봉사', 한국신도교육 실천성 확보가 관건

불광연구원, 제15차 학술연찬회서 한 목소리

한국불교의 신도교육은 지난 40년간의 시간을 거쳐 지금의 형태로 정착됐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신도교육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살림 대표의 '한국불교 신도교육의 역사와 현황', 이창익 원광대 교수의 '타종교의 신도교육의 내용과 방향',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신도교육의 현대적 방향과 내용' 등이 발표됐다.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살림 대표는 "현행 교육은 10여 년 전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계와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관태 대표는 "신도교육이 성공하려면 '신해행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각 신도회에 '감투'가 아닌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익 원광대 교수는 "기독교 신도교육의 대부분은 '성서 교육'과 '선교'으로 진행된다"며 "기독교는 종교실천을 중시하는 반면 불교는 종교적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창익 교수는 기독교계 종립학교 현황으로 종립학교 중 초등학교의 경우 불교 1, 개신교 22, 천주교 6, 기타종교 8, 중학교의 경우 불교 15, 개신교 90, 천주교 28, 기타종교 88, 고등학교의 경우 불교 16, 개신교 126, 천주교 38, 기타종교 117개의 열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런 방향이 종립학교 설립, 대학문화 저변확대 등에 불교가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표〉한국신도교육의 역사 –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살림 대표 제공

1970년대	현대식 신도교육의 출발 불교교양대학 시작 재가불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학 설립	1972년	6월 서울신도회 불교교양대학 설립
		1973년	5월 대원불교강원, 대원정사 건립
		1974년	한국불교연구원 창립
1980년대	교양대학의 확산기 불교교양대학의 전국적 확산 재가불자들의 별도 교육공간 마련해 시작	1980년	7월 조계종 포교사 양성
		1982년	동산반야회 교양강좌 개설
		1984년	봉은사 봉은불교학당 개원
1990년대	신도교육의 정비기 사찰 신도교육기관의 증가 불교교양대학 실태조사 및 등록 규정 도입	1994년	포교원 개원 및 신도교육 정비 실시
		1995년	9월 최초신도교재 〈불교입문〉 발간
		1997년	총 76곳 불교교양대학 등록
2000년대	신도교육 정착기 신도교육 방향 재검토 교재 발간 및 교육과정 제도화 실시	2000년	7월 신도교육위원회 구성
		2001년	5월 신도기본교육 시행령 제정
		2011년	총 109곳 불교교양대학 등록 및 인가

"삼회향놀이는 대승보살사상 실현 예술"

구인사 삼회향놀이 문화재 지정 위한 학술대회
천태종 9월 11일 구인사서 시연…2천여명 참석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인 구인사 삼회향놀이의 문화재 지정과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은 9월 11일 단양 구인사에서 삼회향놀이보존회장 춘광 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스님들과 중국불교협회 스님, 충북 문화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회향놀이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려시대 성행 후 조선시대 명맥이 끊긴 삼회향놀이는 영산재 본의식 이후 뒤풀이 의식으로 천태종이 유일하게 전승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영진 前청주대 교수가 '삼회향놀이와 문화재 지정의의'를, 이창식 세명대 교수가 '구인사 삼회향놀이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영진 前 교수는 "삼회향놀이는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이타적인 회향으로, 누구나 서원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을 실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승과 속이 놀이를 통해 하나가 되는 삼회향놀이는 음악 · 무용 ·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적 불교민속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식 교수는 "의식의 규범이 변하듯 놀이도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검증 수정은 불가피하다"며 "지정 과정에서 논의된 계보 문제, 핵심 과정 정리 등이 필요하고, 전승법문을 확고히 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인사 삼회향놀이보존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감사원장)은 "불교문화가 그 역할을 해나가는데 구인사 삼회향놀이가 그 몫을 담당할 것"이라며 "불교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학술대회가 삼회향의 깊은 뜻을 많은 이들에게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00명이 모인 가운데 시연된 삼회향 놀이와 영산대재 회향식의 한 장면

한편, 학술대회 후 오후 2시부터는 설법보전 앞마당에서 2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삼회향놀이 시연이 펼쳐졌다. 시연은 총 5과장으로 진행됐다.

제1과장(도입)은 △길놀음 △법고춤 △합장게, 제2과장(땅설법)은 법주와 바라지의 대사, 제3과장(범패와 작법)은 △범패 △작법 △화청, 제4과장(백희잡기)은 법주와 바라지의 대사 △공양간 보살의 장기자랑 △위의 등 다른 이들의 호응, 제5과장(회향)은 △법주와 바라지의 대사 △대중과 함께 회향하는 모습 △회향법문 순으로 펼쳐졌다.

천태종은 삼회향놀이 시연 직후 영산대재 · 생전예수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 뽑는다

9월 30일까지 접수, 정기간행물 논문도 가능

〈불교평론〉이 올해 불교사상의 사회적 실천에 기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올해의 논문'을 뽑는다.

불교평론의 올해의 논문상은 2007년 제정된 이후 불교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사회현상의 불교적 시각 조명을 주도해 온 논문을 대상으로 수여돼 왔다.

상금 500만원으로 학술지 등재여부 관계없이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게재된 논문으로 비학술적 성격의 논문도 신청받는다. 또 학술지가 아닌 정기간행물 게재 논문도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논문이 게재된 간행물 1부 및 논문 원본파일을 9월 30일까지 관련 학회 및 연구소의 장이나 교계 학술 담당기자, 본지 편집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불교평론〉 편집실에 제출하면 된다. 추천은 논문 작성자 본인의 자천도 가능하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해인사 판전 앞 전나무,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 9월 10일 지정 예고…수령 250년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9월 10일 합천 해인사 판전 앞 학사대 전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수령이 250여 년 된 나무로 팔만대장경판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 옆에서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 기념물 제215호이다.

학사대(學士臺)는 신라시대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 857~?) 선생이 해인사 대적광전 주변에 작은 정자를 짓고 선생이 역임한 한림학사란 벼슬 이름을 딴 것이다. 최치원 선생이 가야금을 켜면 학이 날아와 고운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학사대 전나무는 최치원 선생이 지팡이를 꽂아 나무로 변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 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화제의 신간
작대기 風水
풍수지리는 自然現象이다.

자연의 理致를 공부하는 한 分野인 것이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모든 과정들이 因緣과 條件과 理由가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땅과 나의 인연은 시작되는 것이고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살다 죽는 순간까지 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죽어서 땅에 묻히면서도 땅과의 인연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나의 八字를 어떤 이유에 의해 땅으로부터 받은 결과이며 잘 사는 것도 땅의 힘으로 부터 받은 선물일 뿐이다.
풍수의 낭만(浪漫)은 온화한 들판의 조화로움에 있다. 들판이 어디 그냥 들판이겠는가? 그 속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며 자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평한 것이므로 남을 부러워 할 필요도 자기 자신을 자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이현당 지음 / 신국판 / 364쪽 / 정가 2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9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9월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QR코드만 대면 사찰 역사·법문 한눈에

광주 증심사 템플앱 개발
모바일 서비스 개설



증심사가 9월 11일 템플앱을 개통하고 모바일 포교에 나섰다. 연광 스님이 템플앱을 소개하고 있다.

광주 증심사 QR코드

증심사 9월 11일 템플앱 개통
스마트폰 QR코드 접속 지원
법문, 사찰안내 등 시청가능

"이제 스님들 영상법문은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가 불교계 최초로 사찰안내와 법문 동영상을 탑재한 템플앱(temple application, 사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을 지난 9월 11일 개통하고 모바일 포교에 나섰다.

증심사가 개통한 템플앱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사찰에 비치된 QR코드를 대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심사의 역사 · 문화재, 사찰안내 파노라마, 큰스님과 주지스님 법문, 템플스테이, 법회 등을 동영상으로 접할 수 있다.

연광 스님은 "지금 세계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사람들과 소통 하는 시대가 됐다. 불교도 이런 환경에 맞춰 다양한 모습을 쉽고 빠르게 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홈페이지 개설 의미를 설명했다.

증심사 템플앱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별도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아이폰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인터넷을 통한 접속과 QR코드 접속을 모두 지원한다.

제작을 담당한 박종삼 불교미디어연구소 바라밀다원 대표는 "이번 템플앱에는 사찰 전체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촬영해 입체감 있는 사찰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도록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최근 사찰들의 스마트폰 서비스가 문자 위주의 서비스였다면, 증심사 템플앱은 다양한 사찰의 동영상을 탑재하여 이용자 편의로 도왔다"고 밝혔다.

증심사는 이번 모바일서비스 개설과 함께 경내와 사찰에서 발행하는 사보, 명함 등 인쇄물에 QR코드를 삽입할 예정이다. 증심사에서 시작한 템플앱은 스마트폰 사용자 3000만 시대에 새로운 포교방식으로 각광 받을 예정이다.

특히 많은 탐방객이 찾는 사찰이지만, 제대로 된 불교안내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활용도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증심사는 한 해 600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며, 봄 · 가을에는 초 · 중 · 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문화재 탐방을 오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연회에 참석한 이영자 신도회장은 "그동안 증심사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자녀들에게 사찰을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이번 모바일 홈페이지가 개통돼 집에서도 쉽게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시민연대는 9월 8일 포살법회를 열고 공동체문화를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처님 당시 공동체 문화 복원

전북불교시민연대 재가자 포살법회 개최

전북지역 재가불자들이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임을 선언하며 자체 제작한 규범을 만들고 이를 점검하고 참회하는 포살법회를 마련했다.

전북불교시민연대(공동대표 유지원 외 3명)를 주축으로 한 50여 재가불자들은 9월 8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법당에서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을 초청해 재가불자 포살법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불교의 보살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40개 항목의 계율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재가자 포살법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서는 "전북 지역 불자들의 새로운 신행 풍토를 만들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참회할 줄 알고 법다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화합하고, 부처님 당시의 위아래 없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해 정토건설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포살법회에 동참한 대중들은 "아직 법을 만나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법을 바로 배우고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도법 스님은 "부처님은 삶의 주인으로 살라 했으며 신과 인간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했고 깨달음을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정직한 자세로 임하며 몸소 부처님 법을 실천하며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월 1회 진행될 전북지역의 재가자 포살법회는 10월 13일에 두 번째 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茶 한잔으로 환자들 위로

광주 한마음선원 전통차 시음봉사 1주년



전남대 화순병원에서 차봉사를 하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차봉사팀.

"병고에 힘든 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포교인 것 같아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차(茶) 공양팀이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서 환자와 가족, 병원관계자들에게 전통차 시음 봉사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12일 병원 대합실에는 박해소 팀장을 비롯해 11명의 봉사자들은 연꽃차, 보이차 등 전통차를 300여 방문객에게 대접했다.

이날 전통차 시음은 차공양팀이 전통차 시음봉사 1년을 맞이하는 날로, 전통차와 떡을 환자와 병원관계자를 위해 준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해소 팀장은 "갈증이 있을 때 물 한잔이 큰 위안이 되듯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일이야 말로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공양팀은 지난 2008년부터 병원과 연계해 호스피스병동에서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차봉사를 실시해 오다, 병원관계자들의 요청으로 1년 전부터 대합실에서 차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태풍 피해 농가 복구작업 나서

9월 8일 구례군 일대 하우스 철거작업 실시

볼라벤 태풍으로 황폐화된 농가를 위해 스님들이 복구작업에 나섰다. 전남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스님 20여 명은 9월 8일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일대를 방문해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복구 작업에는 구례군 농민회, 기아자동차 노조원 100여 명이 동참했으며, 부서진 시설하우스와 경작물 철거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화엄사 스님들과 노동자, 농민이 복구 작업을 한 곳은 구례지역에 대규모로 설치되어있던 시설하우스 농가다. 농가들은 태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하우스가 파손돼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봉사자들은 오전 9시부터 100여 동의 파괴된 시설하우스 철거를 도왔다.

한편 태풍 볼라벤으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은 4252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전남 15개 시 ·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가 진행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7080' 세대에게 향수와 추억 선사

익산 심곡사 가을 포크 콘서트 개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익산시민과 함께하는 포크 콘서트'가 9월 8일 익산 심곡사(주지 화평) 떡목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이한수 익산시장과 전정희 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관객들은 이른 가을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감미로운 포크 음악에 빠져들었다.

가수 윤태규, 이승훈, 백미현, 권재현 등이 출연해 7080세대의 향수와 추억을 선물했다.

화평 스님은 "향수와 그리움이 가득한 포크 음악 공연을 통해 모처럼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음악위주로 공연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을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7회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각 팀을 열띠게 응원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 보여주고파"

천천클럽, 외국인 노동자 어울림 한마당 마련

가족과 고향의 품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제7회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이 9월 9일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체육관 인화원에서 열렸다.

전주 천천클럽과 우리는선우(대표 오종근)는 네팔, 인도, 베트남 등 13개국 300여 외국인들을 초청해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별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제기차기 등 간단한 게임과 함께 레크레이션 등을 진행했다.

오종근 전주 천천클럽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잠시 타국생활의 시름을 잊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은 완주 송광사, 금선암, 익산 원경사, 우리는선우, 현대자동차 불자회 등의 후원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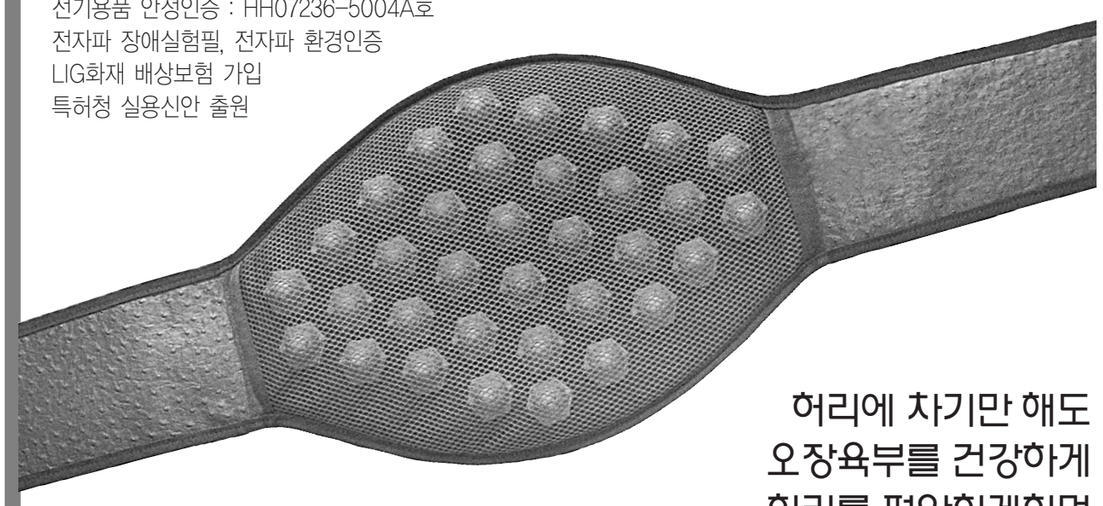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대구 법왕사 백고좌법회 문열어

9월 7일 전야 산사음악회… 300여 대중 참석



9월 6일 법왕사에서 열린 전야산사음악회 모습.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9월 7일 복지관 3층 대법당에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경·율·론 삼장 백고좌 대법회 중 첫 법회를 봉행했다.

12월 15일까지 100일간 열리는 제23회 백고좌 대법회는 100분의 스님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을 열었던 신라시대 법회에서 시원을 찾을 수 있다. 대구 법왕사는 1995년 백고좌 법회를 복원해 매년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백고좌 법회는 경율론 삼장 중 대승불교 주요 경전인 금강경과 화엄경, 법화경, 대승기신론을 비롯해 율장에 관한 부처님의 금구성언(金口聖言)이 주로 다뤄진다.

도문 스님 첫 법회로 원융3제 법문

전야제서 국악마당 갈채 받아

첫 법회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이 입재 법문했다. 도문 스님은 〈실상묘법연화경〉 전 14품을 주제로 원융 3제의 이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6일에는 저녁 7시부터 1, 2부로 나눠 전야산사음악회가 개최됐다. 1부 식전 행사에 이어 제2부에서는 이수찬 대구마하이주민센터 소장의 사회 하에 즐거운 놀이 한마당이 펼쳐졌다.

퓨전사물놀이, 피리독주, 경기민요, 가요판소리 등의 국악 한마당이 진행됐으며 대구지역 국회의원인 주호영 의원의 초청 토크쇼도 진행됐다. 전야산사음악회에는 300여 불자들이 참여해 백고좌법회의 깊은 뜻을 되새겼다.

음악회에 참여한 이순심 씨(53)는 "국악이 흥겨웠다. 스님들의 명법문을 매일 들을 생각하니 떨린다"고 기대를 표했다.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백고좌법회란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00일 동안 매일 한 분씩 큰스님 100분을 모셔 설법하게 하는 법회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진평왕 때 황룡사에 백고좌를 차리고 원광법사 등이 설법한 것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스님은 "매년 백고좌 법회를 통해 우리 시대 선지식들의 법음이 세상에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며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제23회 백고좌법회에는 화엄사 주지 각성 스님과 전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 해인승가대학 학장 해월 스님 등이 강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남진제, 북송담'으로 일컬어지며,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으로 추앙받는 송담 스님도 초청됐다.

99일째인 12월 14일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이 불자에게 계를 내리는 수계법회를 집전하며, 100일차 마지막 대미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이며 경국사 조실인 인환 큰스님 초청법회로 장식된다. (053)766-3747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민과 함께한 송림사 행복 나눔 음악회

칠곡 송림사(주지 혜성)는 9월 8일 송림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3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사음악회에서는 김범룡, 조항조, 정수라, 금잔디 등 인기가수 공연을 비롯해 궁중무용, 댄스공연 등이 진행되는 '행복 나눔 음악회'로 꾸며졌다.

음악회에는 송림사 주지 혜성 스님과 서상기, 이완영 국회의원,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 이우석 칠곡부군수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초가을 밤 음악이 흐르는 산사의 정취를 만끽했다.

송림사 주지 혜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기도, 나눔, 수양의 도량을 찾아준 모든 불자님들이 무거운 짐까지도 이곳 부처님 전에 내려놓고 행복만 가져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9월 8일 송림사 특설무대서 열린 '행복나눔 음악회' 중 궁중무용의 한 장면.

이상동 송림사 신도회장도 "행복 나눔 음악회가 슬픔과 억눌림도 함께 풀어가며 가슴 가득히 행복을 품고 가는 소중한 시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림사는 주민화합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행복 나눔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각성 스님 '서장' 고운사 특강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9월 10~14일 각성 스님 초청 〈서장〉 특강을 개최했다.

〈서장〉은 대혜 선사가 참선 공부에 관해 자세히 써 놓은 편지다.

이날 강연이 펼쳐진 선 체험관에는 고운사 말사 주지 스님들을 비롯해 200여 대중이 모였다. 각성 스님은 "마음공부의 세 가지는 참선, 염불, 관법"이라며 대중의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제1회 세계불교 문화올림픽 열린다

12월 5일 룸비니서 개최…태종사서 조직위 결단식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원담, 각항사 주지)는 9월 14일 부산 태종사(조실 도성)에서 제1회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증명단 결단식을 봉행했다.

이날 조직위원장 원담 스님은 "12월 5일 룸비니에서 세계불교문화올림픽을 열고자 한다"며 "불교 사상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담 스님은 "세계 여러 불교국가 단체들과 협의해 템플스테이 홍보관을 비롯해, 세계불교문화 체험관, 우수용품 판매점, 연등축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상생의 디자인 사찰서 부터

고색창연하다는 말은 오래되어 예스러운 풍치나 그윽한 분위기를 말할 때 쓰인다. 오래된 사찰의 경관을 설명하는데 그럴 수 없이 잘 어울리는 말이다.

법당의 퇴색한 기둥, 마당에서 모진 세월을 꿋꿋이 견뎌온 오래된 석탑, 칠이 보기 좋게 벗겨져 고풍스러움을 드러낸 법당의 벽체...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우리 사찰의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귀한 요소들이다.

현대로 오면서 우리 사찰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재료의 변화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골기와를 얹은 전통건축물이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담장의 재료에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철 재료가 쓰이기 시작하고, 고운 흙으로 마감되었던 마당이 화강석이나 벽돌로 포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성을 잃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색은 없고 사찰의 여건에 따라 혹은 사찰에 주석하는 스님들의 안목이나 취향에 따라 불사의 틀이 쉽게 결정되고 실행된다.

공법이나 재료가 달라지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전통사찰에서 면면히 계승되어온 경관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가 손상된다면 한국성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현상을 변경할 때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대도시 한가운데 지어지는 사찰마저도 옛 재료를 써야하고 옛 공법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불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여야하고 경제적으로 불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오래된 공법과 재료만을 고집하다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적 공법에 현대적 재료를 쓰더라도 드러나는 경관성은 한국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려면 한국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조화롭게 결합시켜 전체적으로는 한국적 이미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디자인을 상생의 디자인이라고 부르고자한다. 상생의 디자인을 우리 사찰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전통사찰의 경관을 고려해 현대건축기법과 전통기법간의 조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전통사찰인 경기도 ○사찰에 도입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펜스.



반야동자(12절)
3,000부 이상 @ 8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26.5㎝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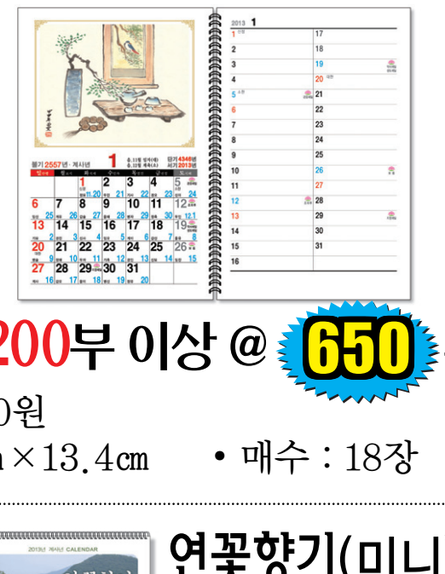


보리심(한지)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63㎝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19㎝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선(수첩)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13.4㎝ • 매수 : 18장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
• 규격 : 8.9㎝×9.5㎝
• 매수 : 16장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사바의 시끄러운 소리 가을바람 속으로…

⑪ 북한산 소나무숲길 그리고 도선사



산 길은 인적이 드물어 걷기를 주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일단 길에 들어서면 친구처럼 다가오는 바람과 새소리, 녹음이 길을 걷게 한다.

북한산 둘레길 '소나무숲길'과 연결된 도선사 오르는 길이다.

9월 11일, 우이동에서부터 소나무숲길을 거쳐 도선사까지 이어진 길에서는 초가을의 정취가 느껴졌다. 북한산 계곡 사이로 가을을 알리는 서늘한 기운이 물을 타고 내려왔다. 소나무숲길 시작점부터 도선사까지는 4km 남짓, 2시간 가량이 걸린다.

소나무숲길은 우이동 버스 종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시작한다. 우이동 버스 종점에서는 오후임에도 원색의 등산복 차림의 승객들이 삼삼오오 북한산을 향해 분주히 움직였다.

우이동 차고지 입구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둘레길 표지판이 등산객들을 맞이한다.

소나무숲길은 말 그대로 소나무 천지다. '소나무숲길'이라고 쓰인 아치형의 문은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고 외치는 듯하다.

소나무 사이로 놓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둘레길 안내소가 나온다. 인근에는 체육시설이 있어 마을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다. 길 안쪽으로 조금 들어서자 소나무가 내뿜는 상쾌한 피톤치드 향이 온몸을 감싼다. 소나무가 무거워진 어깨를 주물러 주는 듯하다.

소나무숲길의 끝은 독립운동가 손병희선생 묘소다. 민족대표 33인으로 3·1운동을 주도하기도 한 그를 기리기 위해 주변 길에는 태극기가 걸려있다.

길은 숲길에서 포장도로로 바뀌는데 아스팔트 부분에 파란색 선으로 둘레길임을 표시해놓았다. 도로 양 옆에는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텃밭들이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소나무숲길과 우이령길, 도선사 오르는 길의 갈림 구간이 나온다. 처음 오는 등산객들은 대부분 어떤 구간이 펼쳐질지 모르는 우이령길보다 인수봉 바위가 보이는 도선사 오르는 길을 선택한다. 저 멀리 북한산 인수봉이 손짓하듯 서 있다.

500m 쯤 더 걸으면 좌측에 붉은 벽돌로 지은 고풍스러운 2층 건물인 봉황각(鳳凰閣)이 있다. 봉황각은 천도교 중앙총부를 1969년에 옮긴 별관으로 한국 근대사의 역사를 담고 있다. 한옥으로서의 가치도 높아 서울시 유형문화재 2호로 지정돼있다.



북한산의 기운이 도량 곳곳에 내리는 듯하다. 도선사 마애석불전과 반야굴(사진)은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9월 11일 찾은 도선사에는 세상의 여러 소리가 차단된 듯한 고요함이 느껴졌다.

바람소리 새소리 친구처럼 다가와 석조마애불 앞 참배객 끊이지 않아

도선사 오르는 길은 계속 계곡을 끼고 간다. 봉황각을 지나면 지장암이 등산객들을 반긴다. 지장암은 계곡 위에 징검다리를 지나야만 갈 수 있는 사찰인데 등산객들 사이에서 물 맛이 유명하다.

도선사 오르는길은 등산과 참배의 목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마주치는 사람들도 각양각색이다. 선글라스를 끼고 노래를 들으며 멋을 한 껏 부린 할아버지부터 법복을 입고 단주를 굴리며 내려오는 불자들이 길을 걷고 있었다.

지장암에서 500m를 더 오르면 유명한 붙임바위가 길 한가운데 위용을 드러낸다. 아스팔트 도로가 개설되기 오래 전부터 도선사를 찾는 신도 등 많은 사람들이 고갯길 중간에서 잠시 쉬어가던 곳이다. 이 바위에 돌을 붙이고 마음속 간직하고 있던 소원을 빌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내력을 간직하고 있다. 바위 한편에는 '나무아미타불' 글자가 눈에 띄며 바위 곳곳에 돌이 올려져 있다.

붙임바위부터는 길 곳곳에 스님들의 어록이나 불경이 기록된 나무판이 있어 가까이에 절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신념무적' '만고광명' '참으로 소중한 인연입니다' 등 법문들이 많다. 글귀를 읽으며 길을 오르면 풀 하나, 나무 하나도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이윽고 도착한 도산사는 등산과 기도의 목적으로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 도선사 일주문 앞에 로터리에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장사진이다. 혹시 하산하는 길일까, 기자에게도 '내려가시는 길이에요?' 하고 묻는다.

아스팔트길 옆으로 등산로가 잘 마련돼 있다. 이런 길에는 사연이 있다. 故박정희 前 대통령 내외와의 인연이다. 故육영수 여사는 청담 스님을 따르며 '대덕화'라는 불명까지 받았고 도선사를 자주 찾았다. 그 이후 우이동 버스 종점에서 경내까지 약 4km의 도로가 말끔히 포장됐다. 편리함도 잠시 예전 등산로를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양옆으로 친환경적인 등산로를 다시금 만들고 있다.

사천왕이 늠름하게 지키고 있는 천왕문을 통과하면 피안의 세계다. 천왕문 밖의 북새통에도 사찰 안은 고요하고 한적하다.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불자들이나 나들이 나온 가족들만 작은 새소리가 들릴 만큼 여유로움이 감돈다.

도선사는 신라 말, 도선 국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천년이라는 세월을 간직한 도선사는 대선사인 청담 스님의 영향으로 호국참회 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

천왕문을 지나니 바로 산 위의 포대화상이 정겹게 맞아준다.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옆집 할아버지도 같은 포대화상은 포대를 들고 다니며 탁발을 했는데, 탁발한 물건들이 포대에 가득차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한다. 재복을 상징하기도 한다. 사찰 깊숙이 들어가면 또 다른 포대화상이 있는데 사람들의 손길이 자주 닿아 배꼽 부분이 새까맣다. 기자도 배꼽 주변을 시계방향으로 만지며 소원을 빌어본다.

도선사에는 포대화상과 함께 마애석불전과 반야굴이 유명하다. 북한산 기운을 내려 받았다는 석조마애불이 모셔진 곳이다. 수많은 참배객들이 예불드리는 광경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석불 가운데 가장 참배객이 많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기도를 하고 다시 내려오는 길. 한 불자가 사진을 찍는 기자에게 말을 걸어왔다. 수유동에 사는 이경래 씨다.

"풍경이 너무 예뻐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버스를 이용했는데 내려갈 때는 걸어가고 있어요. 기도하고 내려오니 마음이 편하고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들도 잘 보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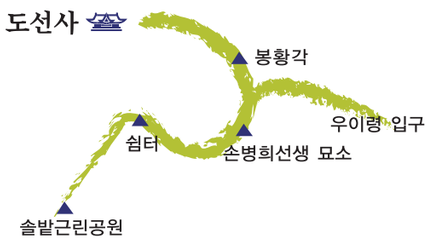
이경래 씨는 다음번에는 등산을 겸해 오겠다고 했다.

이른 낙엽이 밟힌다. 낙엽 밟는 소리가 가을 바람을 따라간다. 사바의 시끄러운 소리가 북한산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도선사엔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도하는 참배객들의 모습



〈북한산 소나무숲길과 도선사 오르는 길〉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cm
④ 약쑥초 밀대 4.7ϕ×25cm
⑤ 약쑥초 1호 5.9ϕ×18cm
⑥ 약쑥초 2호 5.9ϕ×14cm
⑦ 약쑥초 3호 4.7ϕ×13cm
⑧ 약쑥초 4호 4.7ϕ×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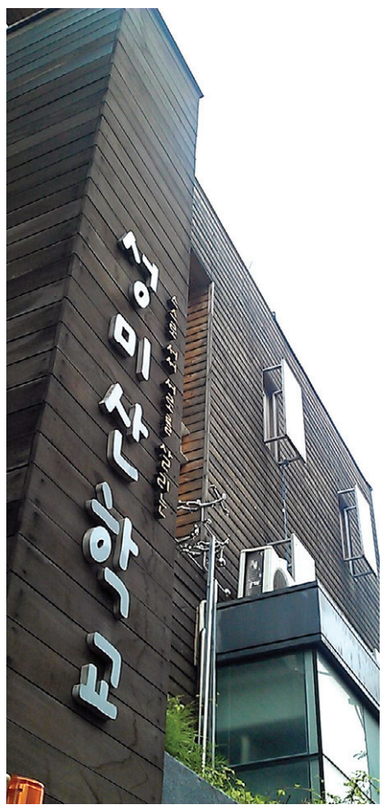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생태사회와 불교

마을만들기, 풀뿌리 지역공동체운동

마을, 내가 사는 곳 유토피아 만드는 연습





지역 마을 대안학교 성미산학교〈사진 왼쪽〉와 성미산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운동회〈사진 오른쪽〉. 서울 마포에 자리한 성미산 마을은 한국의 성공적인 마을 공동체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 서울시정의 화두, 마을

지금 박원순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그야말로 '마을', '마을만들기'가 화두이다. 지역공동체운동, 살맛나는 지역만들기, 살맛나는 풀뿌리 지역공동체 등 모두 같은 말이다. 또 이에 따라 도시텃밭운동도 활기를 띄고 있다. 최근 불광동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8월 30일까지 '우리마을 프로젝트'를 공모했다. 3명만 모여서 무엇인가 활동 하는 모임을 만들면 최소 100여만원 이상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 '마을살이' 등 사업은 이미 지방 대부분 도시들이 서울시의 지역공동체활동을 복제하거나 따라하고 있다. 부산, 수원, 광주, 청주, 대전을 물론이거니와 장수, 진안, 서천등 도시와 시골에 그야말로 '트랜드'이자 '패션'처럼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리 '마을만들기', '풀뿌리 지역공동체'에 열광 하고 있는가. 서울에 마을이 있기는 한 것일까? 도대체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서울은 1960~70년대 수백년 내려왔던 농촌공동체가 개발과 산업화로 파괴, 해체되면서 농업인구들이 대대적으로 도시로 몰려와 주변의 판자촌을 형성했다. 서로의존하고 협력하며 내것 네것없이 대가족을 이루며 살던 농촌을 떠나 아무도 반겨줄이 없는 도시로 올라온 것이다. 도심주변에 형성된 판자촌과 빈민가들은 그나마 농업사회의 끈끈한 공동체적 뿌리를 갖고 있었지만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뿌리마저 서서히 사라져갔다. 필자가 서울시의 재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했던 2010년에는 서울시의 재개발단지가 무려 200여 곳이었다. 대부분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다. 그것도 대형평수의 아파트이다.

주민들을 터전에서 몰아내는 재개발

그래서 브리핑을 하는 개발업자들에게 물어보았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당시들이 짓는 아파트에서 살수 있는 겁니까?" 놀라운 답이 돌아온다 "그들이 여기서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신 비싸게 땅을 팔아 돈을 벌었으니 그 돈으로 다른 곳으로 가겠지요." 입을 다물수가 없다. 재개발을 원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이들에게 땅이나 팔고 이사를 가란다. 더욱이 세입자들은 안중에도 없다. 결국 더 먼 외곽으로 이주를 강제하며, 강제철거과정에서 인권침해 상황은 말할수 없는 지경이다. 대형 평수를 많이 지어야 돈을 버는 개발업자들에게 원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실속이 없다. 결국 소수의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대박이지만 원주민 재입주율이 20%밖에 안되는 재개발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쪽박을 차는 일이다. 2008년 전세계의 금융위기이후 건설경기가 급락하면서 3년전에 지어놓은 그 많은 대형평수의 뉴타운 아파트들은 지금은 분양이 안되어 텅텅비어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세훈시장의 뉴타운개발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오세훈시장시절 추진되던 휴먼타운 7곳 등 총 17곳에 대해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 대신 주민 주도로 보전과 정비, 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도봉구 방학동 일대를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인인 마을 만들기를 뉴타운 · 재개발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농업인구 도시로 몰려 판자촌 형성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체 사라져
재개발 대안…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은 '붙박이정착' 의식 갖게해

'마을만들기'란 무엇인가

마을이란 단순히 건물들의 집합, 주택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장소성과 역사성이 축적된 공간을 말한다.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살아있고 그들간의 협동과 의존관계가 높아 서로 돕고 끈끈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을 말한다. 농촌공동체를 버리고 몰려온 팍팍한 서울살이, 비인간적인 도시를 사람의 정이 흐르는 마을로 만들려는 많은 원력행자들에 의해 수많은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마포의 성미산공동체와 은평구 대조동 갈곡리, 강북구의 녹색마을, 부산의 반송동의 희망세상, 연제공동체등, 그리고 농촌의 경우만도 괴산, 장소, 진안, 무주, 안성 등 곳곳에서 이러한 마을만들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곳은 마포구 홍대 맞은 편의 '성미산공동체'이다. 이곳은 약 20여년전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아이들이 뛰어놀던 야트막한 뒷동산 성미산이 개발의 위기에 처하자 이들이 중심이 되어 '성미산지키기'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이 운동은 크게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아이의 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은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작업을 하자고 의기투합하여 친환경먹거리 공동구매를 위해 마포두레생협을 만든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고 탄력에 힘입어 산악회, 농사모임, 각종 공부모임, 노래모임, 밴드, 연주모임, 극단, 사진팀, 풍물패 등 수십개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구성되면서 성미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끼리 복잡하게 서로 얽히면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매년 성미산 마을축제, 숲속 음악회, 마을운동회를 개최하여 재미있고 자발적인 마을의 축제가 만들어진다. 마을에 활력과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이다.

이윽고 육아공동체에서 자란 어린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초중고 12년제 대안학교로 성미산학교를 만들기에 이른다. 뿐아니라 몇몇 마을에서 뜻에 맞는 사람끼리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9가구와 10가구가 공동으로 같이 사는 공동주택(Co-housing)이 2개가 만들어졌고, 성미산 마을극장까지 만들어낸다.

또한 수십개의 마을기업이 만들어졌다. 마을카페인 '작은나무', 동네식당인 '성미산밥상', '반찬가게', '성미산 공방', '비누두레', 옷을 만드는 '한땀두레', 노인들을 돌보는 '돌봄두레'와 '도서관겸 서점'도 있다. 그야말로 이곳에서는 온동네 모두가 다 친한 사람이고 어느집에 들어가서도 편하게 밥을 먹을 수있고 놀러다니고 마실을 다닐수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운동이 이미 서울만해도 수십군데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런 마을운동에 오랫동안 주목해왔고 이미 3-4권의 마을운동관련 책을 써내기도 했던 박원순시장은 뉴타운으로 파괴된 지역을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정이 흐르는 '마을만들기'로 전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고향을 만드는 일 '마을만들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애창되는 우리 동요에서 '고향'은 사람들의 정서의 시원이자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귀의처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나마 고향에 대한 애잔한 그리움이라고 있겠지만,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 도시에서 살아온 아이들에게 '나의 살던 고향은 00병원 000호실' 일뿐이다.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매뚜기 뛰듯 이사를 다니던 아이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은 없다. 고향이 없는 아이들, 그리움이 없는 세대는 불행하다. 마을만들기는 고향을 만드는 일이다. 고향은 주택과 건물들이 모인곳이 아니고 골목골목마다 친구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놀던 수많은 사연이 있는 곳이다. 거리, 골목, 전봇대, 집 모두가 자신의 경험과 추억이 아로새겨진 곳이다. 이것을 '장소성'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이웃간의 대화가 있고 모임이 있고 협동이 있고 자치가 있다. 여기에서는 독거노인들이 홀로 외로울 리없고, 음습한 거리에 비행청소년들이 있을 수 없으며,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주거환경이 생길리없고, 동네뒷산이 함부로 파헤쳐질리 없고, 개천과 시내가 쓰레기도 더렵혀질리 없다. 아이들에게는 마음놓고 뛰어놀 곳이 많은 곳이다. 돈은 적게 벌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편히 살수있는 행복한 마을, 이사가고 싶지 않은 정든 마을이다. 이런 마을은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가꿔야 하고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인간과 인간의 정이 살아있고, 거리, 골목이 살아있으며 환경이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떠돌이의 삶에서 붙박이의 삶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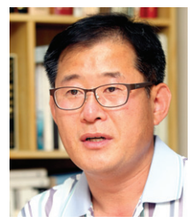
과거 우리 선조들은 한곳에서 대를 이어 가문을 일구며 살아왔다. 붙박이로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한 곳에서 10년 이상 머물며 사는 사람이 드물다. 이 아파트에서 저아파트로 강남에서 분당으로 강북에서 일산으로 파주 신도시로, 더 넓은 곳 더 새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이미 집은 내가 거주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와 투기' 돈벌의 대상이다. 그래서 철새처럼 이동한다. 떠돌이들에게 이웃과 사귀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집옆의 개천이 오염되든 쓰레기로 더렵혀지든 자신이 알바가 아니다. 골목이 우범지대가 되든, 교통사고가 자주나든 자신이 관심을 둘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곧 더 좋은 아파트로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붙박이의식은 다르다. 그곳에서 뼈를 묻고 살려는 사람에게 이웃은 함께 협력해서 살아야 할 대상이며, 자연은 지켜져야 할 곳이며, 거주환경은 안전하고 편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만들기에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 금고등의 경제적 활동이 함께 발전하면서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공동체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생태적인 것이다.

마을만들기는 붙박이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자연이나 생태환경도 이러한 붙박이 의식, 정주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사찰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마을과 지역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는 이때 사찰은 바로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거점, 구심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운동을 자극하고 지원하며 지역공동체, 지역의 문화적 활력과 경제적 공동체의 상징적인 중심역할이 되어야 한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토록 기억할 좋은 선물입니다!!



동의보향 DONGUIBOHYANG 덤 증정행사
행사, 선물용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별 추가로 덤을 증정해 드립니다.
(선물용으로 바로 쓰실 수 있게 쇼핑백포장까지 드립니다)

- 용 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 공간 비치용
- 규 격 : 복주머니 12*19cm (펼쳤을 때)
- 내용량 : 100g

자연에서 얻은 동의보향의 아름다운 향기는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달래어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향은 보다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점 한점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가공 후 부산물로 나오는 찌꺼기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 유통되는 정품약재를 사용하여 일일이 선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므로 항상 깨끗하고 맑은 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조원 수풀림 주문전화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藝園®
http://www.예원몰.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납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납품잔량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티셔츠/모자/바람막이/유니폼/츄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님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문의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

‘여시아문’ 붓다 설법 이어지듯 정법의 등불이…

④ 다문제일(多聞第一) 아난다

〈하〉부처님 열반과 경전 결집



그림 · 김홍인

비보가 전해졌다. 교단의 제1제자였던 사리불과 도반 목건련의 죽음이었다. 아끼던 제자의 죽음에 대해 부처님은 안타까웠다. 부처님은 아난다를 데리고 바이살리로 향했다. 도착 후 이틀째 되던 날,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말했다.

“아난다여, 누구든지 사신족을 완성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 겁(劫)정도는 머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여래가 원하기만 한다면 한 겁 또는 그 겁의 남은 시간동안 계속 머물 수 있다.”

부처님은 같은 이야기를 조용하고 은근하게 세 번에 거쳐 말했다. 그러나 아난다는 부처님의 저의를 알지 못해 화답하지 못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물러갈 것을 명했다.

부처님 열반을 막지 못한 아난다

아난다가 물러난 후 조용히 생각에 잠긴 부처님에게 악마가 찾아왔다. 그리고 악마는 부처님께 열반에 드실 것을 청했다. 열반을 종용하는 악마에게 부처님은 단호히 말했다.

“물러가라 악마여, 여래는 스스로 때를 알고 있다. 나는 석 달 후 나의 본생지 쿠시나가라의 사리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들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는 것이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것도 멀지 않았구나.”

악마가 기뻐하며 물러가자 대지는 크게 흔들렸고, 아난다는 급하게 부처님을 찾았다. 헐레벌떡 들어온 아난다에게 부처님은 나지막이 자신이 석달 뒤 열반에 들것이라고 말했다. 아난다는 부처님께 수명을 연장해 겉에 머물러 줄 것을 세 번에 걸쳐 청했다.

“아난다, 네가 나를 시봉하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두 번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가? 나는 수명 연장을 청할 것을 너에게 먼저 말했다. 하지만 너는 아무런 말도 없었고, 청하지도 않았다. 여래는 말을 한 번 입 밖에 내놓으면 어기지 않는다.”

아난다는 부처님 발 아래에 조복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미혹해 부처님의 수명 연장을 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가 이래 이렇게 까지 자신을 책망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아난다를 부처님은 안쓰러워하며 위로했다.

“아난다, 너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집으로 삼아라. 그리고 법으로서 등불을 삼고, 법으로서 집을 삼아 스스로 이에 귀의해야 한다. 남을 의지하거나 남에게 귀의해서는 안된다. 게으름없이 깊이 자신을 관찰한다면 육신의 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가 가르친 성도(聖道)를 믿는 자가 있으면, 그는 나의 진실한 제자요 자손이다.”

진리의 새벽별이 지다

다음날 부처님은 바이살리의 북쪽 성문을 지나 길을 떠났다. 북쪽으로 내려간 부처님은 염부촌에 머물며 비구들에게 탐, 진, 치 삼독심(三毒心)을 끊어낼 것과 네 가지 큰 교법인 사성제(四聖諦)에 대해 설했다. 많은 비구들이 이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파바성으로 자리를 옮긴 부처님은 그 곳 대장장이의 아들 순다의 공양을 받는다. 하지만 공양은 독이 됐다. 심각한 설사 증세를 보였지만 부처님은 자신이 열반지로 선택한 쿠시나가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에서 부처님은 늙은 바라문인 수밧다를 마지막 제자로 삼고 조용히 열반을 준비했다.

숲은 깊은 어둠에 휩싸였다. 부처님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비구들에게 아난다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

“아난다는 어디 있느냐?”

“슬픔을 견디지 못해 울고 있습니다.”

“내가 찾는다고 전하거라.”

비구들은 사리나무 그늘에서 울고 있던 아난다를 찾았다. 부처님 앞에서도 아난다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런 아난다를 부처님은 지긋이 바라보며 웃었다.

“울지 마라. 아난다. 너는 오랫동안 나에게 정성을 다했다. 이 세상 누구도 너처럼 여래를 섬기지 못했을 것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머지않아 무지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명심하라. 내가 떠난 뒤에는 법과 율이 너의 스승이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해 예의와 법도를 따르도록 하라. 이것이 출가한 사람들이 순종해야 할 법이다.”

부처님 수명 연장 못 청해
입멸 후 교단에서 과실 문책

1차 결집서 교학 경전 송출
후대에 佛法 전한 은인

아난다는 만감이 교차했다. 자신의 형제이자 스승이었던 부처님의 위로가 더욱 가슴에 사무쳤다. 주체 못하는 슬픔에 아난다는 목 놓아 울 수 밖에 없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도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마지막 할 말은 이것뿐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없이 정진하라. 나는 방일하지 않아 바른 깨달음에 이르렀다.”

부처님은 그렇게 열반에 드셨다. 어두운 세상, 그래서 더욱 밝게 빛났던 정각의 새벽별이 진 것이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지 80년, 성도한 지 45년, 기원전 544년 2월 15일의 일이었다.

흔들리는 승단, 번뇌하는 아난다

부처님 열반 소식에 세상은 큰 슬픔에 빠졌다.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은 6일 간 조곡을 올렸다. 부처님 열반을 추모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행렬도 이어졌다. 7일째 되는 날, 부처님의 다비는 여법하게 치러졌다. 부처님의 사리는 여덟 등분으로 나눠 각국에 봉안됐다.

부처님 입멸 후 승단은 흔들리고 있었다. 심지어는 매일 잔소리 하던 늙은이에게 해방됐다고 기뻐하는 비구들도 있었다. 부처님 상수 제자 마하가섭과 장로들은 이 같은 상황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 부처님이 이루신 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었다. 마하가섭은 승단의 장로들에게 제안했다.

“교단의 법과 율을 어지럽히는 비구들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교단은 무너집니다. 세존께서는 ‘법이 곧 스승이니, 높이 받들어 보호하라’ 고 하셨습니다. 교단의 영원한 스승이 될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결집하도록 합시다.”

장로들은 마하가섭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이어 마하가섭은 부처님에게 설법을 가장 많이 듣고 지혜가 뛰어난 아라한 500명을 추천할 것을 장로들에게 청했다. 지혜와 덕망이 뛰어난 장로들이 추천됐고, 마지막 500번째에 아난다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마하가섭은 이를 거부했다. 아난다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장로들의 잇따른 청원에도 마하가섭은 단호했다. 결국 500번째 자리는 비워졌고, 40일 후 칠엽굴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홀로 남은 아난다는 슬픔 속에서 번민했다. 스승의 수명을 연장하지 못했고, 살아계실 때 깨닫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부처님 말씀을 결집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슬퍼 견딜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마하가섭이 가혹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부처님 재세 당시에도 마하가섭은 여성들의 출가를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를 부처님께 청한 아난다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수차례 드러낸 적도 있었다. 오죽했으면, 가섭 자신을 힐난하는 비구니에게 “나는 당신보다 아난다를 원망한다”고 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소소한 사항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아난다는 한시가 급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아난다는 인적이 드문 길을 골라 결집 장소로 향했다. 그리고 절벽에 홀로 서서 발뒤꿈치를 들고 용맹 정진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집 날 새벽까지 깨달을 수 없었다. 그토록 부처님의 설법을 열심히 들었지만,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다.

뼈를 깎는 듯한 정진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몸도 마음도 지쳤다. 아난다는 정진을 그만두고 잠시 머리를 베게에 뉘었다. 그 순간이었다. 한 순간 깨달음이 다가왔다.

“본래 있는 법을 부촉했지만(本來付有法)/부촉하고 없는 법을 말하니라(付了言無法)/ 각자 모름지기 스스로 깨달을 지니(各各須自悟)/깨달아 마치면 없는 법도 없느니라.(悟了無無法)”

다음 날 걸식을 마친 아난다는 칠엽굴로 갔다. 아난다가 들어서자 장로들이 일어나 반겼다. 마하가섭도 아난다의 성취를 한눈에 알아봤다. 500개의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가장 먼저 교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율이 결집됐다. 율의 결집은 우바리가 맡았다. 자리에 정좌한 아난다는 우바리가 율장을 송출하는 동안 마음을 가다듬었다.

법을 결집할 때가 됐다. 장로들은 법을 송출할 사람으로 일제히 아난다를 꼽았다. 그러자 마하가섭은 아난다가 가진 6가지 과실에 대해 지적했다.

“아난다여, 당신은 부처님의 만류에도 끝까지 청해 여인을 출가시켜 정법을 500년이나 퇴보하게 했소. 부처님의 승가리를 갤 때 발로 밟았으며, 입멸 전 물을 찾으실 때에는 바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음장상(陰藏像)을 여인에게 보였고, 미혹해 부처님께 수명 연장을 늦게 청했소. 그리고 부처님께 소소한 계를 묻지 않아 대중 화합을 깨뜨릴 빌미를 남겼습니다. 그대 허물을 인정합니까?”

“제 허물을 참회합니다.”

아난다는 가사를 고치고 절하며 참회했다. 대중은 아난다의 참회를 침묵과 합장으로 받았다.

“아난다여, 법상으로 올라오시오.”

아난다가 법상으로 천천히 올랐다. 마하가섭을 비롯한 온 대중이 일어나 아난다에게 절을 올렸다. 법상에 앉은 아난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첫 마디를 던졌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如是我聞)”

팔만 사천 법문이 담긴 경전의 첫 구절이 송출됐다. 사사로움을 떠나 객관성이 드러나는 이 한 마디에 모든 대중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마치 부처님의 설법이 이어지는 듯 했다.

다시 꺼지지 않을 정법의 등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참고문헌
〈부처님의 생애(조계종교육원)〉, 〈부처님 십대제자(성각 스님)〉, 〈붓다의 입멸에 관한 연구(안영규)〉,〈초기불교 교단에서 가섭과 아난의 관계(신성현)〉, 〈대열반경〉, 〈경률이상〉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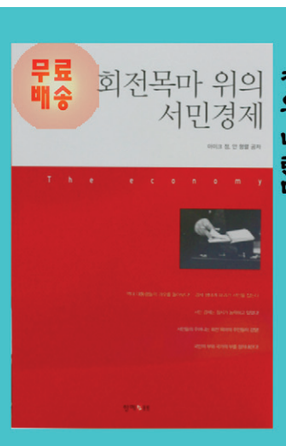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법당장엄
5층 목탑

▣ 크 기 : 높이 105cm 하단 가로 3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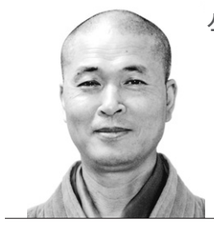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무료배송

현풍풍수학의 대가 장태상 선생님의 정수를 담다
風水總論
풍수총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현, 불교TV에서 풍수학 강의 중
동방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저자 : 耳山 張 泰 相
정가 : 40,000원
무료배송

회전목마 위의 서민경제
The economy
정의 내린다 국민의 부와 국가의 부를
저자 : 아이크 정
안형렬 공저
정가 : 15,000원
무료배송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불교 경전의 금자탑
무구정광 대다라니
無垢淨光大陀羅尼經
寒照 辛 興 植 謹譯
정가 : 10,000원
30년 전통의 제조명가에서 제조하는 수공예 불교 은제품
건강과 믿음을 위한 여러분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국내최다불교용품 은불교용품
30년전통의 은제품 은일반제품
국내최다불교용품 은불교용품
2012년 행운의 흑룡해 은용제품
도서 및 쥬얼리 은제품 구매문의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 신한(100-023-357023) 농협(1282-17-003433)
예금주 : (주)한메소프트
인터넷 상품구매 : 칠성상회 http://shop.7-star.net 에서 해당 상품 검색 후 구매 가능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322호 (주)한메소프트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단순한 것이 답이다

학승이 질문했다.
"질문이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상어(常語)가 어그러진 거야."

問 無問時如何 師云 乖常語

선사들의 대답은 늘 평범하고 맞는 말이다. 상어(常語)는 평상시 대담이다. 상어가 어그러졌다는 것은 대담이 깨졌다는 것이다. 말없이 앉아있을 때, 상어 쪽에서 보면 대담이 깨진 것이다. 그것일 뿐이다. 그 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말라. 단순한 것이 답이다. 동시에 옳은 답이다. 선은 있는 그대로 말한다. 더 이상 나가면 도의 담백함을 잃는다.

학승이 물었다.
"사방의 산이 마구 다가올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도망갈 길이 없다."

問 四山相逼時如何 師云 無出跡

지진이 일어나 사방이 무너질 때 어디로 도망치면 좋을까? 일방이 아닌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도망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정답이다. 그때 더 이상 출로를 찾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사방의 산이 다가올 때는 아무도 피하지 못했다.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예수도, 신도 어쩌지 못했다. 포기해야한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죽은 순간까지 그대는 편안할 것이다.

학승이 질문했다.
"그 속에 대하여 말해도 얻지 못할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말할 수 없어."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도(道)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말해도 얻지 못한다."

問 到者裡道不得時如何 師云 不得道 云如何道 師云 道不得處

도에 대해 묻는가? 말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면 어찌 도라 하겠는가? 행동으로 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행동으로 도가 설명되는 것이라면 어찌 일찍이 도는 형체가 없다고 했겠는가? 할[喝]로서 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임제 스님 아래에 깨달은 자들이 수없이 나와야할 것이다. 방(榜)으로 도를 알 수 있다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덕산 스님이 암두 스님의 소곤거림에 귀가 먹지 않았을 것이다. 천하의 납자들이여! 이 때를 당하여 뭐라고 한마디 하겠는가? 이 질문에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불조의 자식이지만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다면 아직 문밖의 손님이다.

학승이 물었다.
"모든 언어는 정수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어떤 것이 정수리 바깥의 일입니까?"
스님은 사미 문원을 불렀다. 문원이 대답하자,
"오늘 이른가, 늦었는가? (산보 갈 시간이)"

問 但有言句盡不出頂 如何是頂外事 師喚沙彌文遠 文遠應諾 師云 今日早晩也

손자는 전쟁을 함에 5사(五事)를 잘 갖추어야 실패가 없다고 했다. 5사는 도 · 천지 · 인 · 상(道天地人償)이다. 5사 중에 첫 번째가 도(道)다. 도는 천지간에 가득 찬 기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에 어긋나면 대의명분을 잃으므로 백성이 외면한다. 백성이 외면하면 그 전쟁은 지고 만다. 세속의 이치를 탐구한 병법가도 하물며 도를 최고 높은 곳에 놓고 전쟁을 치렀는데 진실을 찾는 구도자가 어찌 삶의 정수리가 되는 도를 논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정수리 바깥의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공부하다 엉뚱한 짓하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비로자나불의 스승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악한 말 하지 말게."

問 如何是毗盧師 師云 莫惡口

그 분이 계신 곳은 아주 고운 모래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았다. 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도 발자국이 남으므로 금방 알아채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대하여 입만 벙긋해도 죄를 범하고 만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31〉

연기설-② 연기의 구분

인과법칙…집착 · 苦 소멸 이론의 근거

부처님이 연기를 설한 이유는 이 세상의 작동원리나 우주의 탄생과 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고(苦)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연기설은 개인의 내면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한 이해를 포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는 무아와 무상을 자각하게 하고 그로 인해 영원불변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기설은 불교의 모든 교리들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연기설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인과율(因果律)에 의한 해석이다. 인과율이란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에 관한 법칙이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마음의 작용이 원인이 되어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칙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이중에 원인으로서의 작용을 업(業; karma)이라 하고 결과로서의 과보를 보(報; vipāka)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의 작용을 인과업보(因果業報)라는 말로 설명한다.

두 번째는 인연화합(因緣和合)에 의한 설명이다. 한 개인이 존재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의 종합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어려서는 부모님께 보살핌을 받고 선생님께 교육받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에 나아가서는 동료들과 일을 도모하는 등의 모든 연기 작용의 종합이 한 인간의 존재이다. 또 한 공기의 밥을 먹어도 그 밥은 농부, 땅, 비, 햇빛, 농기구 만드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소매상,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의 화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세 번째는 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이다. 인연화합에 의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시 다른 존재에게 직 ·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작용을 상의상관성이라고 한다. 인연화합에 의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면, 그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이 되어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인 것이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언젠가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과정과도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모든 자연법칙 속에서도 상의상관성은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떠나 홀로 존재한다든가 인과의 과정 없이 저절로 생겨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법주법계(法住法界)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무상하지만 무조건 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인과율 · 인연화합 · 상의상관성과 같이 일정한 법칙이 있다. 제행이 무상한 가운데 일정한 법칙이 상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을 법주(法住)라고 한다. 또 이러한 작용에 의해 형성된 세계를 법계(法界)라고 한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건 하지 않으시건, 이 법[dharma]은 항상 머무르니, 법이 머무르는 곳을 법계라고 한다"라는 〈잡아함경(雜阿含經)〉의 유명한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의 출현과 상관없이 인과율 · 인연화합 · 상의상관성의 법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다름 아닌 연기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연기라고 불리는 인과의 법칙은 불교도가 아닌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들어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의 가르침인 것이다.

원시 경전에 "모든 강물은 바다로 향한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고(苦)와 고의 소멸로 향한다"라는 말이 있다. 물이 흐르고 흘러 언젠가는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순리이듯,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 또한 삶의 순리이기 때문에 고를 소멸하는 길로 자연스럽게 인도한다. 연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서 모든 존재는 인연따라 화합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집착에서 벗어나 고를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㊱

그래서 담마에 열성적인 비구들도 명상하는 비구들도 모두 기쁘지 않게 됩니다 〈앙굿따라 니카야〉

누가 역사는 진보한다 말했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럼, 퇴보한다는 말일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렇다. 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진보사관에도 퇴보사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사관을 가질 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순환사관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다. 순환사관은 큰 틀에서 어떤 경로를 거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하지만 반복사관은 언제나 문제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 시대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 그런 반복사관의 타당성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례가 있다. 오늘 주인공은 부처님이 아니라, 그의 제자 마하쭌다 존자이다.

당시 부처님 교단에는 담마(부처님 가르침)에 열성적인 비구(학승)들과 명상하는 비구(선승)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항상 헐뜯기만 한다.

먼저 학승들이 선승들에 대해서 퍼붓는 비난 : 그들(선승)은 늘 말하기를, "우리는 명상가다, 우리는 명상가다"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무엇을 명상하는가? 무엇 때문에 명상하는가? 또 어떻게 명상하는가?" 선승들은 명상을 하지만, 명상의 의미나 목적을 분명히 모르고서 한다는 것이다.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스님의 말을 빈다면, 당시 선승들은 모두 암증(暗證)선사라는 말이다.

다음, 명상을 하는 선승들이 학승들에 대해서 퍼붓는 비난 : 그들(학승)은 늘 말하기를, "우리는 담마의 열성가이다. 우리는 담마의 열성가이다."라고 한다. 그렇지만 마음챙김이 없고 마음집중이 부족하다.

생각은 안정성 없이 여기저기 떠돌고, 감각기관은 절제함이 없다. 과연 "무엇 때문에 담마에 열성적인가? 어떻게 담마에 열성적인가?" 학승들은 담마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지만, 그 의미나 목적을 모르고서 한다는 이야기다. 보조스님의 말을 빈다면, 이런 학승들은 광혜(狂慧)를 추구할 뿐이다.

그렇게 부처님 제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 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한다. 선승들은 다른 선승들을 칭찬할 뿐 학승들을 찬탄하지 않고, 학승들 역시 다른 학승들을 칭찬할 뿐 선승들을 찬탄하지 않는다. "그래서"라는 말이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선승들이나 학승들 "아무도 기쁘지 않게 된다." 자리(自利)가 없다는 말이다. 그 뿐이던가. 명상과 학문의 공통목적인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도 아니게 된다." 이타(利他) 역시 없게 된다.

마하쭌다 존자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뒤 이렇게 권한다. 선승들은 학승들에 대하여, "우리는 명상가이지만 담마의 열성가들을 칭찬하겠습니다"라며 단련하라고. 왜냐하면 "심오한 뜻의 경지를 통찰지로 선명하게 꿰뚫어보는 이런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학승들 역시 선승들에 대하여, "우리는 담마의 열성가이지만 명상하는 비구들을 칭찬하겠습니다"라며 단련하라고. 왜냐하면 "열반의 체험을 얻은 이러한 뛰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는 드물기 때문이다."(일아 역편,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pp.522-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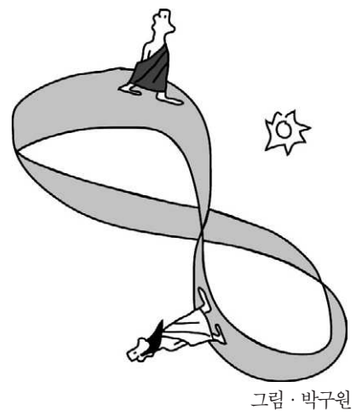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불교의 역사는 이러한 두 그룹 상호간의 오해와 비난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마하쭌다 존자나 보조지눌스님과 같이, 두 그룹이 서로 존중하기를 역설하는 노력이 반복되어온 역사이기도 하다.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우열(優劣)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해소를 위한 노력 역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수행법의 우열이 아니라, 수행의 진위(眞僞)를 말할 뿐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모 집

심인불교대학 제2기생

근본불교(根本佛教)와 기본교리(基本教理)는 밀교사상(密教思想)의 진리(眞理)속에 있다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대 상 : 남녀노소(男女老少) 누구나 환영합니다.
◆과 목 : (1) 불교의 기본교리,
(2) 밀교사상과 수행법.
(3) 만다라의 세계,
(4) 현밀(顯密)의 성불론(成佛論)
◆강 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
◆준 비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제출
◆등록금 : 100,000원
◆교재비 : 30,000원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무애정사〈심인불교대학〉
전화 031)692-3653 / 팩스 031)692-3654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국설법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삼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1실 평생거주할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1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1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6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녀 20분만 평생모십니다.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헤매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문의 : 회향선원 011-771-7575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불교와 학문 소통한 아름다운 知音

연재를 시작하며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秋史金正喜 1786~1856)와 초의선사(草衣禪師:1786~1866)의 만남은 유학자와 승려의 대표적 교유라는 점에서 호계삼소(虎溪三笑)에 비견(比肩)될 만하다.

이들이 신분을 초월해 나눈 아름다운 교유는 학문적 이상을 서로 공감했고, 어렵고 지난한 현실까지도 서로 배려하고 아파했다. 진퇴적인 탁마(琢磨)를 서로 재근했던 사람들, 추사와의 나눈 신의를 "서로 사모하고 아끼는 도리를 잊지 못했던(不忘相思相愛之道) 사이"라고 정의했던 초의였다. 시대를 대표한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아직도 못 끝에 남겨진 진한 여운이 묻어날 듯하다.

추사가 유배지의 어설픈 환경에서 탁마(琢磨)의 여진(餘燼)을 씻고, 풍토병을 달랜 것은 초의가 보낸 '초의차' 였다. 그가 초의에게 보낸 걸명(乞茗: 차를 청하는 것)은 이처럼 절실했다. 차는 추사의 유일한 위안이요, 즐거움이었다. 유배지 제주에서 불경을 외며, 번뇌를 잠재웠던 추사가 오백나한도를 구해 초의와 함께 겸증하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하지 않았던가. 그가 초의에게 보낸 간찰에는 고된 삶이나 번뇌를 토로하며, 차를 통해 자신을 정화했던 그의 인간적 화한이 오롯이 드러난다.

이러한 평생 지기(知己)를 초의는 어떻게 만난 것일까. 이는 1809년 다산초당으로 다산정약용(1762~1836)을 찾았던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어진 사람을 찾아서 '남쪽으로 모든 성을 돌아다니



초의선사



추사 김정희

유학자와 승려의 대표적 교유

초의 스님 답신 1점도 발견 안돼

라, 청산의 봄을 아홉 번이나 보냈다'던 초의가 다산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학문적 성취는 물론 추사나 한양의 식견 있는 사대부를 만나게 된 계기도 다산을 통해서다. 실로 이는 초의의 일대사서 출가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부처님 가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추사와 초의의 만남은 각별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글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눈 우정을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려낸다는 사실이다.

정조(正祖)의 〈일득록(日得錄)〉에 "어떤 사람의 글을 본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피기에 좋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알만한 곳도 있으며, 때를 알기에도 좋다"고 하였다. 바로 추사의 편지를 다시 읽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살피고, 추사를 알고, 초의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어떤 시대적 사안이나 한 사람의 생애를 직간접으로 조망할 수 있는 편지의 특성은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데도 요긴하다. 추사가 쓴 편지 중에 유독 초의에게 보낸 편지가 가장 많은 것은 역설적으로 추사와 초의가 느낀 공감대가 가장 크고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사유는 그의 편지에서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 현재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는 〈완당선생전집〉·〈여초의(與草衣)〉에 38통이 수록되었고, 개인 소장본 〈주상운타(注箱雲朶)〉와 〈역해타운(澩海朶雲)〉, 그리고 종양박물관 소장본인 〈나가묵연(那迦墨緣)〉, 아모레퍼시픽박물관 소장본 〈영해타운(瀛海朶雲)〉이 남아 있다. 이 외에도 몇 편의 개인 소장본 간찰이 전해진다. 현재 필자가 수집한 추사의 편지는 대략 65통 정도다. 추사의 편지에 대한 초의 스님의 답신은 현재까지 1점도 발견되지 않아 몹시 아쉽다.

추사의 편지에서 이들이 나누었던 배려와 인간애, 차를 통해 다졌던 지기(知己)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되짚어 보려 한다. 지금 우리는 소통과 배려, 화합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소통의 토대는 두터운 신뢰와 배려가 있어야하고, 소통을 통한 화합은 진한 인간애와 서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바로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정다운 편지를 되새겨 보려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박동춘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보시로 금생 회향…육신은 한벌의 옷"

이웃나라 돕는 월서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인연과 연기로 이어진 시방세계에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는 한쪽의 화엄만다라 같은 알들이 많다. 여기서 화엄(華嚴)이란, 이름 없는 꽃을 포함한 수많은 종류의 꽃으로 법계를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뜻이다. 우리 불교계에도 이렇듯 승속의 경계를 넘어 아름다운 화엄의 꽃을 피우며 이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이 걸어온 행보는 한가닥 씨줄과 날줄로 튼실하게 엮어져 화엄만다라 인드라망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차별과 경계에 걸림 없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화엄만다라의 세계는 보석처럼 값지다. 그 세계를 펼치며 사는 이들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전해준다. 격주로 그들을 찾아간다. 〈편집자주〉

첫 번째 주인공은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이다. 9월 12일 스님이 계신 서울 정릉 봉국사를 찾았다.

팔순을 앞둔 세수가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기백이 넘치셨다. 지난 2월 7일 캄보디아 승왕 템붕 스님 초청으로 프놈펜 승왕청을 방문해 캄보디아 벽오지 학교 교과서 지원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전달한 내용부터 여쭈었다.

"인생을 회향할 나이인데 마지막에 좋은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연한 기회에 캄보디아의 열악한 교육 실정을 알게 됐어요.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승왕청 외무 담당 스님이 캄보디아 어린이 교육을 위해 교과서 지원을 요청해 와 성사됐습니다.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세계평화기원 법회' 와 2003년 캄보디아 승왕청서 템붕 스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좋은일로 친견하니 기쁘습니다."

월서 스님은 캄보디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했다. 월서 스님은 사업 취지 부터 말문을 열었다. "'십년수목백년수인 (十年樹木百年樹人)' 이란 말이 있습니다. 〈관자(管子)〉에서 유래 된 말인데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 라는 뜻으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비유하는 고사 성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권수(權修)〉편에 보면 1년 계획으로는 곡식 심는 것만한게 없고, 10년 계획으로는 나무 심는 일만한 게 없으며, 일평생 계획으로는 사람 키우는 일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終身之計, 莫如樹人. 一樹一獲者穀也, 一樹十獲者木也, 一樹百獲者人也)"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한 "인재 양성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것이니 만큼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라는 말도 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장래는 바로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 교육에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죽을때까지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불행하게도 캄보디아에는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40~50대 남자들이 거의 없어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게 월서 스님의 설명이다.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정권 때, 크메르군에 의해 수백만 명이 학살됐기 때문이다.

1975년 4월 미군이 베트남서 철수함에 따라 야화된 캄보디아 친미 론놀정권을 몰아낸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 폴포트가 '농민천국' 을 건설한다며, 1979년 1월 베트남군이 프놈펜을 함락할 때까지 4년간 자국민을 대상으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이 사건으로 캄보디아는 인구의 40%가 14세 미만의 아이들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와 승왕청 승왕 템붕 스님도 이를 절감하지만, 재정부재로 엄두를 못내고 있다.

월서 스님은 "오늘날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데는 당시 월맹 수장인 호치민의 교육 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베트남 발전을 위해, 27명의 인재들을 선발해 비밀리에 러시아 유학을 시켰지요. 그 인재들이 통일 베트남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만큼 교육은 한 나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캄보디아 대도시를 제외한 벽오지 학교들은 재정 부족으로 교과서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는 선생님들만 교과서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책 없이 눈과 귀로만 배운다.

승왕 템붕 스님은 캄보디아서도 재정이 열악한 북서부 국경지역 쁘레아비히어 주와 오도르민쩨이 주 학교들에 교과서 지원을 월서스님 측에 요청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월서 스님은 지난해 자신의 호인 '천호' 를 딴 '천호희망재단' 을 설립, 인생의 마지막을 동남아시아 벽오지 교육 지원 사업에 진력하기로 결심했다.

월서 스님은 템붕 스님에게 캄보디아 벽오지 마을 학교에 체계적인 교과서지원을 매년 하기로 약속했다. 2개 주의 학교 중 1~2개 학교를 선정해, 학생 수 대비 50%~100%의 교과서를 지원하고, 제작되는 교과서에는 겉표지에 후원자를 명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인 10월에 월서 스님은 다시 캄보디아를 방문해 교과서 후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천호희망재단' 설립, 동남아 교육지원
벽오지 학교에 교과서 1만부 보시
네팔 · 라오스 등도 후원할 계획

스승 금오 스님 "수행자 냉철해야 한다"
북 동포 · 외국인 노동자 돕기 서예전
탐진치 삼독심 줄이면 성공한 인생



월서 스님은 … 1936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다. 1956년 화엄사에서 금오 스님 계사로 사미계를, 195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남지장사, 분황사, 불국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재무부장, 중앙종회의장(1990), 호계원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1994년 종단 개혁 후 호계위원과 임기 4년인 호계원장을 두 차례 맡기도 했다. 조계종 최고 품계인 대종사에 오른 월서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현재는 천호희망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개달음이 있는 산사〉·〈행복하려면 놓아라〉·〈거울 속 성불의 길〉 등이 있다.

"현재까지 세 번 정도에 걸쳐 교과서 1만부 정도를 후원했지요. 앞으로 3만부 정도 더 후원 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네팔과 라오스 등에도 교육 불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월서 스님이 수행자로서 올곧게 보시행을 펼치며 살 수 있었던 데에는 스승 금오(金烏 · 1896~1968)스님의 역할이 컸다. 1956년 환갑의 나이로 구례 화엄사 주지 였던 금오 스님은 스무 살의 새파란 제자가 조금이라도 게으른 꼴을 보지 못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9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시도 놔두지 않고 들들 볶아댔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평생 월서 스님에게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게 하는 큰 힘이 됐다.

"수행자는 냉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을 망치게 되지요. 은사 스님이 참선을 강조한 것도 바로 수행이 바탕이 돼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임을 뒤늦게 알았지요. 금오 스님이 없었으면 오늘의 월서도 없었을 겁니다."

제자에 대한 엄격함, 그것은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자리를 가리키는 은사 스님의 방편' 이기도 했다. 은사 스님에 대한 신뢰가 단단해지면서 월서 스님은 금오 스님이 1954년부터 발기인을 맡아 추진 중인 불교정화 운동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저는 참 행복한 수행자입니다. 효봉 스님과 동산 스님, 서암 스님 등 근현대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을 빠짐없이 친견했지요. 성철 스님 밑에서도 한 시절 혹독하게 하안거(夏安居)를 지냈습니다."

이때의 일화는 유명하다. 1990년 중앙종회의장 소임을 내려놓을 때다. 평탄한 길을 마다하고 해인사 선원을 찾아가 하안거 방부를 들인 것이다. 모두가 놀랐다. 월서 스님은 성철 스님 밑에서 꼭 한 철을 나고 싶었는데, 이때다 싶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루는 월서 스님이 기도 정진 중 성철 스님에게 화두를 한번 받고 싶은 생각이 솟구쳤다. 그래서 퇴설당으로 찾아갔다니, 성철 스님은 예의는 없다고 3천배를 주문했다. 당시 성철 스님에게 화두를 받으려면 3천배를 마쳐야 했다.

"하안거를 지내며 3천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화두 안 받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에 때려치울까 하다가, 3일간 나눠서 하더라도 꼭 하고 말겠다는 오기가 발동하더군요."

월서 스님은 점심공양 시간을 쪼개 해인사 장경각에서 하루 1천배씩 절을 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마지막인 셋째 날 3천배를 모두 마치자 가사 장삼이 땀으로 흠건히 젖었다. 월서 스님은 1주일 후 당당하게 다시 퇴설당을 찾았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건네준 화두는 '마삼근(麻三斤)' 이라고 적힌 쪽지 한 장이었다.

중국 동산선사가 "부처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받고, "내 삼베옷 무게가 세 근"이라고 답한 데서 유래한 화두다. 이는 누구에게나 주는 '흔한' 것이어서 순간 월서 스님은 섭섭했다. 하지만, 그 너머로 깨우침이 있다는 것을 그리 오래지 않아 깨달았다. '화두 참구 자체가 바로 정신집중의 길' 임을 안 것이다.

조계종 최고 품계인 대종사에 까지 오른 월서 스님은 요즘 서울 성북구 정릉2동 봉국사 염화실에서 지내신다. '도심속 산사' 인 봉국사는 700년 고찰로 유서깊은 곳이다.

월서 스님은 불국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 재무부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 등 반세기 동안 짊어졌던 종단의 중책을 모두 벗어놓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온 것이다. 스님은 좋아하는 붓글씨도 실컷 쓰신다고 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캄보디아 후원 사업에 정열을 쏟는다.

현재는 원로의원인 월서 스님에게 종단서 소임을 맡을 당시 가장 기억나는 것을 묻자 호계원장 시절 철두철미하게 계율로 잘못한 스님들을 지도한 것이라고 했다. 물론 불법(佛法) 수호를 위 한 일이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이 무거웠었다고 털어놨다. 그래도 멀빈자 8명을 사면한 것은 수행자로서 큰 위안이라고 흐뭇해 했다. 그들은 곧 자신의 능력을 찾아 종단의 일꾼이 됐다고 한다. 4년 전 북녘 동포와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난생 처음 서예전을 연 것도 스님에게 큰 보람이었다. 며칠 받을 지세우며 붓글씨를 쓰느라 오른쪽 어깨뼈가 상하기도 했지만 그 덕에 8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

월서스님은 요즘도 스님을 찾는 후학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다. "삶의 무상성을 깨달아 마음을 바꿔 욕심과 화와 집착을 줄이는 지혜를 내는 것이 생활 속의 불교수행" 이라는 것이다.

"원로의원이 뭐 특별히 할 일이 있겠습니까. 평생의 수행 경험을 통해 후학들에게 안정과 화합의 길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면서 슬슬 점을 꾸려야지요."

스님은 인터뷰 내내 자주 '회향' 을 말했다. "육신은 그냥 한 벌의 옷일 뿐입니다. 탐심이란 한 번 입고 버릴 옷에 지장을 하는 허망한 짓이지요. 저는 50살이 지나면서부터 삶의 무상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행이 무상하다는 인식에서 본래면목의 '한 물건' 을 찾아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삶의 무상성을 생각하면 욕심 덜 내고, 덜 섭섭해 하고, 덜 화내고, 덜 집착하게 돼 어리석음이 줄어든다"며 "도인처럼 탐(욕심), 진(성냄), 치(어리석음) 삼독심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지만 생활 속에서 그것을 참고 줄이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강조했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천호희망재단 이사장 월서 스님(사진 왼쪽)이 올 2월 캄보디아 벽오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학용품을 나눠주고 있다.

전법일기

삭발 · 승복 입은 모습보니 고마웠다

무척 친숙한 느낌을 주는 젊은 스님 한 명이 무척 마주 앉아 얼굴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 왔다. 함께 마주 인사를 하자 해맑은 웃음을 띤 얼굴로 자신을 알아보냐고 묻는다.

표정이나 태도로 보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까운 사이 일 것 같았다. 그래서 잠시 생각을 더듬어 보았지만 뚜렷하게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조금 난감한 기색을 보이자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그제야 무릎을 치며 탄성을 내었다. 덥석 손을 잡고 반가운 인사를 새로 나누었다.

1989년 은사 스님을 모시고 대전의 포교당에서 포교의 인연을 지을 때, 학생법회에 다니던 불자였던 것이다. 그렇게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고맙고 신통하기가 비할 바 없었다.

80년대 중반 출가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국립묘지 내에 있는 화장사를 찾았었다. 고교시절 학생회 법회를 다닐 때 깊이 존경하고 마음에 품었던 법사 스님께서 그 곳에 머물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내가 출가하게 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면 학생회 법사였던 도운 스님을 첫 손가락에 꼽아야 할 것이다.

그때도, 지금도 스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스님께 출가하여 승려가 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기특하다는 칭찬과 중노릇하는데 지침이 될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싶었다.

내가 법사 스님을 찾아뵈었을 때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상황인지 신기하기만 했다. 학생법회의 회장을 맡아 활동했던 것이나 한 번도 법회에 빠지지 않았던 성실함, 부처님가르침에 대한 무한한 기쁨과 동경 등 돌아보니 닮은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았다.



그림 · 박구원

대전 포교당 학생법회서 만난 청년
佛法의 매력에 빠져 출가 인연
사람 아름답게 하는 힘, 법회에 있어

청소년기에 점하는 불교의 매력은 이렇게 종종 출가의 인연을 짓는 것 같다. 따져보면 학생법회에 나가는 불자의 100에 하나도 출가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학생법회 때부터 불교의 인연을 맺은 좋은 스님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 혼자서 살아야 하는 출가생활에 대한 주변의 반대와 내심 남아 있는 일말의 근심조차 무시하고 출가를 결심할 수 있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이기 때문이다.

사실 "청소년 시기에 무슨 수행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출가를 결심하겠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력(道力)보다 매력(魅力)' 이라고 말한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수도(修道)와 수도자(修道者)의 삶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야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춘의 빛나는 꿈과 넘치는 감성 그리고 왕성한 지성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게 하는 넉치는 매력을 학생법회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1994년 인도여행을 준비할 때 청년이 된 이 불자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었다. 학업과 군복무로 인해 특별한 수입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사를 마치고 가면서 봉투를 놓고 갔다. 열어보니 1만원권 지폐가 한 장 들어있었다. 1년을 예정한 긴 여행이라서 사중 스님들의 도움과 신도들의 보시금을 더러 받았지만 그렇게 가슴 따뜻하고 고마운 보시금은 없었다.

많지 않은 액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맑았기 때문이었다. 불교가 이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복이고, 이런 사람이 출가하여 스님이 된 것, 또한 우리 불교의 복이다.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지금은 저 멀리 미국 땅에서 정진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후배스님에게 더 깊은 불보살의 가피가 깃들기를 기원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입종안내

◈ 입 종 안 내 ◈

귀의삼보하옵고,
지희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은 초대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유훈을 계승하여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의 큰 발원으로 일붕존자의 수법제자이시며 제1일붕선교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법담 정각 대종사님을 초대종정으로 모시고 지난 7월 24일 『창종선포대법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지면을 빌어 본 종의 창종에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원근각지의 청정승가와 불자여러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열린종단 · 교육 · 수행종단 · 개혁과 혁신의 종단』을 표방하는 본 종단에서는 "일붕"의 큰 그늘아래 하나 되고자 하는 일붕문도와 일붕존자와 소중히 인연된 청정승가, 법사, 재가불자님들께 언제나 입종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사오니 함께하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불기2556년 8월 좋은 날

※ 입종 구비서류(공통) ※

○ 입종신청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증 사본1부, 증명사진 3매
○ 재적증단 수계증 사본 또는 승적확인서
○ 입종비(총무원 문의 바람.)
　- 사찰등록 희망 時 -
○ 사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간판 등) 3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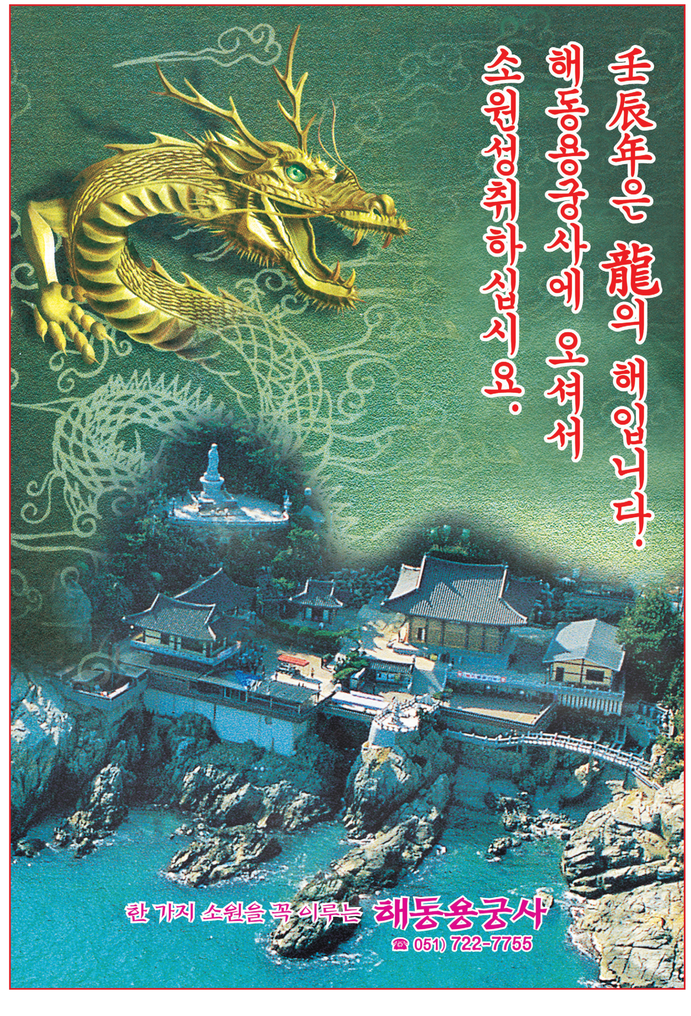
※ 입종관련 문의는 총무원 또는 가까운 전국교구 종무원에 하시면 됩니다.

※ 전국교구 종무원 ※

경기남부교구원장 : 일성(미륵사) ☎ 011-350-5855
경기북부교구원장 : 지산(통일안국사) ☎ 031-876-2235
경북교구원장 : 해동(지장사) ☎ 054-672-6564
전남교구원장 : 지현(약천사) ☎ 062-266-7462
전북교구원장 : 성각(백룡사) ☎ 010-9516-9600
충청교구원장 : 상원(해천사) ☎ 044-863-5582
제주교구원장 : 대성(일붕총법원) ☎ 064-702-2328
대전교구원장 : 정원(삼성암) ☎ 042-583-1009
부산교구원장 : 정일(자광사) ☎ 055-342-3551
울산교구원장 : 지운(운지암) ☎ 052-260-4897
대구교구원장 : 보각(지장사) ☎ 054-482-1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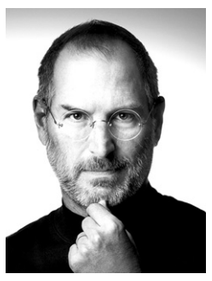
(사)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화엄

종정원 _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미륭사. 051)404~4300
총무원 _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 (2층)
전 화 _ 041)566-2277, 566-2278　전송 041)566-6141



만화로 보는 잡스의 정신세계와 禪

만화 〈스티브잡스의 禪〉, 다국어로 번역돼



애플의 前 최고경영자였던 故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11 · 사진)의 정신세계를 테마로 만화책 형식으로 발간된 〈스티브 잡스의 선(The Zen of Steve jobs), 2011〉이 스페인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로 번역돼 최근 발간됐다.

포브스 미디어(Forbes Media)에서 발간한 〈스티브 잡스의 선〉은 잡스의 정신적인 면에서의 성장이나 변화를 그린 코믹 형식의 책이다.

책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난 1985년 이후부터 스토리를 시작한다. 이 기간 동안 잡스는 일본 조동종 승려인 오토가와(乙川弘文) 고분치노 선승과 깊은 교류를 쌓았으며 책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다.

포브스 미디어는 "스티브 잡스와 오토가와 고분치노의 만남이 1996년 애플 복귀 후 잡스의 기업 이념에 영향을 줬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잡스는 1960년대 히피문화와 미국 선불교 열풍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성장하면서 히피문화는 물론, 선불교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20대 때 인도를 여행, 불교를 접촉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캘리포니아 주 선 센터에 다니면서 오토가와 선승과 교류했다.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직관적 통찰에 깊은 영향을 받은 잡스는 스스로 "직관적 이해와 자각이 추상적 사고와 지적 논리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때 자신이 있는 로스앨터스에서 '선심초심'의 저자이자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를 운영하는 스즈키 순류 스님을 만나면서 선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스페인,이태리,포르투갈어 등
日 고분치노 스님과 인연 담아
독자들 "잡스의 다른 면 알게돼"



'스티브 잡스의 선'의 포르투갈어 버전인 〈O Zen de Steve Jobs〉 표지(좌)와 오토가와 고분치노 스님과 잡스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만화로 묘사했다.

오토가와 고분치노 스님은 스즈키 스님의 제자로, 잡스는 고분치노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 공부하면서 보다 깊은 선적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당시 선적 체험은 긴 세월 매일 아침명상수행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직관력을 키워주는 바탕이 됐다.

오토카와 선승은 1991년 잡스의 결혼 주례도 맡았고 1986년 잡스가 애플 CEO에서 해임, 설립한 'NeXT' 종교지도자로 임명된 사이로 오랫동안 친숙했다.

잡스의 강연과 발언 중 '선의 자력본원(自力本源)' 사상이 자주 반영된 것도 그런 연유였다.

만화 〈스티브 잡스의 선〉은 80페이지 분량으로 일러스트레이터인 케일럽 멜비(Caleb Melby)가 작업을 맡았다. 케일럽 멜비는 스티브 잡스의 일대기 중에서도 오타가와 고분치노 스님과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스티브 잡스는 그의 일생동안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하고자 한 인물이다. 그는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마약을 복용해보고 과일만 먹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하기도 했으나 이내 실험을 그만뒀다. 하지만 선불교는 잡스가 오랫동안 몰두 할 수 있었던 대상이었다. 고분치노 스님은 잡스의 디자인과 불교적 영감을 준 멘토였다. 나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줬던 것은 두 인물의 세상을 향한 강한 통찰력이었다. 이들은 기존의 룰을 깨고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흥미를 갖게 했다."

간결한 만화를 통한 스티브 잡스와 불교 이야기는 독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아마존닷컴(Amazone.com)에서 책을 구입한 독자들은 "천재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좋은 책이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의 삶에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스토리가 인상적이다. 불교와 스티브잡스의 스승 이야기는 통찰력을 얻게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미얀마 스님들 "무슬림 물러나라"

미얀마의 불교 승려 수백명이 9월 2일 무슬림 소수계 주민들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겠다는 대통령 방침을 적극 찬성하면서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었다.

지난 6월 미얀마 소수 종족 중 하나로 불교도들인 라키네 족과 무슬림계 소수파인 로힝야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 80명이 죽고 로힝야 수만명은 살던 곳에서 도망갔다.

이날 만달레이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승려들은 "대통령을 지지해 그대들의 모국인 미얀마를 구하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들고 있었다.

떼인 세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어떤 나라든 간에 로힝야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있다면 이들을 모두 보내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를 즉각 반박했다. 미얀마 사람들은 로힝야들을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이주자들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방글라데시 역시 이들을 자기나라 사람들이 아니라며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로힝야들은 국적이 없는 것이다.



미얀마 스님들이 무슬림을 추방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약 80만의 로힝야들이 미얀마에 살고 있는 것으로 유엔은 추정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인도 동부지역서 굽타시대 불상 발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 동부해안 자이뿌르(Jajpur) 라릿지리(Lalitgiri) 불교유적지 주변에서 최근 9월 6일 배수로를 파던 중 불상이 출토됐다.

500~700년경인 굽타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은 90여㎝× 65㎝ 크기로 한 손은 축복 내리는 손짓을, 다른 한 손은 연꽃을 들고 있다.

불상 뿐 아니라 라릿지리 근방 언덕 기슭에서는 수도원도 발견됐다. 30m×30m 규모의 크기로 4개 방이 있는 이 수도원은 왕의 후원으로 8세기경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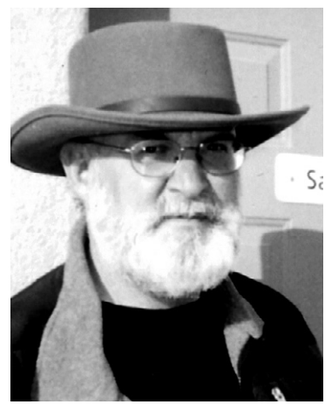
유물 수집가인 아닐 쿠마르 사말은 "발굴 작업을 통해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곳을 보존 · 관리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미국의 대표적 인도불교학자

세계의 불교학자(33)

리처드 헤이즈 美 뉴멕시코 주립대 교수



리처드 헤이즈(Richard P. Hayes · 67) 美 뉴멕시코 주립대 철학과 교수는 미국 내 대표적 인도불교학자로 원전에 대해 정밀하게 문헌학적 해석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5세기 이후 인도불교의 큰 흐름인 인식론과 논리학 언어학 분야를 통칭하는 '불교 브라마나 학파'를 중심적으로 연구한다.

헤이즈 교수는 초기불교 아함을 비롯해 구사 · 중론을 아우르는 문헌번역과 해석 작업 등을 진행해 오면서 서구 철학계에 주목받았다. 실제로 그의 논문들은 초기불교와, 구사론과 중론에 대한 것들이 적지 않다. 그의 이러한 연구 배경은 바로 산스크리트어를 중심어로 빨리어와 티베트어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뛰어난 원전어 실력에서 비롯됐다.

헤이즈 교수는 1972년 캐나다 칼튼대 아시아학과에서 종교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0여년간 그는 토론토대학에서 다양한 불교 원전언어와 인도불교학과 철학을 집중 공부하면서 토론토대 산스크리트 인도학과에서 석사를(1974년), 남아시아학과에서 박사학위(1982년)를 취득했다.

그는 박사 과정 중 일본 히로시마대에서 2년 동안 방문학자로 연구했고, 헤이즈 교수는 와더(A.K. Warder)교수로부터 빨리어를 배우고, 카츠라(Shoryu Katsura) 교수와 함께 고전 티베트어를 습득하고, 구사론과 중관 · 유식에 관한 논서들을 읽었다.

벤카타차리야(T.Venkatacharya)교수에게서 산스크리트사본 연구에 필수적인 파니니문법을 습득했으며, 마티랄(Bimal Krishna Matilal)교수 지도아래 인도학 전체의 논리학, 언어학을 체계적으로 배웠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일본 히로시마대서 2년간 방문학자로 연구한 결과 1988년 〈Dignaga on the interpretation of signs〉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헤이즈 교수는 디그나가의 언어이론을 중심으로 불교 언어학에 대해 집중 고찰했다. 디그나가 논서 중 언어에 관한 장을 현존하는 두 종류의 티베트어 판본을 참조로 비교 해석했으며, 불교뿐 아니라 인도철학 논서들에서 다양하게 인용되는 디그나가의 언어이론을 산스크리트 원전으로부터 추출해 정밀히 재구성했다.

이와 함께 불교 언어 이론이 초기불교 아함에서 출발해 어떻게 회의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는지, 왜 불교에서 언어가 기본적으로 유명론인가를 자신의 일관된 논리로 밝혀냈다.

이후 헤이즈 교수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디그나가를 계승하는 인도철학사 최고의 논사라고 일컬어지는 다르마끼르띠로 옮겨간다. 그는 이 작업을 통해 불교 인식론과 붓다와의 상관성이 잘 드러나는 인식론과, 논리학 부분을 집중 번역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헤이즈 교수는 자신의 활동이 이론적 사유 작업에만 머물렀다는 반성을 하게 되면서 불교수행을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다.

스리랑카와 티베트 출신 스님들로부터 불교 수행을 배운 그는 이후 오랜 시간동안 토론토의 한국사찰에서 사무(Samu)스님으로부터 한국선불교를 체험하게 된다.

이때 무불(無佛)이라는 법명을 수계 받은 헤이즈 교수는 "불법승이 조화된 불교

빨리 · 티베트어 자유롭게 해석
이론적 사유만 했다는 반성으로
사무스님 만나 수행, 법명은 無佛

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적 색채를 띠고 있는 불교를 체험한 후, 미국인으로서 불교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다.

이후 그의 불교학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로 발전한다. 하나는 미국 내에서 불교 수용 문제이다. 고민은 가장 미국적인 사고라고 하는 프래그머티즘 철학과 불교 브라마나 학파의 비교 연구로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두 방향의 연구 결실이 1998년에 발간된 〈No Land of Buddha〉이다.

헤이즈 교수의 대표 저서로는 〈Dignaga on the interpretation of sings〉과 〈Land of No Buddha: Reflections of a skeptical Buddhist〉 등이 있다. 또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학술지, 'Journal of Indian Philosophy'의 편집위원이다. 철학 백과사전(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의 인도, 티베트 철학 부분의 책임 집필, 편집을 담당하였다. 현재 'Macmillan Encyclopedia of Philosophy' 편집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수정기공 특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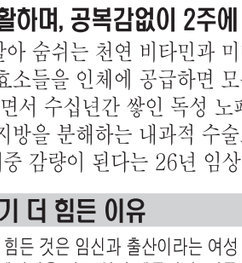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추석맞이 현물샵 상품 대잔치

秋夕

원목 고탁자

상판과 다리를 두껍게 제작하여 견고성이 탁월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원목 그대로의 나무결을 살려 나무 고유의 멋과 은은한 자연미를 선사합니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엄선 사용하였기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GS가구의 통원목 고탁자 입니다.
모던한 거실 풍경과 어우러진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즐거움을 드립니다.

원목 고탁자는 상판만 원목이며, 통판으로 제작되어진 제품입니다.
원목 통판으로 제작되어 여름과 겨울에 원목의 수축작용으로 갈라짐이 생기는데 이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갈라짐 현상은 제작상의 문제가 아닌 원목(나무)의 특성상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니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식탁, 응접실테이블,책상,아이들 공부택상, 다과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테이블

● 가격 : 180,000원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청도 王(반)건시

왕건시 30과 청도군 특산품 추석 선물세트

친환경 농산물로 수입저가 농산물과는 비교 하지마세요.

경북 청도군은 감이 씨가 없습니다. 간혹 씨가 있는제품이 있긴 하지만 거의 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씨가 없으니까 먹기가 편하시겠죠? 일단 드셔보시라니까요~

청도반시 꽃감으로 씨가 없고 당도가 높으며 인체에 유익한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버릴 것이 전혀 없는 청도가 자랑하는 특산물입니다. 미주지역 수출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품은 되도록이면 빨리 드시는게 좋구요. 냉동실에 넣어두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 가격 : 60,000원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 원산지 : 경상북도 청도 ● 제조사 : 동일농산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십장생 복 포대화상 도자기를 모셔둔 家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하는일 마다 만사형통하여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 (앞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선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 (높이 37Cm× 둘레 10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예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추석 맞이 선물 SET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할인가 ₩ 99,800원

1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벌)



세계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가지 보약보다 낮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 소품 연화 다기 5P



질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3 용달마 순금카드 1점

달마 순금카드를 남편 지갑에 넣고 다니게하면 늘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장미목 미니찻상





장미목에 우레탄 칠을 한 미니찻상입니다.
찻잔 받침없이 여러분이 담소 나누실때 매우 실용적입니다.

찻상이 오래사용해서 상처가 많이 나거나 찻상으로 쓰기 힘들때 화분받침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15,000원

가로 515㎜ × 세로 115㎜ × 높이 35㎜
3만원 미만 주문시 배송시 택배비 2,900원 별도.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발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 (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착각의 종교 기독교를 말하다

팔공산 동화사 산신의 비애


개신교 목사가 파랗게 낙서해 놓은 동화사 산신각 신령의 눈.

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는 순복음교회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동화사를 방문하셔서, 산신각에서 낙서를 하고 조사전의 다기에 오줌을 싸는 행사를 거행하셨다. 전세계적으로 기독교 목회자의 평소 행실이 그러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일이었다.

1816년 9월 영국의 해안 탐사선 알레스트호와 리라호가 충남 서천 마량진에 상륙, 조선인 첨사 조대복에게 영어성경을 전달한 이후로, 선교사인 칼 귀츨라프(Karl Gutzlaff · 1803~1851)가 조선에 기독교 전도를 위해 최초로 들어왔다.

그 이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 한국 기독교는 이제 한국 사회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로 사회각층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사들을 배출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특성

순복음 교회 목사 침입

산신 눈에 푸른색 낙서

한국 기독교 폐해 보여줘

에 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미풍양속이 파괴되고, 가족간의 결속이나 선량한 제도가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몇백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인디언들을 말살한 미국식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한국 기독교의 이교도와 이단에 대한 폭력성과 공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드디어 사회학자들은 한국기독교의 양대 특성을 배타성과 호전성으로 규정한다.

출가하고 난 후 작은 누이네 집에 서류를 하나 부탁해서 받으러 간 적이 있었다. 벨을 누르고 현관에 나타난 조카들은 어릴 적에 업어 키운 녀석들이었고, 10년만에 만났어도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눈치였다. 그러나 조카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주일학교 때 목사님이 부처님은 악마고 스님들은 악마의 제자들이라고 했기에 문을 못 연다고 했다.

기독교는 화목한 가족을 파괴하는 성향의 종교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스님들이 출가하는 이유는 생사고해에서 헤매는 가족들을 구제하려는 첫 번째 목적에서 그 출가의 근거를 둔다.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이 극락왕생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자신의 가족이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심장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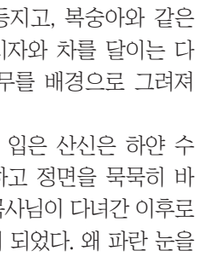
팔공산 동화사 산신각은 대웅전을 바라보고, 왼쪽에 대웅전보다 몇 자 이상 높은 위치에 모셔져 있다. 안에는 좌우로 신선들의 벽화가 있고, 정면에 폭포수와 호랑이를 등지고, 복숭아와 같은 과일을 바치는 시자와 차를 달이는 다동(茶童)이 소나무를 배경으로 그려져 있다.

붉은 대례복을 입은 산신은 하얀 수염을 거룩하게 하고 정면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녀간 이후로 파란 눈을 가지게 되었다. 왜 파란 눈을 그렸을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파란 눈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다수의 아랍인들이 검은 눈동자이기 때문이다.

파란눈은 기독교가 서구로 전파된 후에 서구의 안목과 자신들을 닮은 예수를 그리면서 생겨난 색깔이다. 파란 눈은 서양인을 대표하는 눈색깔이다. 목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가 파란눈을 지니고 있어서 불가의 산신을 파란눈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파란 눈을 그림으로써 이교도인 산신을 기독교화(化)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어리석고 미개한 이교도인 산신을 드디어 교화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파란눈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 그는 예수님을 서양인으로 착각한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착각의 종교처럼 보인다. 외국에서는 더 이상 내지 않는 십일조를 열심히 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면 모든 죄가 탕감되고, 눈이 파란 이들이 주로 천국 입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착각과 꿈속의 종교이다. 부디 깨어나길 빌어마지 않는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무각사서 인연의 '끝없는 바다' 만나다

비엔날레전시 11월 11일까지


무각사가 '2012광주비엔날레' 작품 전시장으로 선정됐다. 11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무각사는 만남과 인연을 주제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사진은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좌)과 세계적 작가 볼프강 라이프가 작품을 감상하는 장면.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가 세계적인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단장했다.

바로 '2012광주비엔날레' 작품 전시장으로 선정된 것. 11월 11일까지 열리는 무각사 전시는 만남과 인연을 주제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무각사에 설치된 명상적 작품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 독일 출신 세계적 작가 볼프강 라이프는 무각사 문화관 안에 '끝없는 바다'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절에서 재배한 쌀 더미들과 자신이 직접 모은 헤이즐넛 꽃가루를 쌓아 구성된다. 밀람과 우유, 꽃가루와 쌀은 생명과 재생을 상징한다. 그가 사용하는 단순한 재료와 행위들은 서구의 미니멀리즘을 연상시키기보다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사물들 간의 상호연관성이라는 전체론적인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도시의 번잡함으로부터 격리된 무각사의 고요한 공간에서는 이러한 우주적 관계들이 고동치는 소리를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다.

한국작가 우순옥은 광주 무각사 내에 있는 여덟 개의 작은 명상의 방들을 하나로 이어 구성한 '아주 작은 집-무각사(색의 방, 2012)'를 선보인다. 부분이 전체를 이루고 전체가 곧 부분이라는 불교 철학에 기반한 작업이다. 여덟 개의 방으로 통하는 창문이 스크린이 되어 그 위로 마치 빛이 호흡을 하듯 여덟 가지 다른 색들이 서

무각사 등 광주일대가 전시장

만남 · 인연 주제 禪 작품 선봬

세계적 독일 작가 볼프강라이프

꽃가루 쌀 등으로 생명 상징

서히 떠오르고 다시 사라진다. 여덟 가지 색은 일곱 무지개 색과 숫자 0을 의미하는 흰색으로 이루어진다. 창 하나에 하나의 색이 입혀져 각기 다른 빛깔의 여덟 개의 창을 이루고, 방 하나가 커다란 사물이 되어 빛을 머금게 된다. 무수히 피어오르는 빛나는 색들, 숨 쉬는 빛들, 겹겹이 솟아오르는 시간들, 천천히 떠오르고 사라지는 공백들, 공기처럼 교환하는 빛의 주름들,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환상들, 조금씩 다른 차이들, 그 순간과 여운들이 아름다운 빛과 색으로 나타난다.

이밖에도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시내 전역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본전시, 전시관 외에도 무각사를 비롯 광주극장, 대인시장, 서구문화센터, 광주시립미술관, 중외공원, 용봉생태습지(용봉제)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가 열린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광주의 지역적 맥락과 역사를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과 접목해 보여주고자 기획됐다. 이런 작품들은 미술용어로 장소특정적(Site-specific)이라고 설명된다. 올 광주비엔날레를 광주특정적(Gwangju-specific) 전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광주정신을 잘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극장에서는 미술가 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그누스 뱃토스의 영상작품 '스벤손일대기 생중계'가 상영된다. 작가는 작고한 친구 스벤손(S. Svensson)의 삶을 무성영화로 만들고 변사의 내레이션을 더한 광경을 비디오로 담았다.

또한 대인시장에서는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작가 길초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광주에서 발견한 이미지들로 콜라주, 페인팅, 조각, 사운드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collective bodies)'라는, 여러 매체를 사용한 작업을 선보인다. **정혜숙 기자**

초월로 향하는 면도날의 행렬

정산 스님 6회 개인전


정산 스님의 6회 개인전 '구스타프 말러의 몽유도원도'가 9월 24일까지 인사아트센터서 열린다. 사진은 면도날로 설치 작품을 작업중인 정산스님의 모습.

비운의 명곡으로만 알려졌던 말러의 교향곡이 불교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났다. 정산 스님의 6회 개인전 '구스타프 말러의 몽유도원도'가 9월 24일까지 인사아트센터 1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을 해석한 평면 및 설치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말러의 교향곡 9번 을 해석한 '구스타프 말러의 몽유도원도'는 세로 2m 40cm에 가로 11m가 넘는 대작이다. 대형 화면을 약 3cm 간격으로 빼곡하게 채운 것은 다름 아닌 면도날 약 4만 여개다. 각각의 면도날은 매니큐어와 인조보석 등 여러 재료들로 치장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연출된 이미지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인상을 차용했다. '몽유도원도'가 현실을 지나 동경하던 이상향으로 들어가는 신비롭고 몽환적인 여행이라면, 교향곡9번 역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정원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정산 스님은 이번 작품을 위해 주식회사 도루코에서 면도날을 협찬받는 등 총 7만여개의 면도날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말러의 '9번 교향곡'을 표현하는데, 하필 왜 면

구스타프 말러의 몽유도원도

면도날 7만개로 표현해 눈길

9월 24일까지 인사아트서

도날이 필요했던 걸까?

"면도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칼에 대해 터부시 하는 인간들의 심리를 들여다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가 들면 죽음의 칼이요, 요리사가 들면 맛있는 칼이고, 의사에겐 생명의 칼이잖아요? 마치 말로의 음악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보다는 어떤 이에겐 죽음의 음률이 장엄하고 희망어린 메시지로도 들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면도날은 결코 죽음의 칼이 아니라 초월의 세계로 다가가는 문이라고 말한다. "말러의 9번 교향곡을 해석하는데 면도날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교적인 면에선 이미 죽음은 또 다른 시작으로 해석하며, 열반은 좋고 나쁨의 경계를 넘어선 초월의 세계로 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성냥갑을 활용한 대형작품도 함께 등장한다. (02)736-102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연꽃과 LED조명과의 만남!

수공예 창작 연꽃조명

생화와 흡사한 고무소재의 고급연꽃에 LED조명을 넣었습니다.
주로 법당에 부처님 좌우로 놓여지며, 재가불자님 가정에, 수행 하시는 스님법전에 놓여집니다.
고무재질의 고급 연꽃으로서 생화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며 연꽃, 연밥, 연잎, 극락조로 잘 조화된 100% 수공예 창작품입니다.

연등과는 달리 연꽃 자체에 LED조명이 켜지므로 신비롭고 영험함을 더해줍니다.
세속이 찌들고 더럽다 하여도 제한몸 정갈히 살고픈 불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처염상정 연꽃에 등 밝히시어 부디 성불 하십시오.




꽃과조명 LED ART FLOWER
NAVER 카페 꽃과 조명
cafe.naver.com/flowernled

주문제작문의 010-2692-4632 / 010-9231-1192
네이버카페 꽃과조명 (http://cafe.naver.com/flowernled)
제휴쇼핑몰 불교TV(btn mall) / 사찰몰 종로불교 / 모란불교용품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파고다의 황금 빛 파노라마를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5일	(목,토요일 출발)	특가 899,000 (유류세 별도)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짜익티오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7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스님들 추천 상품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 중국 지장도량 (구황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 12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인도성지순례 - 6명이상 출발 가능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9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네팔 인도 불교8대성지 완전정복 13일. 대한항공 직항. 월요일 출발가능 / 요금문의
* 인도상품 다양합니다. 문의주세요
▣[실론티의 나라]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 189만원. 금-일요일 출발
▣라오스 성지순례 6일 / 토요일 출발 /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혜거 합장

“불교음악 사찰 밖으로 나와야 한다”



임란경 씨 ‘민속음악 속의 불교’ 불교평론에 발표

“불교는 한민족의 정신과 사상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왔고 전통예술문화의 형성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음악학자 임란경 씨〈사진〉는 2012년 불교평론 가을호 ‘민속 음악 속의 불교’ 논문을 통해 불교와 민속음악이 상호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피고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 논했다.

임씨는 “이 논문은 조선시대 예인집단이 사라진 현대에서, 불교와 민속음악의 관계를 고민해 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불교 민중 음악은 단순히 불교적 가사를 음악에 차용했느냐 승가에 소속된 예인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로 나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교 민중 음악의 생성 배경과 의미 및 그 전승 형태 등을 살펴보고, 현대불교 음악에 어떻게 계승 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자 했다”고 취지를 전한다.

상여소리 굿음악 양주 별산대 놀이는 기존 민중음악에 불교적 가사를 차용했다. 강원도의 ‘미리 타불’ 소리, 전남지방 ‘관음보살’ 등 상여소리의 연행 행태를 살펴보면 불교적 내세관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굿음악인 무가는 불교적 색채가 강한 사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교 용어인 ‘염불’은 굿음악 속에서 전용되고 있는데, 굿판에서 연주하는 다양한 무가(巫歌)와 무악(巫樂)을 염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소리 회심곡 등은 불교 집단에 의해서 불려지던 노래다. 임씨는 “선소리는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해 연행되는 잡가 중 서서하는 소리로 경·서도 선소리 산타령과 남도 선소리로 구분된다. 특히, 산타령은 사당패 소리를 기반으로 발생한 것이다. 19세기 말에 유랑예인이었던 사당패에게서 붙박이 예인인 선소리패로 산타령 담당층의 전이가 일어나면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재가에서 불사(佛事)를 연행한 집단인 사당패는 ‘재가불교집단’이라 할 수 있다. 사당패의 활동 모습이 몇몇 사찰의 감로탱화에 묘사되기도 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유랑예인집단의 전통연희는 외줄타기, 쌍줄타기, 솟대타기, 쌍줄백이(솟대타기의 일종), 땅재주, 방울 쳐올리기, 탈춤, 접시돌리기, 인형극, 사당춤, 검무 등이 있다.

민속음악, 미타·관음 염불신앙 내포

불교의례음악에 뿌리둔 ‘회심곡’

상엿소리 등에서도 차용

불교의 민중 접근 노력의 반증

회심곡은 절 안에서 범패승이 부를 때는 4·4조 율격의 불교 가사를 엇모리장단과 같은 일정한 장단에 맞춰 불려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굿중패, 절걸립패, 탁발승 등에 의해 음악적 어법을 조금 달리하여 절 밖에서도 연행되었는데 이를 따로 염불회심곡이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절 안에서 불교음악의 한 곡으로 연행되었던 회심곡이 절 밖에서 연행되면서 세속화하고 민속음악의 레퍼토리로 변해간다. 이런 변화는 사당패가 불교적 역할을 상실하고 쇠퇴하던 시점에서 시작된다.



불교음악은 다양한 형태로 민중과 호흡해 왔다. 조선시대 불사를 연행한 사당패는 재가불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림은 대흥사 감로탱화 중 ‘유랑예인의 쌍줄타기’ 모습.

임 씨는 “조선조 숭유억불정책으로 사당패가 날로 쇠퇴하면서 이들의 시주로 운영해왔던 사찰의 재정은 기울어갔다. 이에 가무의 기능을 가진 승려가 무리를 이루어 민간에 나가 시주를 걷게 되었다. 이들은 가무에 능한 승려들로, 그 무리를 굿중패라 한다. 굿중패는 다양한 기예로써 건립에 나섰지만 이 또한 일제의 사찰령에 의해 쇠퇴하고 만다”고 설명한다.

사당패와 굿중패가 쇠퇴하자 불교 사찰에서는 사찰 운영 자금을 충당할 방법이 막히게 됐다. 이에 사찰에서는 자구책으로 낭걸립패를 고용해 시주를 걷었다. 사찰에 고용되어 불사를 하는 낭걸립패는 다른 걸립패와 변별하기 위해 따로 절걸립패라 일컬어졌다. 이 절걸립패 또한 사당패처럼 재가불교집단의 성격을 갖는다.

절걸립패는 건립을 할 때 고사염불을 하였는데, 고사염불은 고사선염불과 뒷염불로 구성된다. 뒷염불에는 평염불, 덕담, 반멱이, 오조염불 등이 있다. 이 중 평염불은 탁발승들이 탁발하며 부르게 되면서 근래에는 탁발염불의 대표적인 곡이 되었다.

임씨는 “탁발승에 의해 성창된 평염불에서 염불회심곡이 나왔으며 이것을 경·서도 명창들이 수용하여 성창한 것이 현행 경기민요 회심곡이다. 불가에 뿌리를 둔 회심곡은 불교의례음악(화청회심곡)에서 탁발음악(염불회심곡)으로, 그리고 다시 세속음악(경기민요 회심곡)으로 그 영역을 넓혀갔다. 또한 기층음악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민요에까지 그 영향을 끼쳤다. 특히, 민요 중 상여소리에서는 회심곡을 차용한 대목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탁발승이 회심곡을 부르며 탁발하는 것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부정적인 소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조선불교통사〉 이능화의 글을 인용해 설명했다. ‘오직 신세가 가난하고 도력 또한 보잘 것 없는 이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들은 속칭 땡땡이중이라 하였는데 꽹과리 소리를 본떠 이름한 것이다’

불교적 요소가 가미된 민속음악의 바탕에는 불교의 내세관과 미타신앙, 관음신앙이 짙게 깔려있다. 대중 지향적인 불교 혹은 염불신앙 중심의 불교가 이러한 민속음악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불교에 뿌리를 둔 민속음악의 현존은 불교가 민중 가까이에 다가가려고 했던 노력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속음악은 불교가 민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편으로 작용해 왔다.

임씨는 한국불교음악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큰 맥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불교음악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족성이 담겨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통을 이을 수 있는 현대적 의미의 불교 음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탕카로 만나는 ‘티베트의 유산’

화정박물관 특별전…내년 3월 17일까지

티베트의 역사와 불교문화, 그리고 토착종교와 불교의 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2013년 3월 17일까지 평창동 화정박물관에서 특별전 ‘티베트의 유산’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화정박물관 대표 소장품인 탕카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탕카는 티베트의 불교회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티베트 불교문화 유산의 정수이기도 하다. 더불어 탕카의 제작 및 티베트의 불교문화 중 널리 알려져 있는 ‘티베트 사자의 서’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탕카 54점을 중심으로 티베트 공예품 31점도 선보인다. 2003년 대영박물관 런던 전시를 재구성하는 한편, 이후 수집한 새로운 작품들을 첨가한 것.

‘아바다나 깔빠라따’는 부처님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에 기초한 그림이다. 각종 사건들을 주인공의 전세(前世)에 있어서의 선악의 행위와 연결시켜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 설화집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부처님의 전생을 얘기한 본생담 〈자타카〉와는 달리 전세 선악의 업에 따른 과보를 받는 주인공이 반드시 부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불제자나 재가신자인 경우가 많다. 티베트에서는 일반 신도를 교화하는 교재로 널리 보급되었다.

문수보살의 화신 바즈라바이라바는 ‘죽음을 파괴하는 자’, ‘야만타카(죽음의 신인 야마의 적이라는 의미)’라고도 한다. 티베트의 전설에 의하면, 죽음의 신인 야마가 티베트 지방을 휩쓸며 괴롭히자 사람들이 문수보살에게 간절히 기도한다. 이에 응답한 문수보살이 강력하고 용맹스러운 야만타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모습을 바즈라바이라바라 한다. 야마는 바즈라바이라바의 힘에 굴복되어 티베트 불교의 수호신으로 편입됐고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

이밖에도 티베트 불교 닝마파의 시조이자 〈티베트 사자의 서〉의 저자로 알려진 ‘빠드마삼바바(Padma sambhava)’와 13세기 무렵 티베트 불교 싸꺄파의 지도자로, 몽고제국의 왕족에게 티베트 불교를 최초로 전파한 인물인 싸꺄 빤디따 (Saskya Pandita, 1182-1251) 등이 대표 전시 작품이다. (02)2075-0122

정혜숙 기자



‘티베트의 유산’전이 2013년 3월 17일까지 평창동 화정박물관에서 특별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탕카 54점 등이 선보인다.

삼매와 예술이 만나 한국의 美 알려

한국사경연구회 뉴욕展 개최

김경호 등 24명 작품 전시

한국사경연구회(회장 김경호)가 뉴욕 플러싱 타운홀갤러리 초대전을 갖는다. 10월 12일~12월 30일까지 80일간 열리는 전시는 ‘삼매(SAMADHI) +예술(ART) = 사경(SAKYEONG)’이라는 제목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사경연구회 회장 외길 김경호 작가 외 23명이 전시에 참여, 금니사경, 은니사경, 주묵사경, 묵서사경, 만다라사경, 공필사경, 자수사경, 민화사경 등 전통사경에서 현대사경까지 총 망라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회장 김경호 작가는 8개월에 걸쳐 완성한 최신작 ‘감지금니 7층보탑 묘법연화경 견보탑품’을 선보인다.

김 씨는 “사경은 인간 정신이 최고로 응축된 삼매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탄생할 수 없는 예술이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미국 현지 언론인들과 예술인들에게 한국 전통사경의 아름다움, 삼매의 경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번 전시가 한국 전통사경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말했다.



한국사경연구회가 10월 12일 뉴욕 플러싱타운홀갤러리 초대전을 갖는다. 사진은 회장 김경호 작가의 사경 장면.

부대행사로는 ▷10월 12일 한국전통사경의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특강 ▷10월 12일 한국 전통 금니사경의 제작 시연회 ▷10월 13일 김경호 회장 작품 영인본 사인회 ▷10월 14일 한국사경연구회 참여 작가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 한국의 사경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정혜숙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세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백설공주’는 왕비의 열등감이 만들어 낸 것



이야기 테라피
이시스 지음
이야기 나무 펴냄
1만7천원


우리는 누구나 성장통을 겪으며 살아간다. 어쩌면 성장통은 나이와 무관하게 평생 동거해야 하는 벗인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에 읽었거나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이 ‘치유’의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이야기다.

먼 옛날 어느 왕궁에서 왕비가 공주를 낳았다. 공주를 낳자마자 왕비는 죽었고, 새 왕비가 공주를 키우게 됐다. 그런데 새 왕비는 날로 아름다워지는 공주의 미모를 질투한다. 백설공주 이야기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너무나 유명한 질문과 대답. “왕비님도 아름다우시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백설공주입니다.” 왕비는 거울 앞에서 울부짖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백설공주는 내 손으로 죽였어. 벌써 네 번째야. 이번에는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었어. 이젠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 백설공주가 죽었는데도 왜 여전히 백설공주가 제일 아름답다는 거지? 그리고 왜 백설공주는 매번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잠시 후 거울이 대답한다.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만드는 것은 바로 왕비님의 질투와 열등감입니다. 왕비님 자신이 늙고 추하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한 왕비님은 백설공주를 계속 만들어 낼 것입니다. 왕비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백설공주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질투와 열등감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다.

책은 ‘햇빛섬 자연치유 명상센터’를 운영하며, 10년간 심리상담사로 일해온 저자가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치유의 힘이 있음을 경험했던 이야기 24가지를 가려 뽑아 정리한 것이다. 경쟁의 압박에 시달려 지치고 숨이 막힐 때,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미를 알 수 없어 답답할 때,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 불안하고 외로울 때, 사랑받지 못해 서러울 때, 성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떠올리고 곱씹어보면 지혜로운 해답을 주는 이야기와 해설 그리고 실천 가이드로 구성해 독자 스스로가 치유와 성장의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질투에 사로잡혀 백설공주를 죽이는 데만 급급했던 왕비는 마지막에 드디어 바른 질문을 던진다. “왜 백설공주를 계속 죽였는데도 그녀는 계속 살아있는 것이냐?”는 것. 이에 거울 역시 바른 대답을 해준다.

여러 형태의 ‘이야기’로 마음 치유
몸엔 영양분, 마음엔 이야기 필요

“백설공주는 당신의 마음이 자꾸만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설에 이어 책은 실천 가이드를 제시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고, 주인공을 바꿔 보는 훈련을 해 보자. 1. 현재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명료하게 정리한다. 2. 자신이 원하는 상황으로 재배치해 본다. 3. 역전되는 스토리를 써 본다. 4. 구성해 본 이야기를 주인공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까. 생각해 보고 그렇게 행동한다. 5. 실천해 본 느낌을 글로 적어 정리한다.”

책은 ‘경쟁’, ‘나의 존재의미’, ‘집중과 몰입’, ‘사랑’, ‘성공’, ‘행복’ 여섯 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남보다 조건이 나빠서 속상한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삶의 외로움을 끝내고 싶은 사람 등 상황에 알맞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설명해주고 치유해준다. 또한 스스로의 문제에 직면하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치유와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청소년 스스로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언자가 되어 주어야 할 선생님과 부모들이 아이들과 자연스러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는 힘겨움 속에서 책을 붙잡은 독자들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을 넘어서는 힘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곧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가 부족한 것이다.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따라 나아간다. 내 마음 속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또한 마음속 이야기가 시련을 넘어서는 이야기라면 시련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질병이 찾아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가 부족하면 살아갈 힘이 약해진다. 그때는 필요한 단어나 문장을 더하여 주고 스토리를 더하여 주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성장통을 겪으며 살아간다. 어쩌면 성장통은 나이와 무관하게 평생 동거해야 하는 벗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비마다 누군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다. 그때 ‘이야기’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스승이자 친구가 되어 줄 것이고 또 언제라도 기꺼이 삶의 방향을 일러 줄 것이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가 겪어 낸 이야기들이 자라서 또 누군가에게 치유와 성장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5~9/11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산사는 깊다	지안	불광출판사
7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8	불교공부사전	곽철환	운주사
9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주경	마음의숲
10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방경일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중모리, 자진모리…휘모리장단으로 불러 낸 이순신

이순신歌

김영옥 지음 | SNS 펴냄 | 1만4천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역사, ‘이순신.’ 초라한 숫자의 배로 헤아릴 수 없는 적선들을 침몰시킨,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명장 이순신. 한 국가의 운명을 보전하기 위해 외롭게 바다 위를 걸었던 영웅 이순신. 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동편제 〈흥보가〉 이수자인 국악소리가 김영옥이 이순신을 노래한 창작 판소리 완창본이다.

“금생여수 장히 좋다. 전라좌도 호남 여수 산형수색 곱거니와 인심풍광 더욱 좋다.…” 중모리 장단의 단가 금생여수로 〈이순신가〉는 시작된다. 〈이순신가〉는 이순신의 출생에서부터 학문 과정, 사람됨, 유년기, 청년기, 과거 급제, 벼슬길과 시련기, 옥포해전, 부산해전, 한산도 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 그리고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노래하고 있다. 또한 이순신의 애국, 애민, 효 정신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자 했으며 임진왜란의 유풍(流風)으로 알려진 ‘강강술래’, 흥겹고 부분적으로는 청중과 함께할 수 있는 민요 대목을 넣어 창자와 청중의 관계가 밀접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노랫말과 아니리, 도섭, 시조창, 민요를 조화롭게 구성했고, 판소리 노랫말에 따른 다양한 악조 구성과 노랫말에 따른 장단 변화를 역동적으로 표현했으며,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 변화를 현실감 있게 소리 맺고 정중동의 다양한 전투 상황을 주목하여 그 효용성을 극대화 했다. 〈이순신가〉는 6년의 산고를 겪었다. 여섯 번의 완창 공연을 거치면서 변화되고 다듬어져 완성됐다.

충무공 이순신을 향한 관심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꾸준히 이순신 관련 행사를 유치하고, 이순신의 이름을 딴 여러 시설물들을 조성하며,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한 공연이나 드라마가 신선한 관점에서 기획되고, 잊힐 새라 관련 도서가 출간된다. 그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인물이나 리더십을 주제로 한 발언에서라면 이순신은 빠지지 않는다. 그야말로 불멸의, 불멸하는 인간인 셈이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불러내게 하는가?

“분열되어 어지러운 시대를 겪으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고하고, 이순신은 세상의 시련과 마주해 스스로를 극복해 냈다.” 저자는 〈이순신가〉를 작창하게 된 계기에 대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인간 이순신의 삶에서 ‘완전한 인간’의 모범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단지 ‘성웅’이라는 한 단면으로 그를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순신은 담력과 도량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고, 뜻과 지조가 단단하고 확고했다. 몸가짐이 법도 있는 학자와 같이 검속했고, 효도와 우애는 천성적으로 타고났으며, 집안에서의 행실이 돈독했다. 죄 없이 옥에 갇혔을 때조차 죽고 사는 일로 마음이 일절 흔들리지 않았다. 또한 지혜와 계책을 내면 한 가지도 빠짐이 없었고, 적의 정세를 헤아리기가 귀신과 같았다. 저자는 〈이순신가〉로써 ‘인간 이순신’의 삶을 건져 올렸다. 저자 김영옥은 ‘이순신가’를 가지고 판소리 퓨전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천 년을 이어 온 마음 닦기의 핵심 비결

마음 닦기 일곱 가지 핵심 비결

딜고 켄쩨 린포체 지음 | 체링 최잘 옮김
여래 펴냄 | 1만2천원



금강승 불교를 대표하는 시인이며 학자이고 대승과 마하무드라와 족첸의 스승이며 티베트와 전 세계 수천 명의 제자들에게 존경받았던 딜고 켄쩨 린포체(1910~1991)의 마음 닦기를 소개한다.

책은 딜고 켄쩨 린포체가 1990년 여름, 프랑스 방문 중에 설한 법문 중에서 한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가르침은 인도의 스승이신 아띠사(982~1054)와 팁트의 스승 톡메 상포(1295~1369)의 ‘마음 닦기’에 관한 것이다. 책이 소개하는 딜고 켄쩨 린포체의 가르침은 로종 법문집으로, 티베트불교의 모든 학파에서 소중하게 전승되는 귀중한 가르침이다. ‘로’는 마음이라는 뜻이며, ‘종’은 길들인다는 뜻이다. ‘마음 닦기’로 번역할 수 있다. ‘마음 닦기’의 가르침은 티베트불교의 전체 수행 중에서도 정수 중의 정수이고, 지난 2500년 동안 모든 불교국가 큰 스승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오늘날 경전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따로 공부할 시간을 내기는 더 어려울 정도로 바쁜 사회가 됐다. 책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일곱 가지 마음 닦기 비결을 소개한다. 적은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보살의 수행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 가르침에는 관상(觀想)으로 자신과 타인의 행복과 고통을 교환하는 수행인 똥렌 수행(Tonglen)에서부터 피할 수 없는 삶의 역경들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도구로 변환하는 법에 대한 조언들을 담고 있다. 이 가르침이 처음 티베트에 전해진 것은 11세기이며 위대한 인도의 스승이신 아띠샤에 의해서다. 아띠샤의 주요 제자인 돔뙨빠가 그것을 체까와 예세 도제에게 전했으며 그 때서야 비로소 최초로 글의 형식으로 기록되게 됐다. 1장에서는 티베트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수행 중의 하나인 스승께 헌신을 익혀가는 예비수행법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보리심, 3장에서는 삶의 역경과 고통을 보리심의 길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적용법을, 4장에서는 모든 삶을 수행에 적용하는 법을, 5장에서는 자아와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6장에서는 마음 닦기의 서약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주체적인 마음 닦기의 지침들과 보리심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마음 닦기’ 가르침이 주는 유익함은 우리의 크나큰 바램들을 만족시켜주고, 그것을 선한 마음과 관대함을 익힐 수 있고 해탈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역자는 〈마음 닦기 일곱 가지 핵심 비결〉에서 습관이 되지 않아 지켜지지 않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삼독의 행위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하게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천 년이 넘게 인도와 티베트의 스승들로 끊이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소중한 로종의 가르침을 우리 자신의 존재 속에다 하나 둘씩 적용해 보라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명상 등 마음훈련 하면 뇌 바꿀 수 있어"



이타적 인간의 뇌

에릭호프만 지음
장현갑 옮김
불광 펴냄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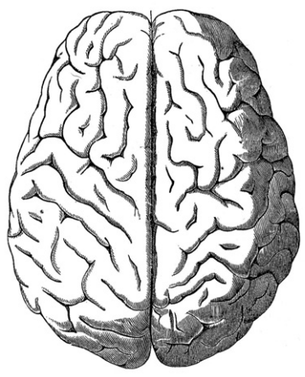
하버드 대학의 신경생리학자 질 테일러에게는 특이하게도 뇌의 좌반구에만 뇌졸중이 왔다. 그녀는 멀쩡한 우반구를 통해 좌반구가 죽어가는 과정과 수술 후 좌반구가 살아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하고서 그 이야기를 전한다. 그에 따르면 좌반구와 우반구는 세계를 완전히 다르게 경험한다.

우반구로만 세계를 경험할 때 가장 큰 특징은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시간과 공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분리해서 바라본다. 하지만 우반구로만 바라보면 시간이 멈추고, 물리적 경계가 사라지고, 좋고 나쁨이 없고, 언어가 소멸된 에너지 세계만 있을 뿐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여기'만 있는 그 세계는 완벽하고 충만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좌반구가 회복한 후 질 테일러는 이렇게 회상했다. "정보를 조직하는 능력에 관한 한, 좌반구는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도구 중 하나다. 나의 좌반구는 모든 것을 범주화하고 조직하고 설명하고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기능은 분명 인류의 생존을 위해 진화되었음이 분명하다. 구분 할 수 없다면 위험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좌반구의 이런 기능이 지나칠 때 생존이란 목적을 넘어서 '나만을 위한 세계'를 만들려 든다는 점이다. 이럴 때 우반구적 세계는 위축되고, 우리는 세계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리된 존재가 되고 만다.

이 책의 저자 에릭 호프만이 보기에 현재 우리는 좌반구가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동료 인간과 인간 외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이,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착취와 파괴를 일삼는 것이 우리 문명의 현주소다. 저자는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뇌 과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밝히려고 이 책을 썼다. 그래선지 초점이 자연스레 좌반구 지배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으로 맞춰진다.

그렇다면 좌반구를 버리고 우반구로 돌아가야 할까? 저자는 북미 인디언과 문명화 이전 단계의 원주민, 12세 이하 어린아이에게서 보이는 세계관이 전형적인 우반구 의식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우반구 의식만으로는 현대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다. 그래서 저자는 좌우반구의 균형 회복을 주문한다. 이는 현대의 위기가 이기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우반구 의식 회복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며, 좌반구의 문제 해결 능력이 수반되어야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저자는 전두엽을 고도로 활성화시킬 것도 주문한다. 활성화된 전두엽에서는 뇌파 가운데 가장 빠른 40Hz의 감마파가 방출된다. 감마파는 입력된 모든 감각



인식 패러다임 바꿀 뇌 진화 탐구
좌우반구 균형돼야 복잡한 문제 해결
창의성과 몰입, 새 세계 구상에 필수

정보들을 결합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전두엽에서 감마파가 방출될 때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감마파처럼 매우 빠른 주파수 대역에서는 감각 정보들의 다중화(multiplexing) 속도가 무진장 빨라서 고해상도(HD) 지각이 가능해진다.

좌우반구가 균형을 회복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창의성이 높아지고 몰입을 잘하게 된다. 창의성은 모두 직관적인데, "총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작동하는 우반구에서 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한, 좌반구의 기계적인 지성은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에 더해서 주의를 지시하고 집중을 유지하는 전두엽의 지원이 있어야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몰입이란 당면 과제에 완전히 몰두하여 시공간을 잊고 그 과제와 무관한 자극은 모두 무시하는 상태를 일컫는데, 시공간의 사라짐은 우반구 의식의 요소이고 집중은 전두엽 활성화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창의성과 몰입은 모두 새로운 인식 패러다임과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는 데 긴요한 인간 의식의 특성이다.

좌우반구가 균형을 회복하고 전두엽이 고도로 활성화된 상태, 즉 제4의 진화에 이른 뇌의 의식을 저자는 "각성한 의식"이라고 부른다. 이 상태에 이르면 모든 것이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보이고, 끊임없는 판단과 비판이 사라지며, 흔들림 없는 평화와 기쁨을 느끼고, 사랑과 배려가 솟아나며, 자신이 지구상의 모든 것과 하나임을 인식하고, 물질주의와 경쟁에서 물러나 즐거움과 배려와 공감에 다가선다. 뉴로피드백을 이용한 알파파 훈련이나 감마파 훈련,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훈련법을 통하면 더 쉽게 다다를 수 있는 이 각성한 의식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 지금 우리는 "우반구에 숨어 있는 진정한 평화, 기쁨, 연민의 그 드넓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하면 "이 행성을 우리가 소망해 마지않는 애정이 넘치고 평화로운 곳으로 탈바꿈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각 분야 1인자들의 평생 외길 이야기

일인자-장인 50선

김종찬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1만7천원





기사중 가장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많은 이들이 '인터뷰'라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다. 사람이니 만큼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긴 시간을 들어도 흥미롭다.

더군다나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1인자의 풀 스토리는 더욱 관심을 끈다.

30여 년간 기자로 활동해 온 불교신문사 김종찬씨가 우리나라 각계 각 분야의 일인자 50인 이야기를 한권의 책으로 엮어 펴냈다. 자연요리가 '임지호'를 비롯해 제과 명장 '권상범', 독학박사 자동차 명장 1호 '박병일', 도자기 명장 '서광수', 코미디언 '송해' 등 이름만 대면 모두 고개가 끄덕여 지는 당대 1인자들이다.

저자는 오랜 취재경험때문인지 인터뷰 방식도 톡특했다. 우선 인터뷰어들이 아무리 유명인이고 일가를 이룬이들이라도 대등한 관계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야 기자의 탐구가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인터뷰어도 지나쳤던 자신의 속내를 가식없이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중 메이저 자동차 회사 출신도 아니면서 정비공으로 출발, 독학으로 끊임없이 독서하며 향학열로 세계최초 급발진 재현 실험에 성공한 박병일 자동차 명장. 장인분야 그랜드 슬램까지 달성한 그의 삶은 그 자체가 드라마였다. 우리에게 지금은 널리 알려진 토종가수 '장사익'. 녹록지 않은 인생에는 그의 구성진 노래 가락 만큼 걸쭉한 깊이가 느껴진다. 25년간 15개 직장을 전전하며 45세의 늦은 나이로 데뷔한 장씨. 대중 앞에서 토해내는 그의 과감한 창법과 작렬하는 음색은 마치 음악의 경계를 초월한 느낌을 준다. 저자는 그 비결로 장씨가 무대에 서면 죽을 힘을 다해 부르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선우용녀, 강태기, 장사익 등 유명인들을 인터뷰하기도 했지만, 숨어 있는 많은 장인을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모래밭서 진주 찾는 것처럼 뛰어난 감각으로 고집쟁이, 외골수로 평생 자기 일에만 몰두한 인물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을 조명한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세속적 의미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장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숱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장인 반열에 오른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과 잔잔한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무엇보다 이 책에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은 새로운 직업에 눈뜰 수 있도록 다양한 장인들을 발굴했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요리사와 제과 명장, 자동차 명장도 있고,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장황사, 화각장, 칠기장, 두석장, 필장, 주물 장인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화기획가, 생사

예술, 건축 등 장인 50명 만나
그들 성공비결 자신 일에 몰두
역경 이겨낸 이야기 큰 감동

의례학과 외래교수도 등장시킨다.

수없이 많은 이들을 인터뷰한 저자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일에 깊이 몰두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소중하고 값진 교훈을 준다. 직업에는 분명 귀천이 없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라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수십년을 몰두 한다면 누구나 그 방면서 일가를 이루거나 장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보면 참된 직업관과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법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자는 "모든 걸 새롭게 보려는 우리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취재 기법을 활용해 장인들의 삶과 성공 비법등을 소개하고자 했다"며 "일인자의 세계를 들춰보는 일은 일반인들의 생활에 충분한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묵조선 역사, 수행법 밝힌 개론서

묵조선

김호귀 지음 | 도피안사 펴냄 | 1만5천원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묵조선〉은 좁게 말하면 수많은 선 수행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보다 넓게 말하면 선법 자체로서 그 전체이다. 그것은 선법의 성격을 온전하게 형성하여 선 그자체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선의 직접적인 원류는 석가모니로부터 비롯되었다. 곧 석가모니의 깨침과 더불어 출현하였다. 때문에 선은 불교와 함께 형성되었고 발전되었다. 이로써 선은 시대가 지나면서 다양한 수행방식 및 문화를 도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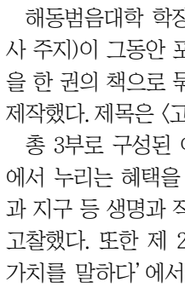
그 간화선과 묵조선은 모두 조사선풍을 실천하는 점에서는 그 출현배경과 목적이 동일하다. 그러나 그 실천 방식은 다르다. 간화선의 경우 번뇌를 다스리고 깨침에 도달하려는 것으로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라면, 묵조선의 경우는 좌선수행을 통하여 본래자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묵조의 방법이다. 때문에 묵조선은 선수행의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에 속하는 명칭이다. 그러면서도 묵조선은 선수행의 방식을 넘어서 선의 본래성격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한다는 점에서 그냥 선이기도 하다.

묵조선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조선의 원류에 해당하는 선종의 역사, 묵조선이 창출된 조동종의 출현과 그 종지, 그리고 묵조선에서 내세우는 선의 성격과 교의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선종의 역사에 대해서는 석가모니로부터 비롯된 사선과 팔정을 비롯하여 소승과 대승의 선법의 특징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묵조선은 조동종이 9세기 중반에 형성된 이후 약 3백여 년 이후에 송대에서 창출된 선법이다. 이런 까닭에 여기에서 말하는 '묵조선'은 소의 중국 선종의 조동종 계통에서 12세기에 발생한 수행방식이다. 이 책은 바로 그 묵조선에 대한 역사와 사상과 수행에 대한 개론서이다.

대은 스님 40년 포교 정리한 법어집

고전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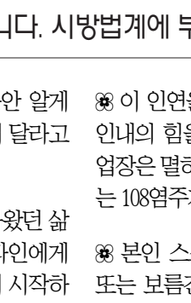
대은 스님 지음 | 여래기획 | 법보시용



"어떤 사람이 그 뿌리의 근원을 끊으면 모든 흐름이 다 쉬느니라. 해탈을 구하는 이가 삼독을 돌려 삼취정계로 삼고 여섯 가지 적을 돌려 육바라밀로 만들면 자연히 모든 고통을 여의게 된다."

해동범음대학 학장 대은 스님(인천 용천사 주지)이 그동안 포교하면서 법문한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대중 법보시용으로 제작했다. 제목은 〈고전의 지혜〉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제1부 '자연에서 누리는 혜택을 말하다' 편에서는 자연과 지구 등 생명과 직결된 생면존중 사상을 고찰했다. 또한 제 2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치를 말하다'에서는 초심자들이 갖춰야 할 예절과 인과법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제 3부 '문화속의 불교, 불교에 담긴 문화를 말하다' 편에서는 연등을 밝히는 이유와 연등축제의 연원, 그리고 범패와 영산재 등 한국전통문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대은 스님

특히 제 3부중 '범패'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범음대학에서 수십년에 걸친 강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어 이해하기 쉽다.

저자인 대은 스님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범패는 종교적 신앙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신구의(身口意)를 통해 어우러지는 염불수행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범패는 불교 사물과 함께 어우러져 작법과 더불어 시청각적으로 장엄화한 불교의식으로 발전됐고, 또한 교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수행방법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은 스님은 9월 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출판기념법회를 열고 〈고전의 지혜〉를 무료 법보시했다. **김주일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법사들이 천축으로 간 까닭은?

佛典 구하고 불적순례하려고 '죽음 불사'



펠리오가 발견한 〈왕오천축국전〉 원본(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당시 구법승들의 목숨을 건 순례의 결과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았다.

6·7세기 인도 구법행 계속 이어져
한국 출신 구법인 12名
백제 겸익, 고구려 현유 외 모두 신라인
본국 귀국 경우 드물어, 중도 입적 많아

혜초 남인도 밀교승 금강지에 불교 배워
광저우서 바닷길로 인도 동해안 도착
파미르 고원 넘어 장안 돌아와
혜초는 불공삼장의 두번째 제자

1. 불전 입수와 불적 순례

인도에서 비롯된 불교는 동서로 뻗어나갔다. 이웃나라들은 셀 수 없는 전법승과 상인들에 의해 불법을 접할 수 있었다. 동시에 헬 수 없는 구법승들에 의해 불법의 감로수를 마실 수 있었다. 인도 서역의 전법승과 달리 동아시아의 구법승들은 불전 입수와 불적 순례가 구도의 목표였다. 그들은 오직 진리에 대한 갈증에서 출발했다. 더러는 자기의 좁은 나라를 벗어나기 위해 구법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나라를 벗어나는 순간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다. 고래로부터 인도를 향해 길을 떠난 고승들은 약 860여명으로 집계된다. 이들 중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대략 165명이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들은 695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들 동아시아 구법승들의 대열에는 한국인들도 있었다. 이들 860여명의 구법승들에는 10세기에 계업(繼業)의 동행자 300명과 행근(行勤)의 동행자 156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들이 인도로 간 길은 어떤 루트일까? 일찍이 청말 민국초의 중국 계몽철학자인 양계초(梁啓超)는 구법인이 이용하여 인도로 간 루트를 시기와 지역별로 나누어 여섯 갈래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1) 해로인 ① 광주(廣州) 출항 루트, ② 안남(安南) 출항 루트, ③) 청도(青島) 출항 루트, 2) 서역 갈반타로(渴槃陀路)인 A) 소륵(疏勒, 카슈카르) 경유, B) 자합(子合, 카라샤르) 경유, C) 사차(沙車, 야르칸드) 경유, 3) 서역 우전 - 계빈로(罽賓路), 4) 서역 천산북로(天山北路), 5) 티베트-네팔로(路), 6) 전면로(滇緬路) 등이다. 그런데 인도에 대한 관심과 인도의 범본 불전을 입수하기 위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5세기에는 117인, 7세기에 124인이 이 길을 떠났던 반면 6세기에 20인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양계초는 당시 인도 불교사상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고, 돌궐의 득세로 인도로 가는 육상 교통로가 그전만큼 안전하지 않았으며, 중국 불교계가 나름의 이해와 성장에 눈을 돌렸다고 해명하였다.

반면 7세기에는 다시 구법인이 124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것은 인도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났음을 시사해 준다. 의정(義淨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691)인도로 건너간 한국인 승려들에 대해서는 에서 9명의 일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에 실린 55명의 구법 고승 속에는 9명의 한국인이 수록되어 있다.

일연은 이 저술을 인용하여 "아리야발마(阿離耶跋摩)와 그를 계승하여 혜업(惠業), 현태(玄泰), 구본(求本), 현각(玄恪), 혜륜(惠輪), 현유(玄遊)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명의 법사가 모두 자신을 잊고 불법을 좇아 천축에 가서 부처의 가르침을 배웠다"고 적었다. 이어 "아리야발마는 신라 사람인데 처음에는 불교(正教)를 구하러 일찍이 중국에 들어갔다가 성인의 자취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가 생겼다. 정관 연간(627~649)에 장안을 떠나 오천축에 이르러 나란타사(那蘭陀寺)에 있으면서 율론(律論)을 많이 열람하고 불경을 커다란 나뭇잎에 베껴 썼다.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기약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 절에서 무상한 70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고 하였다.

또 일연은 "하지만 어떤 이는 중도에서 일찍 죽거나 그 절에 머물렀지만, 끝내 신라[鷄貴]나 당나라로 돌아온 이가 없었고, 현태법사만이 당나라에 돌아왔으나 또한 죽은 곳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축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구구타예설라(矩矩吒磬說羅)라고 부르니, 구구타는 닭[鷄]이란 말이요, 예설라는 존귀함[貴]을 말하는 것이다. 그 나라 사람들이 전하여 말하기를 '신라는 닭의 신[鷄神]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깃털을 머리에 꽂아 장식한다' 고 하였다.

『삼국유사』「의해」편의 '귀축제사' 조는 신라가 혜초 당시 계림(鷄林)으로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천축에는 '계귀' 혹은 '구구타예설라' 로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 돈황 벽화에서 보이는 조우관을 쓴 신하들처럼 고구려 이래 우리 선조들이 머리에 새의 깃털을 꽂아 장식한 관[鳥羽冠]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2. 한국 출신 구법인

이름을 알 수 있는 백제와 신라 및 고구려 출신의 인도 및 서역의 구법인은 모두 12인이다. 백제의 겸익(謙益)과 고구려의 현유(玄遊)를 제외하면 나머지 10인은 모두 신라인이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구법인은 아리야발마, 혜업, 현태, 구본, 현각, 혜륜, 실명 승 2인 이외에 혜초(慧超), 무루(無漏), 원표(元表), 오진(悟眞) 등이다. 백제의 겸익은 『미륵불광사사적』(彌勒佛光寺事蹟)에 따르면 성왕 4년(526) 바닷길로 인도로 가서 중인도의 상나나대율사에서 수학하고 인도 승려 배달다(倍達多) 삼장과 함께 아비담장(阿毘曇藏)과 오부 율문(律文)을 가지고 백제로 돌아와 번역하였다. 고구려의 현유는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의하면 스승인 중국인 승철(僧哲)과 함께 스리랑카에 가서 그곳에 머무르다가 입적하였다. 각훈의 『해동고승전』에는 동인도로 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아마도 그곳에서 스승과 헤어져 스리랑카로 간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의 아리야발마는 정관 연간에 장안을 출발한 뒤 총령을 넘어 인도에 건너갔다. 나란타사에 머물며 율론을 열람하고 불경을 사경한 뒤 그곳에 머물다 입적하였다. 현각은 현조(玄照)와 함께 인도에 가서 보드가야를 방문한 뒤 인도에서 병사했다고 한다. 혜업은 당 정관 연간(627~649)에 인도로 건너가 날란다에 머물며 진제가 번역한 『섭대승론』을 필사했으며 그곳에서 입적하였다. 의정은 날란다에서 그의 필사본 『섭대승론』을 발견하였다. 현태는 영휘 연간(650~655)에 티베트와 네팔을 거쳐 인도에 들렀으며 귀환 도중 토욕혼(土浴渾)까지 갔다가 다시 보드가야로 돌아와 중국으로 귀국했다고 한다. 각훈의 『해동고승전』에는 그가 상카시야에 있는 삼도보계(三道寶階)를 보았다고 쓰고 있지만 그 전거를 알 수는 없다.

혜륜은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의하면 신라에서 인도 순례를 위하여 중국으로 왔다가 당 인덕 연간(麟德, 664~665)에 현조와 함께 인도에 갔다고 한다. 그는 바이샬리의 토하라 승사(僧寺)에서 의정을 만났지만 그 이후 자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구본은 『대당서역구법고승전』의 서두에만 나오는 신라승이다.

원표는 『송고승전』에 의하면 신라(사실은 고구려 유민?)출신이지만 당나라 천보 연간(742~756)에 중국에 갔다가 서역(于?)으로 가서 성적(聖跡)에 참배하고 중국에 돌아와 복건성(福建省)의 지제산(支提山) 석굴에 머물렀다고 한다. 『보림사사적』(1457~1464년 편찬)에 그가 장흥의 보림사를 세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흥의 천관사를 세운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중국에 머물다가 다시 신라로 돌아와 보림사와 천관사 등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루는 『송고승전』에 의하면 신라 성덕왕의 왕자 출신으로 팔탑(八塔)에 경배하기 위해 인도로 가다 총령의 하란(賀蘭)에 머물다가 입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라승 2인은 의정의 『대당구법고승전』에 의하면 7세기 후반에 바닷길로 인도로 가다가 파로사(婆魯師)에서 입적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진은 『대당청룡사삼조공봉대덕행장』(大唐青龍寺三朝供奉大德行狀)에 의하면 당 정원 5년(789)에 중국을 떠나 중인도에 가서 『대비로사나경』을 구해 돌아오다가 티베트에서 입적하였다. 신라 출신의 대표적인 구법승인 혜초(慧超 또는 惠超, 704년~787년)는 어린 시절부터 좁은 신라를 떠나 세계인으로 살려고 유학을 시도하였다.

3. 혜초의 인도 · 둔황 순례

혜초는 신라 성덕왕 18년(719)에 신라를 떠나 당나라로 건너가 남인도(南印度)의 밀교승(密教僧) 금강지(金剛智)에게 불도를 배웠다. 성덕왕 22(723)년에 당나라 광저우[廣州]에 가서 인도의 승려 금강지(金剛智)의 제자가 된 뒤, 그의 권유로 바닷길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근교의 나신국(裸身國)을 경유하여 인도 동해안에 도착하였다. 이어 인도의 사대 영탑(靈塔) 등의 여러 성적(聖蹟)을 순례하고, 오천축국(五天竺國) 등 40여 개국을 거쳐 파미르고원을 넘었다. 727년경(성덕왕 26)에 당나라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가 있는 쿠차[龜玆]를 거쳐 당나라 장안(長安)으로 돌아왔다.

그는 중국의 광저우(廣州)에서 시작해 수마트라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파미르 고원 부근과 카슈가르(喀什, 당시의 疏勒國)와 쿠차(庫車, 龜玆國)를 마지막으로 하는 8년간의 여행을 기록한 『왕오천축국전』 3권을 남겼다.

740년(효성왕 5)부터 당나라 장안(長安) 천복사(薦福寺)의 도량(道場)에서 금강지와 함께 『대승유가금강성해만주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大乘瑜伽金剛性海曼珠實利千臂千鉢大教王經)이라는 밀교(密教) 경전의 한역에 착수하였으나 이듬해 금강지가 입적하자 중단되었다. 불공의 입적 뒤 동학들과 함께 황제에게 글을 올려, 스승의 장례 때 보여준 은혜에 감사하며 아울러 스승이 세웠던 사찰을 존속시켜 달라고 청원했다.

773년경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금강지의 제자 불공(不空)으로부터 이 경의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787년까지 중국의 오대산(五臺山, 3058미터)의 금강지 대공삼장(大空三藏)의 역장(譯場)에서 54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불경을 번역하였다. 그는 불공삼장(不空三藏) 6대 제자의 한 사람으로 당나라에서도 이름을 떨쳤으며 불공은 유서에서 자신의 법을 이은 6대 제자 가운데 2번째로 혜초를 꼽았다.

그가 쓴 인도 기행문인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은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았다. 1906~1909년 사이에 프랑스의 학자 폴 펠리오(Pelliot)가 중국 간쑤성 지방을 탐사하다가 둔황 석굴에서 구매한 앞뒤가 떨어진 책 2권을 발견하였다. 현재 이 기행문은 8세기 동서교류사 연구에 있어 너무나 귀중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밀교승 혜초는 단지 불공(不空, Amoghavajra, 705~774) 삼장의 제자라는 것만 알려졌었다. 그의 여행기가 발견된 지 7년 뒤인 1915년에 일본 학자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는 당대 밀교 최성기의 중요 문헌인 원조(圓照)의 『대종조증사공대판정광지삼장화상표제집』(代宗朝贈司空大瓣正廣智三藏和尚表制集) 속에 수록되어 있는 사료에 근거하여 밀교승 혜초가 신라인으로서 유년기에 당나라에 들어가 중국 밀종(密宗)의 시조인 금강지(金剛智, Vajrabodhi, 671~741) 삼장을 사사하고 불경의 한역에 지대한 공헌을 한 신라인이었음을 고증해 내었다. 그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슬람 문명권을 다녀온 사람이자 기행가라는 점에서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연은 천축으로 떠난 여러 법사들을 기리며 "천축땅은 멀고 멀어 만첩산이 가려 있건만/ 가련하게 유학사들 힘들여서 오르네/ 몇 번이나 저 달 따라 외로운 배 보냈건만/ 구름 따라 석장 짚고 오는 이 못 보았네"라며 안까까워 하고 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무함마드 깐수(정수일), 『신라 · 서역 교역사』(단대출판부, 1992).
이주형,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유적』(사회평론, 2009)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여 주고받는 말마다 악惡을 막아 듣는 이에게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 잡보장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초 능 력 개 발

초능력 개발 비법 전수
– 초능력 개발사업 하실 분에 한함
– 신내림에 실패하신 분에 한함
오십견 치료 (1~5회 완치)
치료비법전수
010-5822-076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수익사업 공고

1. 연못장 가족화분 납골묘 설치
   개별납골 그 위에 연꽃을 심어드림
   500~2천만원(유리뚜껑은 선택)
2. 기일제사 안하고 명절제사만 지낼 집
3. 육지 부주갱이 나물 튀각용. 효소 주문용
   울릉도 부지갱이와 같은 종류 부주갱이 나물
4. 전자납골당 500~1천만원 활용 1년

041)544-4441 한학선원
충남 아산시 도고선 신통길 192-21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적은 보시금으로

의식에 필요한
사물 다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법고,태징,북,목탁,요령 등
010-3657-6302

계룡산 천황사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무병,정신병,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41)855-3492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천명리강의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번뇌의 굴레에서 해탈을 생활의 고통을 벗어나는 생명의 글문 비방

• 불치병상담(병명이 안나오는병)
• 야토피 질환 해탈법 • 산소탈이나 풍수탈 해탈
• 사업성취, 소원성취 상담 • 가정사 상담
• 생활속에 활력을 찾는 달마상
(작은곳에서 큰 희망의 기쁨을 안으시길)
대한불교 불정사 도정스님
051)558-5585
010-4593-2918

천도재, 49재, 바라무, 점안식 등 아주 저렴하게 집전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010-4193-1707
철학 1개월 수강으로
개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함.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신도시 지역)
010-4136-9514

암자 관리하면서 기도 정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포항)
010-4905-569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010-7139-8631
010-9127-6331

주 지 구 함

스님이 없는 절이나
가난한 사찰을 무보시로
도와드립니다
(사주,관상,주역 능통한 63세 비구스님)
010-3895-4858
탄성스님

염불 잘하는 스님이 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49재,바라,
나비, 회심곡
010-6569-1010

새로 창건한 사찰을 맡아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및 불심 가득한 보살님을 모십니다

(전주지역)
010-9647-0723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양도공고

한국불교 법인
불교교육 법인
우리불교 법인
현대불교 법인
불교통합 법인
대승불교 법인
대중불교 법인
011-412-8040 법광

심 와 기 도

• 소원을 성취시키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연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1-764-3661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1-527-063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부처님, 삼존불 2자반 필요하신 분.

무료로 보시합니다.
010-5042-1003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 051)721-6444

비구니 행자(예비스님) 모집

1. 부처님 공부는 큰 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철저한 행자(예비스님). 자율교육
3. 2년 공부 후 주지발령
4. 학력, 나이에 관계없음

010-2669-1800

풍수지리 명사

(샛별을 보고득력) 명당은 땅 팔자 사람 팔자가 많아야 발복이 됩니다. 음택, 양택 땅 사기전, 묘 쓰기전, 이사 가기전에 좋은 꿈을 꾸어야지 명당입니다. 아파트도 명당이 있습니다.
사업 안되는 분, 건강이 안 좋은 분, 자녀 진로 선택, 상호 이름을 지어 주며는 본인이 좋은 꿈을 꿉니다. 기도는 본인한테 맞는 기도를 해야지 효과가 빠릅니다. 명당을 잡아 준 사람은 모두 다 좋은 꿈을 꿉니다.
소백산 스님 018-413-3377 (명당 다량 확보)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010-3618-6061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http://cafe.daum.net/indelamang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은 장소, 시간, 남녀노소 어느것 하나에도 구애됨 없는 우리불교인 모두의 인터넷 사이버법당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값 15,000원 / 410면 / 전화 063)643-7285
◉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보고 듣고 배우는 –

첨단 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경전을 학습 할 수 있는
[경전 학습기]를 판매할 소호 사업자를 모십니다.
아이센스 경전학습기 판매사업부
02)2061-9924-5

주지 직인 공고

• 사찰명 : 국청사
• 주 지 : 해 성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803번지

상기사찰은 2012년 9월 14일부로 주지 직인을 새로 공고하오니, 2012년 9월 14일 이전 직인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011-212-9810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 한 불 교 조 계 종 고 려 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과정 : 1년 (서울, 경기 의식 기준)
1.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2. 천도의식 : 49제,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3. 각종 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 개강일 : 2012년 10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1.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경우에 따라 요일 변경)
2. 수 업 료 : 매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3. 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4. 접수 연락처 : 054)762-5888 / 팩스 054)762-5889
5. 강주스님 : 현공스님 (010-4783-0077)
6. 접수기간 : 상시모집 (전화접수 가능)
7. 자 격 : 종단, 승속 관계 없이 가능

한 국 불 교 태 고 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

불자정보 26 | 906호 | 전면광고

2012년 9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	• 위치 : 부산	• 위치 : 강원 영월
• 법당 : 23(목조)	• 법당 : 50평	• 법당 : 15평
• 요사 : 80평	• 요사 : 40평	• 요사 : 35평
• 부지 : 19,000	• 부지 : 2,500평	• 부지 : 640평
• 가액 : 9억	• 가액 : 9억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 7억 (은행 3억 가능)

바다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부지 : 약 2500평
- 목조법당 32평(아파트 대단지 인접)
- 공양간 50평, 요사채, 대종각 외 건물 5동
- 주차장 300평, 텃밭 1200평
- 총가액: 13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 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포교원안내

- 대구시 대명동 단독주택 독채
- 법당, 방3,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1년 선세
- 시설비 비품 일체 1800만원
- 완벽한 시설
- 몸만 오면 바로 법회

011-458-2955

전 통 사 찰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 11억 예산
(서울 – 안양 – **의왕**)
010-5466-3321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 평수:1층 40평요사채.방3칸
- 2층 : 40평 법당
- 완벽한시설로써법회 즉시가능 (몸만오시면됨)
- 보증금 : 52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 650만원

010-9963-1770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1159번지 팔공산 입구
- 대지:200평 건평:1층2층 합60평 2층:법당 2층쑥찜질방
- 일주문 마당넓음 삼성각.용왕당.
- 심야보일러.대체의학 장소최고.
- 전세가액:3천만원(시설.권리금없음)
- 몸만오시면됨
- 내비주소-경산시 와촌면 1159-2

010-9945-20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 대지 980여평
- 임법당, 요사채 1~2층. 50평
- 별채 10평. 연못 1개
- 가액: 3억 5천만원

010-8660-9449
011-779-956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유원지 부근
- 임야 : 3만 5천평
- 현재 한옥 2채 현재 임법당 운영
- 사찰 및 연수원 양로원 적합
- KT서원주역 10분거리 청량리역에서 30분거리 • 통신광케이블 도로포장
- 평당 7만원 절충가능

010-2554-67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8평, 법당 23평
- 요사 37평, 지하암반수
- 전철 2014년 개통예정 (인터넷 참고)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 3,000만원포함)

010-3194-3738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 밑
- 대지 195평, 도심 포교 최적지
- 법당 40평(장엄완벽) 방3개
- 후원채 20평, 화장실 따로
- 보증금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4천만원(1억 들었음)

010-7181-679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 대지 : 사유지
- 건평 : 40평 (산신각 :8평)
- 해수관음 :8자 달마포상 :5자
- (건물 4동)
- 건물양도가액 : 8천만원(답사후결정)
- 현장보고 몸만 들어와서 기도도량

010- 6358-0034

별장식 암자안내

- 위치: 충북 충주시
- 대지 286평, 별장 45평
- 법당, 조립식 17평
- 자동문 차고, 조경최상
- 산자락에 위치, 남향
- 가액: 3억 1천만원
- 대출 1억 4천 포함
- 오후 1시 이후 연락바람

010-3693-53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북구 칠성시장 부근
- 상가건물 4층, 65평,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칠성, 용왕, 영가단, 법당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시설: 도시가스, 아주 깨끗함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0-2542-22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오류동역 남부
- 약 1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300만원(절충불가)
- 철학원 운영중입니다
- 급 안내 합니다

011-729-6011

토굴·암자 안내

- 경북 영천시 화산면 부개리
- 대지 143평
- 건물 : 법당 가능 8평, 요사채 6평
- 주차장완비
- 대숲 좋음, 비구니스님 환영
- 가액: 4천 8백만원(꼭 사실분)

054)336-0890
010-2772-565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 대지 980여평
- 임법당, 요사채 1~2층. 50평
- 별채 10평. 연못 1개
- 가액: 3억 5천만원

010-8660-9449
011-779-956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유원지 부근
- 임야 : 3만 5천평
- 현재 한옥 2채 현재 임법당 운영
- 사찰 및 연수원 양로원 적합
- KT서원주역 10분거리 청량리역에서 30분거리 • 통신광케이블 도로포장
- 평당 7만원 절충가능

010-2554-67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8평, 법당 23평
- 요사 37평, 지하암반수
- 전철 2014년 개통예정 (인터넷 참고)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 3,000만원포함)

010-3194-3738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 밑
- 대지 195평, 도심 포교 최적지
- 법당 40평(장엄완벽) 방3개
- 후원채 20평, 화장실 따로
- 보증금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4천만원(1억 들었음)

010-7181-6794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시 집현면
- 부지 250평
- 삼존불, 법당, 요사 모든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없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0-8315-2100

포교원안내

- 위치:경남 거제 시내
- 3층 건물중 2층 50평
- 접견실, 부엌
- 보증금 1500만원, 월 90만원
- 6자부처님 8불
- 시설비 1000만원(답사후 절충가능)
- 앰프시설, 에어컨 2대
- 스님. 몸만 오시면 됨

010-4344-9222

토굴 임법당(급)

- 위치 : 경북 의성 IC 10분 거리
- 대지 93평, 방2, 법당, 공양간
- 황토 목조(약 100년 보수완료
- 상단불,좌우원불,토불,주련 기타 집기일체 양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급 가액: 3천 5백만원

010-4113-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사찰 대 80평
- 법당, 삼성각, 공양간, 요사채
- 산자락에 위치, 법회 민원 없음
- 약간의 텃밭
- 가액: 2억 5천만원

010-5346-4138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예천군 상리 소재
- 엽개울과 연못이있는 청정지역 총 1,000평(대지 포함)
- 매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도 있음
- 가액 : 3억 (꼭 필요한분만에게 가격조절 가능)

011-861-6252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북구 칠성시장 부근
- 상가건물 4층, 65평,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칠성, 용왕, 영가단, 법당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시설: 도시가스, 아주 깨끗함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0-2542-22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오류동역 남부
- 약 1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300만원(절충불가)
- 철학원 운영중입니다
- 급 안내 합니다

011-729-6011

토굴·암자 안내

- 경북 영천시 화산면 부개리
- 대지 143평
- 건물 : 법당 가능 8평, 요사채 6평
- 주차장완비
- 대숲 좋음, 비구니스님 환영
- 가액: 4천 8백만원(꼭 사실분)

054)336-0890
010-2772-56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외터미널 부근 마산역 5분거리 시장안
- 평수 : 15평, 2층
- 보증금 200만원 월 22만원
- 시설비 300만원

010-5042-1003

농가주택안내

- 위치 : 경북영양
- 마을이 한적한곳
- 농가주택 2동
- 36평, 대지 124평
- 가액: 4천 5백만원
- 텃밭 확보 가능
- 현지 방문하는 분께 양도

010-8899-889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 대지 1천평, 법당 50평
- 가액: 13억
- 산세가 좋고 계곡 물이 철철 흐름

010-9798-1091
영주불사

인법당안내

- 위치: 경남 합천(인법당) 700평
- 대지-300평, 건평 30평
- 답 400평(텃밭사용)
- 요사채 2평(공양간) 방1칸, 주방 입식 1칸
- 산신각, 용왕당, 소나무정각 2채
- 계곡이 사시사철 흐름(산가제있음)
- 농협대출 5000만원 안고
- 1억 1500만원(별장으로도 좋음)
- 민가와 떨어져 있음 (꼭 하실분 전화요)

010-8794-125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및 요사 2채,
- 옆산, 옆하천 마당 잔디, 연못, 후양복지 최고, 넓은 공간, 각종 정원수 유실수
- 옆산 사용가능
- 총 3575평
- 평당 7만 5천원

010-8826-6012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 총 대지 200평
- 건평 30평
- 가액: 전세 5천만원

041)841-9423
010-9266-148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및 요사 2채,
- 옆산, 옆하천 마당 잔디, 연못, 후양복지 최고, 넓은 공간, 각종 정원수 유실수
- 옆산 사용가능
- 총 3575평
- 평당 7만 5천원

010-8826-601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외터미널 부근 마산역 5분거리 시장안
- 평수 : 15평, 2층
- 보증금 200만원 월 22만원
- 시설비 300만원

010-5042-1003

포 교 원 안 내

- 대구 경북도청 부근 도심최적지
- 평수: 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개)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만원 엘리베이터 有
-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아미타 삼존불, 지장, 삼성, 신중
- 사천왕탱화, 500인등
-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 갖춘 법당

010-9598-9117

땅(급)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리면 고곡리 (고령IC 근접 30m)
- 사찰터로 최적임

010-5626-6001
서 숙 광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 근교
- 부지 500평 • 주차용이
- 대웅전, 극락전, 목조, 요사채
-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절
- 가액: 5억 3천만원 (대출1억4천포함)
- 현지 답사 후 조절 가능
- 미분양납골320기, 1기분양가 250만원

010-5262-5545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관광버스6대 주차 충분
- 방10개,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 찰 안 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505평 반(등기필)
- 와가법당 20평 2층 (단청필)
- 요사채 38평
- 창고 15평, 옥외화장실, 창고 6평 (6층석탑 제주석)
- 특히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방문시 절충요

010-7517-7037

포교원안내

- 위치 : 제주(제주시내)
- 100평가량 (법당 50평가량)
- 법당, 방3, 샤워실2,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1년세 3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5035-5831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가
- 대지 80평, 요사채 실평수 30평
- 법당 15평
- 가액: 1억 7천만원
- 주인직접, 절충가능함
- 전세, 월세도 가능합니다
- 꼭 하실분 전화주세요

011-792-896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180(팔도시장내)
- 평수 : 35평 법당 . 소불 100불
- 에어콘완비, 즉시입주가능

전세 : 1,000만원, 월세 : 35만원
시설비 : 1,200만원

010- 8664-422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전통사찰	• 위치 : 서울
• 부지 : 2000평	• 부지 : 120평
• 법당 : 35평	• 법당 : 50평
• 요사 : 100평	• 요사 : 50평
• 가액 : 20억 7천	• 가액 : 18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삼보기획 사찰 안내

삼보기획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충남	• 위치 : 서울
• 법당 : 2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5평	• 요사 : 60평
• 부지 : 56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2억	• 가액 : 5억5천

1억정도에서 사찰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 무관
법률, 세무, 무료, 상담 환영, 양도,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구입하실분 연락주세요

삼보기획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사찰(급)안내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 871-2
- 총평수 1700평중 대지 5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포함 70평, 준공필
- 사찰앞 계곡이 수려하고 청정지역임
- 가액: 3억 5천만원
- 타건물 교환 환영
- 스님 건강관계로 (급)양도

055)572-0405
011-9850-8208

사 찰 안 내

- 신비의 동굴이 있는 사찰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 맥반석산 임야 8500평, 대지 2000평
- 맥반석동굴법당 110평, 70평
- 대웅전, 30평, 산신각 6평
- 맥반석돌탑 108기,공양간 40평,방5개
- 사철 계곡물 철철 흘러감
- 총가액: 12억 6천만원. 주변시세 평당 22만원

011-809-7434 주인직접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산 13-1, 산14-1
- 22,150평, 1/2지분, 평단 8,500만원
- 구인사 근접, 부동산 사절

- 위치: 경기 연천군 연천읍 사일 산 47번지
- 3937평 평당 6만원
- 사찰터 및 가정묘 최고적지 야산

010-3893-1749 / 010-2301-1749

사 찰 안 내

- 위치 : 국립공원(유달산) 내
- 별장식 암자 • 평수 200여평
- 시문화재 등재
- 특징: 전설과 영험이 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5천만원(조절가능)

011-623-4487
011-229-41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선사 APT 정문앞
- 지하철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70평
- 전세 800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2)481-3635
010-3714-3635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이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요인이며, 사이를 떼어놓는 독이며, 서로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칼날이고,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다. – 아함경 –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데이비드 해밀턴 (유기화학 박사)

중 이미지 힐링

'이미지 힐링'은 마음의 약…무의식과 소통

아픈 부분을 이미지화 해라

신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깨닫고 치료를 받으면 나타날 효과에 대해 지각하는 것이 치유의 원동력이 된다. 이 때문에 뇌와 신체는 어떤 화학물질이 필요한지,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돼야 하는지, 화학물질이 어디로 보내져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체의 일부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강한 효과가 있다. 토마스라는 젊은 단거리 선수는 어깨 수술을 받고 한 시즌 동안 훈련을 쉬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근육 힘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체육관에 가는 생각을 하면서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는 상상을 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기 전에 했던 것만큼이나 빠르고 건강하게 훈련받을 수 있게 됐다. 짧은 시간 내에 그는 처음으로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됐다.

최근 연구 결과 단지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와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기량이 향상될 수 있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 경기를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골프 실력이 향상된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면 그 분야의 대가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

흥미롭게도 연구 결과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혀 근육도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더욱 그렇다. 만약 당신이 어떤 동작이 수월하지 않은데 누군가가 그 동작을 완벽하게 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동작이 더 수월해지고 필요한 근육을 관장하는 부위의 뇌 지도가 더 확장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만약 당신이 아플 때 사람들이 완벽한 건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건강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신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재생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말한다면 효과가 더욱 좋을 것이다. 우리가 아플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잘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라

이미지 유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상처 홍반도 훨씬 적게 생겼다. 상처 홍반은 상처 주변이 빨갛게 되는 것인데, 종종 감염이나 염증이 나타난다. 실제로 이미지 유도 치료는 상처 치유를 빠르게 한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이미지힐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통증이 관련된 경우 어떤 이미지힐링 요법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만약 이미지힐링을 하는 것이 괴롭다면 멈춰야 한다. 행복한 상상을 함으로써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상 이미지는 서서히 행복한 이미지로 교체되고 결국 스트레스와 통증이 줄어들게 된다. 이미지화하는 능력은 자기 치유의 성공에도 영향을 준다.

신시내티 의과대학의 물리치료 및 재활부서의 연구진이 2007년에 수행한 한 연구에서는 6주동안 뇌졸중 환자들이 동작을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연구에 이미지힐링 요법이 사용됐다. 뇌졸중 환자의 회복에 이미지힐링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미지힐링은 신체 운동과 병행하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미지힐링은 약물치료나 치료법 대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미지힐링 요법

이미지힐링을 이용한 치료의 핵심은 몸속에서 진행되는 치유 과정을 상상하는 데 있다.

자기 몸 속에 아주 작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나는 이것을 '미니 미(Mini-Me)'라고 부른다.

'미니 미'로서 당신은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베인 곳이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미니 미'가 벌어진 상처를 잡아당겨 붙이는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다. 아니면 상상의 줄이나 마법의 실로 벌어진 상처를 잘 꿰매어 흔적도 없이 아물게 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하는 사이에 베인 상처 부근의 세포들이 자극을 받고 상처 부위를 관장하는 뇌의 영역도 자극을 받게 된다. 그 부위의 뇌 지도가 바뀌는 것이다. 뇌는 진짜로 존재하는 것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미지힐링 덕분에 치료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또한 당신은 상처가 완벽히 아물거라고 상상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효과가 있다. 상처가 잘 아물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만약 흉터가 남을 것을 두려워하면, 치료 과정이 우리가 상상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종양이 혹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치유 장면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종양을 얼음으로 된 혹으로 생각하고 그 얼음 혹이 일정하게 녹아내리는 장면을 계속 상상하는 것이다. 이런 장면을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그때마다 혹이 점점 작아지거나 아예 녹아 없어지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 부위에 집중하면 해당 신체 부위와 그 부위와 관련된 뇌의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뇌와 몸 전체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을 집중했던 신체 부위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사소한 일에 매달리곤 한다. '이 통증이 사라지면 좋을텐데'라는 생각은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을 제거하는 것과 다르다. 무언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신체의 재생력 믿어야 '성공'
운동 · 약물치료 병행해야
'mini-me' 상상, 뇌영역 자극
자신과 화해하고 사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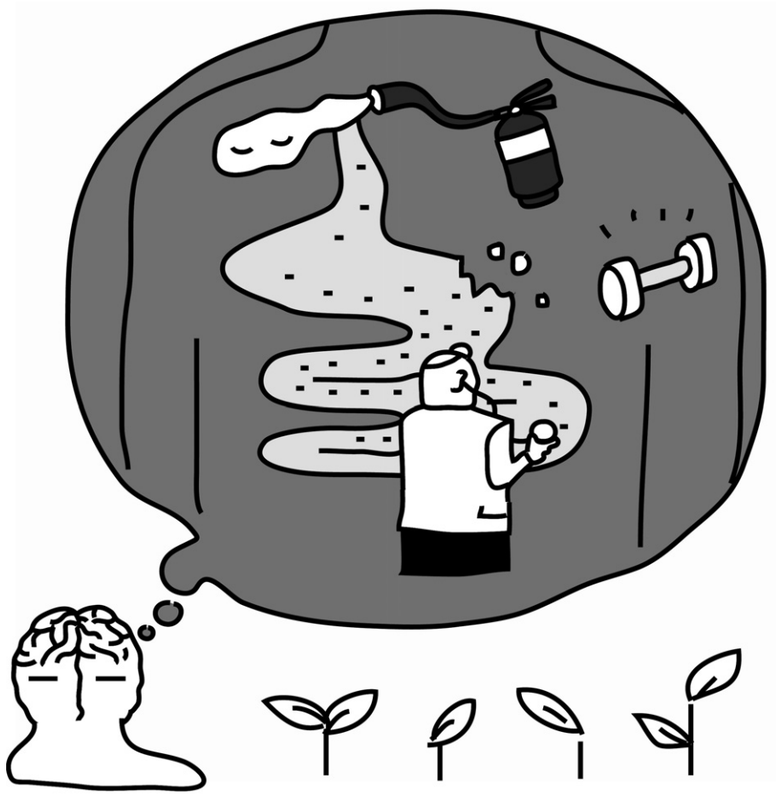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미지힐링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왕도는 없다. 그저 자신에게 효과적인 이미지힐링이 있을 뿐이다. 더 큰 위력을 느끼려면 상상의 장면을 더 실감 나게 만들면 된다. 이 방법은 자신이 이미지 힐링에 서툰 경우 도움이 된다.

규칙적 이미지힐링

규칙적으로 이미지힐링을 하라. 하루 세 번 씩 마음의 약을 먹는 것이다. 아침, 점심, 저녁에 이미지힐링을 하라. 원한다면 더 자주 해도 좋다.

하루나 이틀 만에 낫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라. 때로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몇 주나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어떤 질환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회복이 필요한지, 또 회복 가능성을 얼마나 믿는지에 따라 치료에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자기 몸이나 세포, 장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 우선 이완 상태로 들어가라. 이완 상태에서는 마치 최면술사처럼 자신의 무의식과 소통하게 된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의 변화를 도모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령 병든 장기가 특정 음식의 영양소가 필요하다든지, 몸에 해로운 물질을 함유한 특정 음식은 끊어야 한다고 말해 줄 수도 있다. 어쩌면 금연이나 금주를 하거나 약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줄 수도 있다.

사람들은 병이 나으면 특정한 약이나 식단의 변화, 아니면 개인적 상황의 변화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회의론자들은 이런 사실을 들어 이미지힐링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회의론자들은 분명히 약물이나 식단, 개인적 상황의 변화가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낫고자 하는 욕구가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동기부여를 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약을 먹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회복하려는 의지가 일사불란하게 맞물려 작용해야 한다. 어느 한 가지 때문에 낫는 경우는 드물다. 몇 가지가 상승작용을 해서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확신해라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끔찍하다' '절대 낫지 않을거야' '지친다' 같은 말로 단언을 한다. 그들의 기분을 정확히 반영하는 이런 말은 뇌의 해당 영역의 뉴런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수준에서 질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진다. 따라서 그 병과 연관된 세포들이 단백질을 비롯한 다른 물질을 생성하면서 병이 더 오래가게 된다.

환자가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꿔서 계속해서 "나는 회복되고 있어" "낫고 있어"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어" 아니면 아예 "완전히 낫기로 결심했어"라고 확신의 말을 거듭하면, 적절한 신경 연결망이 형성되고 신경 펩티드가 분비돼 세포와 DNA에 접속해서 치료를 돕게 된다.

나는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확신의 말을 할때 더 빨리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침에 열 번, 밤에 열 번씩 반복해서 말하는 식으로 시작해도 좋고, 생각날 때마다 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낫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에 20번이나 30번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치유의 기적을 부른다

치유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것만으로도 한 장을 할애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영혼을 기른다.

사랑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놓는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우리 마음속인 것이다.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닿아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 사랑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추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곳은 연인이나 가족, 친구 관계에서다. 그들은 삶의 경험에서 기초가 된다. 그들이 없는 삶은 무의미할 것이다.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또한 마음과 정서, 신체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다. 진정한 사랑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이전에 중요했던 많은 일이 전처럼 중요해 보이지 않게 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몸과 마음의 질병을 부르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가 자리하게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신체적 치유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기에 완벽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와 진동과 동기를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을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한 가지는 '해야 한다'라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이런 저런 일을 해야 한다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괴로운 것은 우리 자신이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때, 즉 "있는 그대로의 내가 돼도 괜찮아!"라고 말할 때, 행복과 평화를 느끼고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만약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마라. 하지만 괜찮다. 모든 것이 성장의 일부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당신 자신을 위해 기운을 내라.

지금 이 순간의 우리 자신과 화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달아나지 않는 이 지점에서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26억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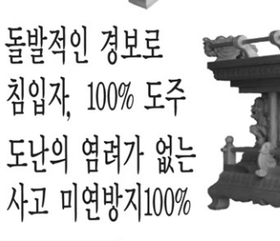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현우경' 이야기 (38)

천상에 태어난 용

용은 과일을 주며 팔관재계 책을 원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 우연히 땅에 떨어진 과일을 발견했다. 과일은 아주 향기롭고 빛깔이 고왔다. 나그네는 난생처음 보는 과일이 신기해 얼른 자신의 보따리에 주워 담았다.

'처음 보는 신기한 과일이니 아껴뒀다 시장에 내다팔면 큰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며칠 후, 나그네는 과일을 팔기 위해 시장에 나갔다. 나그네는 과일가게 상인에게 자신이 가져온 과일을 보여줬다.

"생전 맛보지 못한 진귀한 과일이오. 분명 사람들이 서로 사가려고 할 것이오."

"아니, 이런 과일은 처음 보오. 이것을 어디서 구했단 말이오."

"저기 산 넘어 숲에서 발견했소. 과일을 살것이오? 말것이오?"

상인은 과일 맛에 반해 나그네에게 돈을 두둑이 주고 과일을 샀다.

'이 과일을 왕에게 바치면 분명 더 많은 포상금을 줄 것이다.'

상인은 바로 궁으로 향해 나그네에게 산 과일을 왕에게 바쳤다. 왕은 상인이 가져온 과일을 맛보고 말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 보는구나. 이걸 어디에서 구했느냐."

"어느 나그네가 우연히 숲을 지나다 발견해서 저에게 팔았습니다."

"근처 숲에서 나는 과일이라면 왜 지금까지 나에게 이 과일을 올리지 않은 것이냐."

"그 이유는 소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과일이 어디서 나는지 알았으니, 앞으로 매일 이 과일을 나에게 바치도록 하여라."

상인은 왕의 명령을 받고 과일을 구하기 위해 나그네가 알려 준 숲으로 향했다. 하지만 숲을 다 뒤져보아도 과일나무는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이 과일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왜 보이질 않는 것인가. 내일 이 과일을 왕에게 바치지 못하면 내 목숨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상인은 날이 저물도록 과일을 찾지 못했다. 상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용이 상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타났다.



삽화 · 강병호

"자네는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는가?"

"왕이 저에게 과일을 구해오라고 명했는데, 제가 찾는 과일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자 용이 상인이 찾는 과일을 한 바구니를 주면서 말했다.

"이 과일을 왕에게 가져다 주거라. 대신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왕과 나는 과거 매우 친한 친구였다. 왕은 팔관재계를 잘 지키고 익혀 지금 왕이 됐지만, 나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 용이 되고 말았다. 나는 다음 생에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그러니 지금 당장 왕에게 가서 팔관재계 책을 가져오너라. 만약 가져오지 못하면 이 나라를 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상인은 용이 준 과일을 들고 왕을 찾아갔다. 왕은 과일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상인의 어두운 낯빛을 발견하곤 물었다.

"너의 표정이 왜이리 어두운 것이냐?"

상인은 왕에게 자신이 어제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얘기했다. 왕은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에 빠졌다.

"지금 나는 팔관재계 책을 갖고 있지 않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고민에 빠진 왕은 결국 신하를 불러 이 사실을 알렸다.

"지금 이 세상은 불법이 없어져, 팔관재계 책을 구할 수가 없다. 만약 책을 구하지 못하면 용은 분명 이 나라를 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묘책을 내서 책을 구해 오거라. 만일 구해오지 못한다면 너의 목숨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신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 매우 근심에 잠겨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왕이 저에게 팔관재계 책을 구해오라 명했습니다. 지금은 불법이 없어져 책을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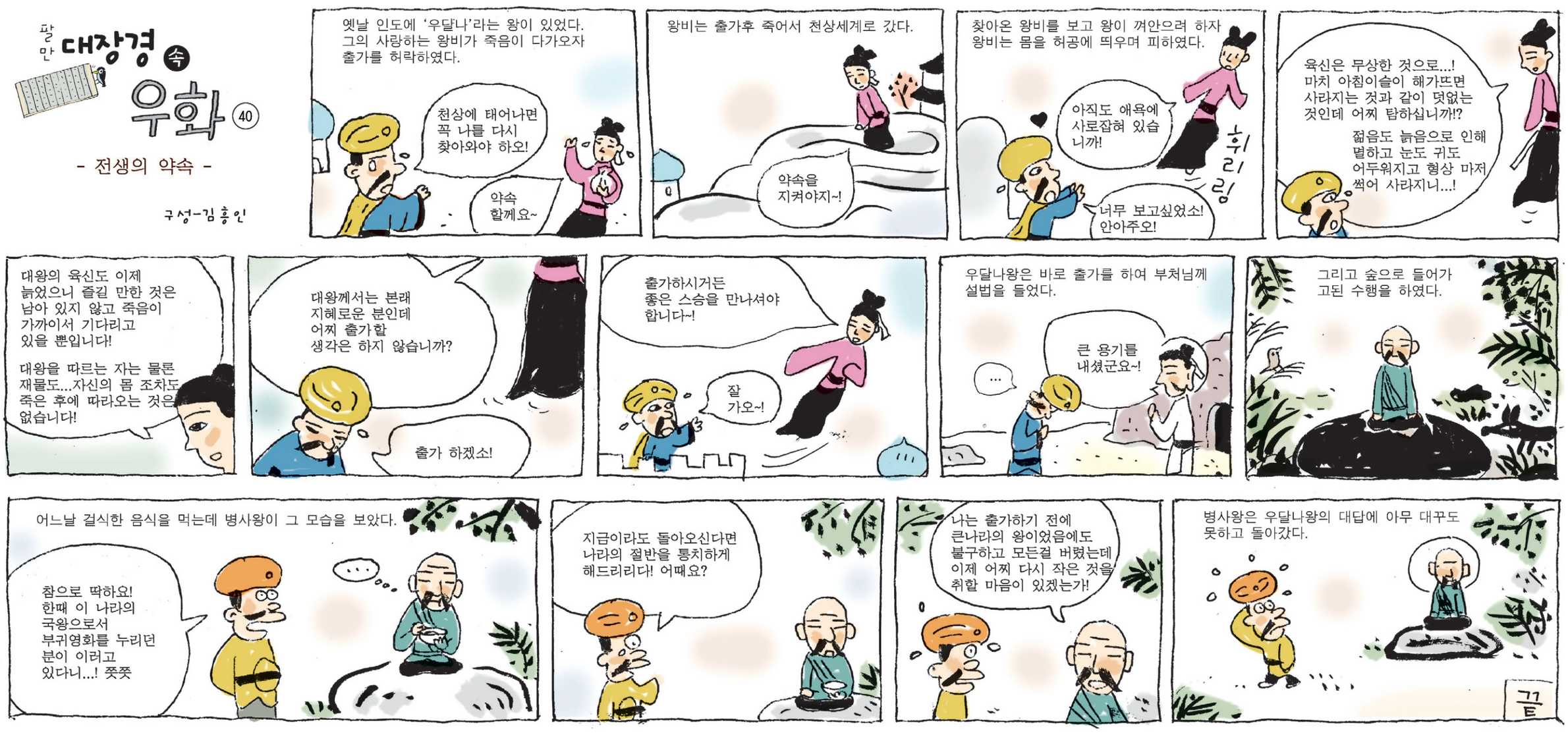
"집 뒷마당에 큰 바위하나가 있다. 이상하게도 그 곳에 항상 빛이 뻗친다. 그 바위를 보면서 어떤 바위일지 궁금했다. 혹시 모르는 일이니 바위를 깨 보거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바위를 깼다. 그러자 바위 안에서 두 권의 경전이 나왔다. 하나는 팔관재계와 나머지 하나는 열두가지 인연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신하는 곧장 왕을 찾아가 책을 바쳤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책을 용에게 바로 전달했다.

용은 책을 받고 매일 같이 수행하고 공부했다. 결국 용은 목숨이 다하자 천상에 태어났고, 훗날 스로타판나가 됐다.

왕도 경전을 발견하곤 다시 열심히 수행해 세상에 불법을 널리 알리고 중생들을 교화했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생사 문제' 해결해 누리의 주인으로 살라!"


《허공의 주인공》
-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 선어록
청봉 전근홍 엮음
46판 | 흑백 | 360쪽 | 10,000원
허공성이 바로 '나'니 부처행 하며 살자!
생활인에게 맞는 '새로운 화두(새말귀)' 공부법
20세기 '한국의 유마'로 추앙받는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생생한 법문과 언행을 기록한 책.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절망적이었던 청봉 거사(보림선원 서울선원 원로회 예백실장)가 스승의 설법과 수행 방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접 듣고 느꼈던 법문 내용을 소개해 재가 수행자들의 발심과 공부를 돕는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이오칼라지붕공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그 한 점의 공한 자리에 다시 놓으세요



그림 · 최주현

부처님 법을 알고 싶습니다

문)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사실 부처님이라는 것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즉 말하자면 똑바른 '참사람', 참사람이라는 것이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참사람 되려고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또는 참사람 아니 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한 점의 공한 자리에,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다시 놓는다면, 다시 맡겨 놓고 믿음을 진실하게 갖는다면,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서 알게 되고, 그때는 부처님의 마음도 모든 중생들의 마음도, 모든 걸 다 알게 되며 남한테 해하지 않는 마음,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이 자비라는, 헐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것이 몰락 없는, 높고 낮음도 없고 부처 중생도 없는 고러한 한 점의 그 내놓을 게 없는 이런 빈 그릇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찰나찰나 나투면서 밝게 비추어 주는 바로 손 없는 손이요, 발 없는 발이요, 길 없는 길이라. 이름하여 평손이요, 평발이요, 이것이 바로 한 손 들어서 천지를 삿갓으로 쓰고 한 손 들어 해와 달을 꿰어 굴리면서, 한 발 들어 이산 저산 푸른 산 한 발 디디니, 목마르면 물 마시고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는 말이 얼마나 참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참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목마를 때 물 먹겠다 하고 계산하고 먹습니까? 무심으로 그냥 떠먹습니다. 그게 바로 참사람의 활용이에요. 여러분이 금을 가졌다면 그걸 얼른 내놓지 않지만 걸레를 빨아 쥐었다면 빨리 내던질 겁니다. 빨리 빨아서 얼른 짜서 놓습니다. 금을 가졌더라도 그렇게 빨리 짜서 걸레 놓듯 하십시오. 신발 벗어 놓고 올라가듯. 아시겠습니까? 금을 가졌다고 해서 이걸 소중히 생각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리인만 되라는 얘깁니다. 착을 두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분수를 알고 살고 건너뛰지 못할 걸 건너뛰다가 개천에 빠지지 말고, 구덩이에 빠지지 말고 서서히 침착하게, 산이 태산같이 이렇게 있으면 서서히 돌아가고,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에 채워 놓고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침착하게, 어떠한 악조건이 닥친다 하더라도 안으로 굴리면서 그 자기 주인공 한 점에,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자기로 인해서 나온 거니까, 잘못했든 잘했든 자기가 있으니까 나온 거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서 한번 안으로 굴려서 바로 다시 놓는 그런 그 침착한 마음, 그리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둘로 보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스스로서 수레바퀴 돌듯 합니다, 시간과 공간도 없이.

이것이 참사람의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라기보다도 참사람의 법을 알아야 그 부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뜻도 알 것이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해 놓으신 그 뜻을 바로 우린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현실의 용어로 대치해서 그것을 서로에 이득이 있고 공덕이 되게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악조건의 구정물 핏물 고름물을 전부 한데 합쳐서 말갛게 만들어서 생수물을 해서 떠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한 방울의 생수가 아니라면 이건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뜻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한마디 같이 안 해도 오고 감이 없이 전달이 되고, 미국이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 내면은 서로 전달이 되고, 돌하고도 말을 하게 되고 일체 만물과 더불어 같이 서로 말을 하고 서로 듣고, 서로 공생하고 공체로서 돌아가는 조화를 이루니 그것이 바로 보살이며, 부처며, 그것이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를 자기한테다 두고 자기 몸뚱이는 탑돌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변소에 들어가면 부처가 없습니까? 법당의 형상만 부첩니까. 그 형상이 자기 형상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모두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도 부처님이, 그 부처님 마음이 바로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부처가 알고 부처가 아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 자기는 껄껄 웃을 겁니다. 한 번 하늘을 쳐다보고 웃고 한 번 땅을 내려다보고 눈물을 흘려서 자비로서의 이 만물을 다 양식으로서 적셔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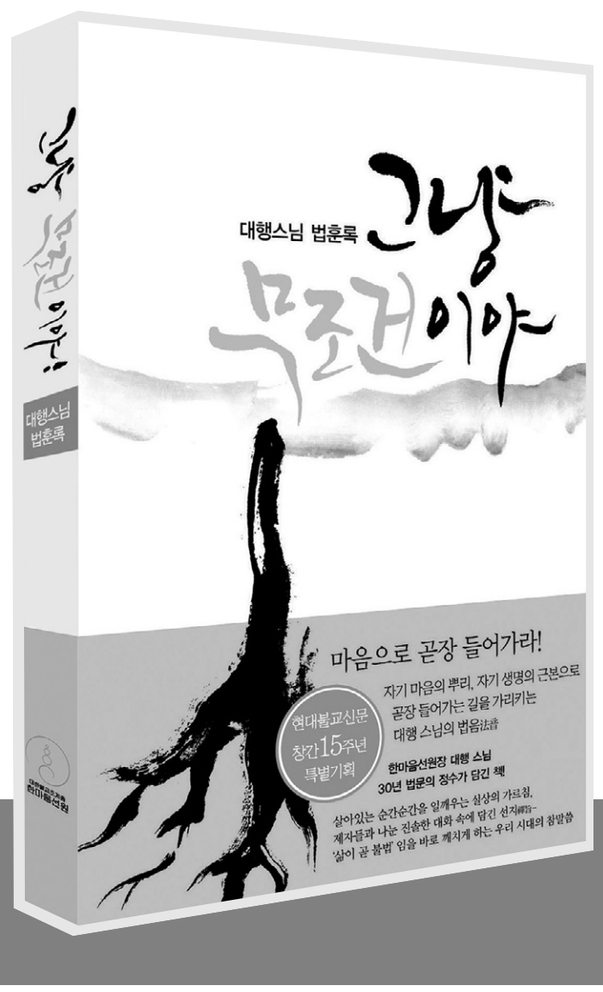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반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날까지 살면서 '부처가 돼야지. 내가 위대하게 돼야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사람은 어디까지나 지옥을 거치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듯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 안 해 본 것은 아픈 줄도 모르죠. '아! 남이 그렇게 아팠다더라.' 이런 정도지, 그렇게 실감나게 아파 보지 못합니다. 어디고 한 번씩은 다 들어가서, 물 속에도 빠져보기도 하고, 불 속에도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떡그릇에도 엎드러져 보기도 하고, 번연히 알면서도 엎드려져 보는 그러한 패기가 있어야 하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이 공부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면서 먹을 줄 알아야 하고, 먹으면서 쌀 줄 알아야 되고, 싸면서 잘 줄을 알아야 한다. 이건 끊임없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자는 것은 푹, 우리가 모든 것을 한 점에서, 그 공한 한 점에서 나오는 거 한 점에다 다시 맡겨 놓는 작업을 하는데, 습이 다 떨어져서 녹아 버리니까 그만 푹 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푹 쉰 사람이, 빈 그릇이 된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모든 법을 굴린다면 하나 깔축없이 걸림 없이 굴릴 거라 이겁니다. 담았다 꺼냈다 담았다 꺼냈다 해도 항상 그릇은 비어 있을 테니까. 그러니 그렇게 담았다 꺼냈다 담았다 꺼냈다 하는 게 아니라 담으면 싸 버려요, 담으면 싸고 담으면 싸고. 싸면서 또 자. 이 세 가지의 뜻이,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못다 배우는 이런 진리가 거기에, 근본이 거기 들었어요. 자고 먹고 싼다 하는 그 세 마디에 다 들어 있다 이겁니다, 부처님 법이.

이 도리에는 꿈도 생시도 없고 낮과 밤도 없는 것입니다. 동 · 서도 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적에도 길을 인도하는 당신이, 모든 걸 내고 들이는 당신이 나를 잘 이끌어서 나의 사량적인 이 분별을, 모든 거를 길을 밝혀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서 그냥 관하고, 도대체 참 당신은 내가 알 길이 없으니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서 화두를 잡고, 내 공한 몸뚱이가 화두니 그 몸뚱이에서 나오는 거 몸뚱이에다 다시 놓고,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놔요. 그런다면은 자기가 억겁을 거쳐서 나온 그 습, 종문서는 몽땅 타 버릴 테니까. 내놓을 수 없는 원자력이거든요. 자력이 돼서 그냥 닿기만 하면, 갖다 놓기만 하면 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서 자기 눈에서는 자기 모르는 눈물이 스스로 흐르게 되고, 그 흐르게 되는 눈물은 바로 그 습의 업이 그대로 녹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진짜로 나는 여기를 믿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한 걸음 한 걸음 자유인으로서 보람 있게 살 수 있어야

☞ 29면에서 계속

고 다닙니다. 나는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요. 자기를 자기가 못 믿고 자기가 자기 부처를 못 믿고 자기 형상만 보니까 자기를 자기가 못 믿죠. 자기 그 공한 빈 그릇을 모르니까. 고정된 게 어딨다고 그게 비지 않았다는 겁니까, 모두가. 자기가 어디 있나요? 어떤 사람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요? 남편을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요, 부모를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요, 자식을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요. 순간순간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데. 그러니 공했다는 건데, 그렇게 무수히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공한 데서 나오는 것이니 거기다가 맡겨 놓고 자기는 거기서 형성된 거니까 그대로 공부하다 보면은 그대로 자기 마음과 실상이 나와요, 그대로.

저의 업보 탓일까요?

문)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후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는 패스했지만 변변한 직업조차 없는 터라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상태입니다. 이런 게 모두 저의 업보 탓인지요? 그렇다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살림에, 생활에, 생명에 의해서 돌아가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대로 여여하며, 소소영영하며, 무한하며 이렇게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업보가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고 모두들 하곤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알지 못하면 모든 걸 업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을 하지 마십시다. 업보가 있다고 단정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마음 한생각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업보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자기가 수억겁을 지었다 하더라도 한생각을 돌리면 그 억겁은 무효로 돌아갑니다.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저 녹음테이프에 어떤 말을 잔뜩 넣었습니다, 끝까지. 그랬는데 한 순간에 그 테이프는 바로 다 지워졌습니다. 왜? 내 마음이 한생각 달라져서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해 놓은 말과 그것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억겁을 내려오면서 죄업과 인과, 유전성 이런 것을 다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은 거고 바로 내 주인공에 의해서 모두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아니다. 단지 내가 지은 거니까 바로 그 지은 데서 해결을 볼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놓는다면 일순간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용광로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이 진실하다면 어느 거든지, 즉 말하자면 진화 안되는 것이 없고, 또 진화가 된다 하더라도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섭리대로 가는 거하고 내 자유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하곤 다른 겁니다. 기계도 고장이 나면 바로 조립한 사람한테 이 기계를 고치라고 맡겨야 자기가 조립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고장이 난 걸 틀림없이 알기 때문에 금방 고쳐 놓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났든지 잘났든지 자기가 형성시켰고 자기가 억겁을 끌고 나왔고 또 진화를 시켰고, 차원을 내리고 높이는 거는 자기 성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보에 억눌리고 유전에 억눌리고 모든 그런 것에 끄달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부터 끄달리지 말아야지 그것에 끄달린다면 공부 못합니다. 내가 배웠다, 내가 안다, 권위가 있다…, 무엇이 그 공부하는 데 마음에 붙겠습니까? 그러한 권세도, 권위도, 또 학식이 높은 것도, 못 배운 것도, 아무것도 붙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선량하고 겸손하고 믿음 있고 눈이 새파랗게, 불빛이 나듯이, 즉 말하자면 정열적인 믿음, 그러면서도 항상 유순하게, 순조롭게, 스스로, 요렇게 믿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치 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동등한 인간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 없다는 결론에서 억겁을 거쳐 오면서 쓰라린 아픔에 이어 가는 그 피를 흘렸기에 우리는 더 피를 흘릴 수가 없고, 더 아픔을 당할 수도 없고 더 속박당할 수가 없고, 더 노예로 살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스럽게,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유스럽게 보람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남편 내조 잘하고 싶은데…

문) 요즘 바깥 살림이 어렵다보니 직장생활 하는 남편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내조도 잘하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고 싶은데 어찌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답) 여러분이 보살이 돼서 내조를 하되, 바깥에서는 남편을 앞에 세우더라도 항상 내조가 거름이 돼서 어머니가 돼 줄때는 어머니가 돼 주고, 딸이 돼 줄 때는 딸이 돼 주고 또 친구가 될 때에는 친구가 돼 주고 또는 동생이 돼 줄 땐 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애하고 어른하고 만나면 말이 안 통하죠? 그렇게 돼선 안 됩니다. 애를 만나면 내가 애가 돼 줘야 돼요. 어른을 만나면 어른이 돼 줘야 하고요.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바로 우리 가정 기상대가 참 훌륭할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기상대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그런 비오는 기상대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가정에도 기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착 보니까 벌써 기상이 쭈굴쭈굴합니다. 그냥 꾸물꾸물하고 검은 구름이 끼었다 그러면 비 올 거거든요, 그게. '아, 꾸물꾸물하구나. 이거 비 오기 직전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방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애들의 기상도 그렇고, 어른의 기상도 그렇고, 전체의 기상도 그렇고. 그럼 위에서 하나 기상이 나쁘면 아래까지 내려오거든요. 어느 한 부분만 비가 와도 그쪽은 다 응달이 집니다. 꾸물꾸물하거든요. 그러니 활짝 개이게 됐나? 이것도 우리가 어머니들로서의 딱딱 들어가 맞게끔 살펴야죠. 그것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높게만 두지 마세요. 얕은 사람을 위해서 심부름꾼입니다, 높은 사람은. 언제나 윗사람은 심부름꾼이지요. 그래서 여북하면 부처님께서도 '똥친 막대기'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체가 애들을 길러도 그 기상을 잘 봐서 "공부하라!" 이렇게 하고 싶어도 좀 검은 구름이 끼었다면 "얘, 좀 쉬었다 해라." 차라리 요렇게 해 주면은 속으로 '아이, 쉴 사이가 어딨나, 뭐. 해야지.' 이러지마는 "얘! 얼굴 찌푸리고 있지 말고 공부나 좀 해라." 이런다면 그거는 벌써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우산 쓰고 그냥 나갈 거야.' 이럭하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가정의 기상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상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몸뚱이에도 기상이 있거든요. 야, 요 간이 기상이 나쁘냐, 좀 꾸물꾸물하느냐. 옆구리가 결리느냐, 이마가 걸리느냐. 이게 다 기상이에요. 통신기상.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게, 하나를 알면 열 가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며 우리들의 법이면서도 이것이 여여한 도로 승화될 수 있는, 도(道)라는 이름이 도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게 도거든요.

그리고 높은 것만 알고 높은 말만 제일이라고 하지 말고 얕은 것이 있기 때문에 높은 게 있고 밥 한 숟가락이 있기 때문에 한 사발이 있지, 만약에 한 숟갈이 없다면 한 사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숟갈 양이나 한 사발 양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로 가는 거나 마차로 가는 거나 이것은 어느 게 빨리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비행기가 빠르다고 할 테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데서는 이게 빠르다 저게 빠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물질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럴 뿐이지, 우리 이 마음의 도리는 마음대로 빨리 갈 수도 있고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다는 그 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자기의 차원에 따라서 가정에 아프거나 뭐 안되는 일이 제가끔들 있겠지만 그 주인공에다가 모든 거를 맡겨 놓고 관할 수 있다면 남편도 가정도 기상이 좋아질 것입니다.

어떤 스님들을 보고 실망한 일이 있는데…

문) 저는 절이 좋아서 가끔씩 절에 가곤 하는 합니다. 그런데 신도들을 대하는 어떤 스님들의 모습에서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행자라기보다 그냥 살림꾼 같다는 분별심이 일어나 속상했습니다. 스님이라면 우리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지요.

답) 스님네들도 그렇지마는 여러 신도님네들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자세는 스님네들도 신도가 잘못되고 잘되고, 예쁘고 밉고 그런 걸 보지 말아야 하고, 여러 신도님들도 스님네들이 밉고 예쁘고, 또는 잘하고 못하고 이걸 봐서는 안 됩니다. 자세가 말입니다.

우리는 한 철 놀러왔다가 가는 겁니다. 도시락 싸 가지고 왔든 못 싸 가지고 왔든, 잘 입고 왔든 못 입고 왔든, 한 짐 지고 왔든 한 짐을 못 지고 왔든 우린 놀러왔다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곤 하는 것이죠. 인생살이의 반복된, 쳇바퀴 돌듯 하는 이 진리를 우린 파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스님네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스님네들이 이 도량에서 행하는 법하고 여러분이 살림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행하고, 여러분이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한번 인간의 젊음을 불사르고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된다는 게 그렇게 수월친 않습니다. 그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은 숭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먼저 인사를 해야 할 것만 생각하고 '에이, 그 스님. 아무 것도 아니야. 아상이 있어서 그냥 뭐 안 해. 뭐, 신도들 봐도 그냥 휙 돌아가고 마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마세요. 그거는 바깥으로 끄달리는 겁니다. 또 스님네들이 '아이구, 신도들이 인사도 안 하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서도 그건 바깥으로 끄달리는 겁니다. 양면이 다 그렇죠.

우리가 놀러왔던 길에 어떠한 게 조금 잘못됐든 잘됐든 자기 할 일만, 어디가 뭐가 떨어졌으면 주워서 얹어놓고, 또 밥이 없는 사람을 보면 밥을 같이 나누어 줬으면 됐고, 또 짊어지고 오지 않은 사람은 같이 나누어 줬으면 됐고….

그저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세 그 자리에서 봤으니깐 그냥 하고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가는 거 쫓아가서 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는 거 마다하지도 말고, 오직 공부하는 데는 그저 관하고 정진하는 거, 모든 거는 바깥에서 끄달려서는 안 된다는 점,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위 법문은 1991년 8월 2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이 태산같이 있으면 서서히 돌아가고
구덩이가 있으면 채워놓고 물이 흐르듯이
어떠한 악조건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자기 주인공 한 점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서
한번 안으로 굴려서 바로 다시 놓는
그런 침착한 마음,
그리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스스로서 수레바퀴 돌듯 합니다, 시간과 공간도 없이.
이것이 참사람의 법입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NAVER 영일상사

초를 반 값 이하로 절약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촛대 봉화 캡]



1. 화재예방 : 특허품인 캡을 씌워 놓으므로 화재방지에 절대적이다.
2. 그을음 방지 : 촛불(공기 산소) 조절로 완전 연소가 되어 그을음을 방지한다.
3. 비용절감 : 초의 수명을 2배이상 연장하여 비용이 절감된다.
4. 청결유지 : 촛대에 촛물이 묻지 않아 깨끗이 사용할 수 있다.
5. 간편사용 : 양초위에 봉화캡을 씌워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허번호 제 10-1158787)

한번 구입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
자매품 : 불기닦는 광택약 '이지골드'
농협 312-0029-1189-81(예금주 : 고태용)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PB-1 TM 영 일 상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불자 세상보기

현재 한국영화와 그 미래



정재형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현재 한국영화는 어디까지 왔는가. 2012년 상반기 100만 이상을 동원한 한국영화는 무려 20여편이나 된다. 이런 초대박 흥행행진은 믿을 수 없는 기록이다.

이제 한국영화는 헐리우드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 스펙터클장면, 첨단 특수효과를 다 구비함에 따라 헐리우드 영화의 서사적, 기술적 완성도를 구사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영화는 전쟁영화, 스포츠영화, 다큐멘타리, 재난영화, 법정영화, 도둑영화, 등 모든 장르도 소화할수 있는 수준을 보여준다. 〈JSA〉, 〈국가대표〉, 〈워낭소리〉, 〈해운대〉, 〈부러진 화살〉, 〈도둑들〉의 흥행이 그걸 반영한다.

이러한 국내 영화의 신장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콜을 받는 게 사실이다. 그 첫번째 신호탄은 리메이크 판권이 해외에 팔려나간 것이다. 안병기의 〈폰〉, 박찬욱의 〈올드 보이〉, 곽재용의 〈엽기적인 그녀〉, 김지운의 〈장화홍련〉 등이 해외에 팔려 리메이크되었다. 스타들의 해외 진출 역시 눈에 띠게 늘었다. 장동건, 전지현, 이병헌, 송혜교 등 배우들과 박찬욱, 김지운 감독도 헐리우드에 진출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쓰라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영화산업은 '사상누각', 즉 모래위에 지은 집이어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에 사실 놓여있다.

영화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영화인들의 생계문제다. 대기업 투자 이후 자본덕에 영화는 많이 생산되지만 그 몫이 영화인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이 돌아가는 건 아니다.

산업을 유지하는 필수요소인 노동력에 대한 관리 소홀은 결국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한 영화의 스크린 독점이 심한 것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극장문화와 관객문화의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해도 민도가 낮아지는 것은 순전히 이런 오락에만 길들여진 관객의 습관 때문이다.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영화가 국내에서 푸대접받는 이유를 영화정책과 배급, 상영제도의 불합리에 있다고 종종 푸념하곤 했다.

같은 국제적 명성을 누리는 봉준호, 박찬욱, 김지운, 이창동의 경우는 상업성이 강해서 살아남지만 임권택, 김기덕, 홍상수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이다.

중흥기 맞은 한국영화
이면은 '사상누각' 상태
불교적 스토리텔링이
불교영화 활성화 과제

끝으로 한국영화를 더욱 신장시키기 위한 소재개발 측면에서 불교소재영화에 대해 생각해 본다. 김기덕 감독의 베니스 그랑프리 수상작 〈피에타〉는 어떤 영화인가. 이 작품의 포스터를 보면 배우 조민수가 이정진을 안고 흐느끼는 장면을 연출해냈다.

성모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조각상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을 패러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장면은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서 말한 바로 그 이미지다. 자식을 사랑하며 한평생 희생한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 자식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 바로 그것이다.

바이블의 유산은 문학, 미술, 전 예술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마치 기독교 소재 영화처럼 나타난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인류 공통의 공감대이다. 불경 소재 문학, 미술 등 영화에 영향을 주는 소재의 개발과 창작이 불교영화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역시 불교를 정면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 소재를 통해 인생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불교영화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불교라는 소재는 한국감독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이야기들이다.

불교소재 활성화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한국영화의 세계화를 향해 더없이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사부대중 칼럼

한반도 평화는 세계평화



제정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前 신계사 도감

얼마전 우리 정부는 북한에 수해지원을 제안했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쌀과 중장비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밀가루와 라면을 주겠다고 하면서 대북지원은 무산됐다.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기에 이런 결과는 이미 예상됐던 시나리오다. 상대는 감기약을 원하는데 무좀약을 주겠다고 하는 꼴이 되면서 망신을 당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국제사회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MB 대북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다. 정말 대북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 참패로 끝나버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사실 대북지원은 수해민을 돕겠다는 단순한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색된 대북관계를 풀기 위한 열쇠가 바로 대북 지원인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전체를 잃는 우를 범하고 있다.

가장 큰 손실은 경제 분야다. 북한을 적이라고 간주하며 적대시 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의 큰 시장을 잃었다. 물론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퍼주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좀더 먼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을 보자. 그간 남북한 경색 국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금강산 관광 사업자들이다. 이에 투자했던 민간 사업자들은 빚더미에 올라 가정이 파탄 났고 자살을 한 이들도 있다고 한다. 현대아산 직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들어와 이권을 행사하고 있다. 얼마전 평양에 다녀온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평양 시내 자동차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중국 사업자들이 들어와 평양을 점령한 것이다.

또 나진 선봉까지 중국인들이 진출해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결국 우리가 대북지원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사이 중국이 북한 경제를 장악해 버린 것이다. 푼돈 아끼려다 전체를 잃은 격이다. 유연성이 부족한 MB정부의 편향된 외교 정책이 낳은 결과다.

물론 경제적 손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종교인으로서는 문화 교류와 발전이 중단된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다. 화해와 협력으로 미래 통일 국가를 형성해야 할 시점에서 결국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남북 정책은 점점 퇴보하고만 있다. 차기 정권이 대북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이를 회복하는 데는 최소 3년이 걸린다. 그래서 나는 현재의 상황을 지난 5년과 더불어 앞으로 회복해야 할 시간 3년을 합쳐 잃어버린 8년이라고 말한다.

차기 정부 거시적 관점서
대북 전문가 배출해야
불교계, 문화정책 등 통해
통일운동 밑거름 되길

차기 정부는 북한을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는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대북 전문가를 길러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민족적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통일과 통일 이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대북지원을 현재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미래를 향한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우리 불교도 문화 정책과 민간 지원 등을 통해 북한과 꾸준히 교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찰 복원, 문화재 발굴 등은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문화 정책이다.

또한 다양한 보시행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불교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꾸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와 교육 사업을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간단한 병원부터 짓고 치과 산부인과 정도는 진료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불교계 인력들이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그래서 불교가 통일 한국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社說

불교 유치원의 누리과정 교육

새싹 불자 포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8월 20일 선정 발표한 '5세 누리과정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총 140곳 중 가톨릭·개신교 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11곳인 반면 불교계 유치원은 한 곳도 선정돼지 못했다. 또한 어린이집 140곳 중 개신교 단체가 6곳이었으며, 불교계 어린이집은 서울 신도림 반야어린이집과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혜정어린이집 등 고작 2곳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지난해 5월 5세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누리과정'이 많이 작용됐다. 누리과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왕따,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유아기 인성교육이다.

복지부와 교과부는 누리과정 도입이 초창기인 만큼 규모나 조직면에서 체계를 갖춘 국공립 기관들이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진각복지재단서 운영 중인 혜정어린이집은 자연친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유아생활영어, 부모생활교육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또한 서울 신도림 반야어린이집도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마감재로 개·보수를 마치고 시설안전교육, 배움과 협동, 다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불교계에도 전국 사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재정면에서 열악하다보니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현실타령만 할 때는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들을 모아 어린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 종단이 팔을 걷어부쳐 우수 발굴 사례를 수집하고 각 불교 어린이집에 전파해 인성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래의 한국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다.

불교생협 불씨 다시 한번 지피자

올해는 UN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정부 역시 지난 1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고,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에는 의료, 금융, 소비자 등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지만, 특히 소비자 운동인 생활협동조합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 한살림, 아이쿱(ICOOP), 여성민우회 생협 등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쿱 생협의 경우 조합원이 2010년 11만 세대에서 2011년 15만 세대로 31%가 늘었다. 공급액도 2011년 2900억 원으로 32%가 증가했다.

이런 주요 생협의 친환경농식품 공급액은 국내 식품 시장규모의 0.5%, 친환경농식품 시장의 13%에 달하며, 참여 생산자 수도 6천 농가에 이른다.

이런 호재에도 불교생협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6년 야심차게 시작한 불교생협연합회 준비위원회는 현재 활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찰 생협매장도 답보 상태다. 대한불교청년회의 연꽃 생협도 활발히 운영되는 편이 아니다.

인드라망 생협만이 꿋꿋히 버티고 있다. 인드라망 생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10여 년을 추진해 온 귀농운동의 역할이 크다. 귀농학교로 배출된 농부들이 생산자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 믿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도 생겨났다. 지난해만 500명의 조합원이 늘어났다. 매년 적자였던 수익구조도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

꺼져가는 불교생협의 불씨를 다시 지피기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활동가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그 중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 사찰들을 중심으로 '공존공생'의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다. 농촌과 자연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생협운동은 '불이(不二)'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대자비 보살(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염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원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비구니원
원로의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능현
재무부장 석종률 문화부장 석법륜
포교부장 석해안 감사부장 석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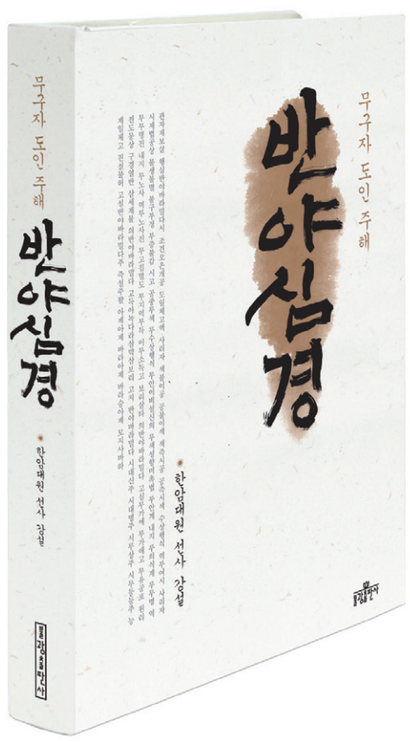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dwbk.net

부산 제2 총무원 청사개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식물원 39길 2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70자 안에 든 공(空)의 도리를
유가와 도가의 핵심 사상까지 아울러
세상에 던지고 홀연히 사라졌던
무구자 도인 !

그리고
우리 시대 최고의 선승 중 한 명인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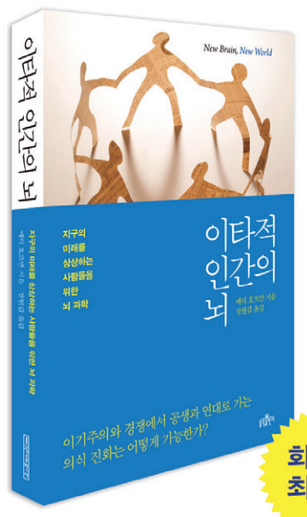
한암대원 선사 강설
456면 | 22,000원

무구자 도인 주해
반야심경



송계도인松溪道人 무구자無垢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홀연히 나타나서 무엇인가 외우곤 하는데 어느 스님이 들어 보니 어떤 것은 알아듣겠고 어느 부분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야심경』을 주해註解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인데 희귀한 것이니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받아 훑어보니 좋은 말씀이어서 속장경續藏經에 실었다고 합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지구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을 위한
뇌 과학

이타적 인간의 뇌

에릭 호프만 지음
장현갑 옮김
272면 | 15,000원

화제의 최신간

현대 문명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뇌의 위기다!

생태계 파괴, 빈부격차 확대, 공격적 성향의 극대화……
현대 문명의 위기가 인간의 이기주의에서 왔다고 진단한 저자는
우리 뇌에서 희망의 근거를 발견했다.
좌반구와 우반구의 균형이 회복되고 전두엽이 고도로 활성화되면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뇌와 인간 의식, 그리고 세계의 관계에 관한 40년 연구를 총망라한 이 책에는,
지구를 사랑하는 한 가슴 뜨거운 과학자의 열정이 녹아 있다.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 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청욕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